



##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 경 교수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 한국형 지오투어리즘 정착을 위한 연구

2012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박 민 영

# 한국형 지오투어리즘 정착을 위한 연구

박 경 교수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年 10月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박 민 영

# 인 준 서

박민영의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印)

심사위원 \_\_\_\_\_ (印)

심사위원 \_\_\_\_\_ (印)

심사위원 \_\_\_\_\_ (印)

심사위원 \_\_\_\_\_ (印)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최근 제주도가 지오파크(Geopark)로 선정되면서 국내 지형·지질 자원을 관광화하려는 노력이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오투어리즘은 지오파크 활동의 핵심 영역 중 한 부분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교육적 측면의 조화를 추구할 수 있으며 계절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이다. 그러므로 지오투어리즘은 지오파크의 성장과 함께 많은 관광객에게 환경보전 의식과 사회·경제적 활동까지 촉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오투어리즘은 국내에 2000경년에 소개되어 현재 일반 대중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오투어리즘에 관한 학문적 접근과 국내 정착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지오투어리즘에 관한 개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이를 토대로 한국형 지오투어리즘 정립 및 국내 정착 방안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국내·외 지오투어리즘 관련 논문을 통해 한국형 지오투어리즘 개념을 정립하고, 국내 지오파크 및 지오투어리즘 운영 사례가 부족하여 해외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이를 한국형 지오투어리즘 모델에 반영하였다. 국내 지오투어리즘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국립공원 홈페이지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관광 안내와 해설 서비스를 살펴보았다. 또한 관광 관련 해설가 양성 교육 과정을 통해 국내 지형·지질 교육 여건을 파악하였다.

국내 지형·지질 전문 가이드 해설이 제공되고 있는 지오투어리즘을 조사한 결과, 제주도의 성산일출봉, 거문오름과 강원도의 호야 지리 박물관, DMZ 지오파크가 있다. 운영 주체에 따라 각각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대학, 개인 전문가, 지역 주민 참여로 지오투어리즘을 분류하였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성산일출봉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자연유산해설가를 양성, 관리하고 있다. 대학 주도형 DMZ 지오파크는 해당 대학이 지오

사이트를 개발하고 해설가를 양성하고 있다. 개인 전문가형 호야 지리 박물관은 퇴직 교사가 직접 박물관 관리와 지리트레킹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 참여형 거문오름은 가장 이상적인 국내 사례로 자연유산해설가 교육을 받은 지역 주민이 유산을 관리하며 가이드로 활동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운영 주체별로 다르게 진행되는 지오투어리즘에 관한 SWOT 분석과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등을 반영하여 지오투어리즘 운영 조직 구성과 각 운영주체별 역할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형 지오투어리즘 모델을 제안하였다.

국내 지오투어리즘 정착을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오투어리즘 운영 조직을 구성하여 담당 부서 및 공무원의 직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지오투어리즘 담당 부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하위분과로 학술분과, 지역협력분과, 투어리즘분과를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학술분과에서는 대학 및 연구소와 지오투어리즘 전문가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오투어리즘 전문 가이드를 양성하고, 스토리텔링 및 교육 자료 개발을 담당한다. 지역협력분과는 지역 주민이 지형·지질 관리 및 가이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력하며, 투어리즘분과는 관광객이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관광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이러한 지오투어리즘 운영 조직 모델을 신안군 홍도와 거제도 해금강에 적용하였다. 두 지역 모두 자연경관을 대상으로 하는 유람선 관광이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지형·지질 관련 전문 지식을 관광객들에게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어 지오투어리즘이라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신안군 홍도와 거제도 해금강의 유람선 관광이 바람직한 한국형 지오투어리즘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오투어리즘 운영 조직을 마련하고, 각 분과의 파트너십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한국형 지오투어리즘 정착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국내 지오투어리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 론 .....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 방법 및 지역 .....	3
II. 이론적 배경 .....	9
1. 지오투어리즘의 이론적 배경 .....	9
1) 지오투어리즘 용어의 정의 .....	9
2) 지오투어리즘의 개념 .....	16
3) 지오파크 .....	22
2. 연구 동향 .....	27
1) 국내 연구 .....	27
2) 해외 연구 .....	30
III. 해외 지오투어리즘 사례 연구 .....	38
1. 영국 .....	38
1) 리비에라 지오파크 .....	38
2) 영국 리비에라 지오파크 기구 .....	39
2. 폴란드 .....	41
1) AGH 과학기술 대학 .....	41
2) 지오투어리즘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	42
3. 독일 .....	44
1) 불칸아이펠 지오파크 .....	44
2) 박물관의 역할 .....	45

4. 일본 .....	47
1) 산인해안 지오파크 .....	47
2) 우라도메 유람선 투어 .....	49
5. 소결 .....	50
IV. 국내 지오투어리즘 현황 .....	52
1.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분석 .....	52
1) 자연 생태관광지 .....	53
2) 기암괴석 관광지 .....	55
2. 국립공원 홈페이지 분석 .....	56
1) 자연관찰로 해설관 .....	57
2) 생태관광 프로그램 .....	60
3. 국내 해설가 양성 교육과정 .....	63
1)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과정 .....	64
2) 생태관광해설가 양성 교육과정 .....	67
3) 숲해설가 양성 교육과정 .....	70
4. 소결 .....	73
V. 국내 지오투어리즘 사례 연구 .....	75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지오투어리즘 .....	75
1) 제주도 성산일출봉 지오투어리즘 .....	75
2) 제주도 성산일출봉 지오투어리즘 분석 .....	77
2. 대학 주도형 지오투어리즘 .....	82
1) 강원도 DMZ 지오투어리즘 .....	82
2) 강원도 DMZ 지오투어리즘 분석 .....	84
3. 개인 전문가형 지오투어리즘 .....	88

1) 호야 지리 박물관 지오투어리즘 .....	88
2) 호야 지리 박물관 지오투어리즘 분석 .....	91
4. 지역 주민 참여형 지오투어리즘 .....	94
1) 제주도 거문오름 지오투어리즘 .....	94
2) 제주도 거문오름 지오투어리즘 분석 .....	97
5. 소결 .....	101
VI. 한국형 지오투어리즘 정착을 위한 논의 .....	103
1. 한국형 지오투어리즘 모델 제언 .....	103
1) 지오투어리즘 운영 조직 모델 구성 .....	103
2) 지오투어리즘 운영 조직의 역할 제안 .....	105
2. 한국형 지오투어리즘 적용 사례 연구 .....	114
1) 신안군 홍도 .....	114
2) 거제도 해금강 .....	123
3. 소결 .....	134
VII. 결    론 .....	136
참 고 문 헌 .....	140
ABSTRACT .....	155
부    록 .....	159

## 표 목 차

표 1. 답사 지역 분류 .....	4
표 2. 논문의 구성 .....	5
표 3. 홍도 관광객 추이 현황 및 관광자원 .....	8
표 4. 해금강 관광객 추이 현황 및 관광자원 .....	8
표 5. 지오투어리즘의 협의적 관점 .....	12
표 6. 지오투어리즘의 광의적 관점 .....	13
표 7. 지오투어리즘의 주요 내용 및 개념 .....	17
표 8. 지오투어리즘 전공 이수 교육과정 .....	43
표 9. 해외 사례 시사점 .....	50
표 10. 해안형 국립공원 자연관찰로 해설관 .....	58
표 11. 해상형 국립공원 자연관찰로 해설관 .....	58
표 12. 산악형 국립공원 자연관찰로 해설관 .....	59
표 13.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	65
표 14.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분류 .....	66
표 15. 생태관광해설가 교육과정 .....	68
표 16. 생태관광해설가 교육과정 분류 .....	69
표 17. 숲해설가 교육과정 .....	71
표 18. 숲해설가 교육과정 분류 .....	72
표 19. 제주도 성산일출봉 지오투어리즘 SWOT 분석 .....	78
표 20. 해설가 관광안내원 양성 관련 예산 .....	80
표 21. 제주도 내국인 관광객 입도 현황 .....	80
표 22. 강원도 DMZ 지오투어리즘 SWOT 분석 .....	85
표 23. 영월 지리트레킹 코스 .....	89
표 24. 호야 지리 박물관 지오투어리즘 SWOT 분석 .....	92

표 25. 제주도 거문오름 지오투어리즘 SWOT 분석 .....	98
표 26. 지속가능한 관광 전문가 교육과정 작성 .....	107
표 27. 지오투어리즘 전문 가이드 기본 이론 교육과정 작성 .....	108
표 28. 해설 전문가 영역 교육과정 작성 .....	109
표 29. 홍도 유람선 선상해설 .....	117
표 30. 홍도 유람선 관광의 SWOT 분석 .....	118
표 31. 홍도 ‘가고 싶은 섬’ 투자 계획 .....	120
표 32. 거제도 해금강 선상해설 내용 .....	128
표 33. 해금강 유람선 관광의 SWOT 분석 .....	129
표 34. 지오투어리즘 운영 조직을 위한 역할 제안 .....	134

## 그림 목 차

그림 1. 지오투어리즘의 협의적 정의 .....	11
그림 2. 지오투어리즘의 광의적 정의 .....	11
그림 3. 국내 지오투어리스트 분류에 따른 지오투어리즘 .....	15
그림 4. 지오투어리즘과 생태·문화·체험관광과의 차이점 .....	20
그림 5. 지오파크(Geopark)의 목적 .....	24
그림 6. 세계지오파크 네트워크(GGN) 인증현황 .....	25
그림 7. 지속가능한 지오투어리즘 개발의 원칙 .....	31
그림 8. 지오사이트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분류 .....	34
그림 9. 지형·지질 보존을 위한 공교육의 틀 .....	36
그림 10. 토베이 지오사이트 안내지도 .....	38
그림 11. 영국 리비에라 지오파크 지구 조직도 .....	39
그림 12. 불칸아이펠 지오사이트 안내지도 .....	44
그림 13. 화산박물관의 화산폭발 재연 .....	46
그림 14. 산인해안 지오파크 안내지도 .....	47
그림 15. 산인해안 지오파크 협의회 .....	48
그림 16. 자연 생태관광지 분류 .....	53
그림 17. 문화관광해설사 교육내용 비율 .....	66
그림 18. 생태관광해설사 교육내용 비율 .....	69
그림 19. 숲해설사 교육내용 비율 .....	72
그림 20. 성산지역의 해안지형 변화 해설판 .....	76
그림 21. 제주도 성산일출봉 지오투어리즘 운영주체 분석 .....	77
그림 22. 강원도 DMZ 지오파크의 공간적 범위 .....	82
그림 23. 강원도 DMZ 지오투어리즘 운영주체 분석 .....	84
그림 24. 선돌 및 하안단구 관찰 전망대 .....	90

그림 25. 호야 지리 박물관 지오투어리즘 운영주체 분석 .....	91
그림 26. 전문 가이드에 의한 해설 .....	95
그림 27. 거문오름의 화산탄과 해설관 .....	96
그림 28. 제주도 거문오름 지오투어리즘 운영주체 분석 .....	97
그림 29. 지오투어리즘 운영 주체별 분류 .....	101
그림 30. 한국형 지오투어리즘 운영 조직 모델 구성 .....	104
그림 31. 홍도 유람선 코스 .....	116
그림 32. 신안군 홍도 지오투어리즘 운영 조직 모델 .....	121
그림 33. 거제도 해금강 지질도 .....	124
그림 34. 해금강 유람선 코스 .....	126
그림 35. 거제도 ‘바람의 언덕’ 해설관 .....	130
그림 36. 거제도 해금강 지오투어리즘 운영 조직 모델 .....	132

# I. 서론

## 1. 연구 배경 및 목적

지오투어리즘은 1995년 영국의 전문 잡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면서부터 일반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여, 현재는 유럽, 미국, 호주 등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지오투어리즘은 지금까지의 단순한 여가적 관광 형태와는 달리 학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관광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발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환경은 문화적(Cultural), 생물적(Biotic), 비생물적(Abiotic)인 요소를 포함한다. '문화적 요소'는 지역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 중 일반 대중에게 가장 잘 알려진 부분으로, 과거 역사나 현재의 생활양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그 결과 일반 관광객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으며, 해설 서비스 체계 역시 다른 환경적 요소에 비해 잘 조직되어 있다. '생물적 요소'는 대부분 동·식물에 관한 것으로 생태관광을 통해 일반 관광객들에게 잘 알려졌으며, 생태관광의 정착과 함께 일반 관광객들에게 제공되는 해설 서비스 체계도 어느 정도 틀을 갖추어 가고 있다. 그러나 '비생물적 요소'는 환경을 구성하는데 문화적, 생물적 요소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의 요소들에 비해 가장 늦게 주목을 받게 되어 비생물 자원을 이용한 관광이나 해설체계가 아직은 미비한 상태이다.<sup>1)</sup>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지형·지질 자원을 이용한 지오투어리즘은 일반 관광객들의 다양한 기호와 취미에 초점을 맞춘 소그룹 중심의 관광 패러다임과 맞물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한 지형·지질 자원의 규모와 상관없이 대부분 지역에서 보편적인 잠재 가능성을 가지며, 계절적 제약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

---

1) Newsome, D. and Dowling, R.K.,(eds), 2010, "The future of geotourism: where to form here?," *Geotourism: The Tourism of Geology and Landscape*, Goodfellow Publishers Ltd., Oxford, p. 242.

라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환경 보호 인식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소득 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가져와 지역 경제 활동을 촉진할 수 있어 개인, 지역사회, 국가 그리고 국제단체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sup>2)</sup>

국내의 경우 제주도가 2007년 세계 자연유산 지구로 선정, 2010년에는 세계 지오파크로 지정되면서 지형·지질 자원이 주목받기 시작하였고 2011년에는 자연공원법이 개정되어 국내 지오투어리즘과 지오파크에 관련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지리학이 일반 관광객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국내 지형·지질 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어 국내 지오투어리즘에 관한 학문적 접근 및 국내 정착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관광 유형인 지오투어리즘을 한국형 지오투어리즘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것이다.

첫째, 한국형 지오투어리즘 개념을 재정립하고, 생태·문화·체험관광과의 차이점을 분석하여 지오투어리즘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둘째,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오투어리즘 및 지오파크의 운영 사례 등을 분석하여 국내 지오투어리즘 및 지오파크 운영에 시사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셋째, 국내 지오투어리즘의 현황을 살펴보고 지형·지질 자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다.

넷째, 전문 가이드 해설이 제공되는 국내 지오투어리즘을 운영 주체에 따라 분석하고, 해외사례의 시사점을 반영하여 한국형 지오투어리즘 운영 조직 모델과 각 역할을 제안하는 것이다.

다섯째, 신안군 홍도와 거제도 해금강의 유람선 관광에 지오투어리즘 운영 조직 모델을 적용하여 바람직한 한국형 지오투어리즘 정착을 제안하는 것이다.

---

2) Kommo, I., et al., 2011, "The Langkawi Global Geopark: local community's perspectives on public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17(3): 261.

## 2. 연구 방법 및 지역

연구 목적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홈페이지 분석, 문헌연구, 현지답사를 하였다. 먼저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관광, 지오투어리즘에 관한 국내·외의 문헌을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개념을 정립하고 연구 동향을 파악함과 동시에 연구의 기본 틀을 확립했다. 지오투어리즘의 경우 국내 운영 사례로는 자료가 미진하여 영국, 폴란드, 독일, 일본의 지오파크 홈페이지와 문헌을 통해 지오파크 운영 및 지오투어리즘 활동 등을 검토하였다.

국내의 경우 2011년 자연공원법 개정을 통해 지오파크(Geopark)에 대한 명칭을 지질공원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지오파크에 대해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의를 따르면 지오파크는 한정된 지질 장소이나, 단순히 지질학적 중요성만 지녀서는 안 되며 그 외에도 생태학적, 고고학적, 역사적 또는 문화적으로도 가치를 지녀야 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지오파크는 개념 자체가 지질학 분야 뿐만 아니라 지리학, 문화·역사 등의 다(多)분야 접근이 가능하므로 포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공식적 용어이다. 일본지오파크위원회<sup>3)</sup>에서도 지오파크는 단지 지질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08년 이후 지오파크라는 공식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지질공원이라는 표현은 지질학 분야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용어로 우리나라의 지오파크를 지질공원이라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논문에서는 공식적 용어인 지오파크(Geopark)를 사용하기로 한다.

국내 지오투어리즘의 여건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연 생태관광지 146개를 관광지 유형에 따라 9개로 분류하여 지형·지질 자원을 이용한 관광지 비율과 지형·지질 관광지 안내 해설 서비스를 살펴보았다. 국립공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연관찰로의 전체 해설관 중 지형·지질 관련 해설관의 비율을 분석하였으며, 전문 가이드와 함께 운영되는 생태관광

---

3) <http://www.gsj.jp/jgc/indexJ.html>

프로그램 중 지형·지질관련 프로그램 구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국내 관광 관련 해설가 양성 교육과정은 각 지역의 문화관광과와 해설가 양성기관에서 제공해 준 자료를 수집 하여 각 교육과정을 분류하고 전체 교육과정 상에 운영되는 지형·지질 수업 비율을 분석하였다.

국내 지오투어리즘 운영을 파악하기 위해 현지답사를 시행하였다. 지오투어리즘 운영 주체 및 해설가와의 면접, 사진촬영, 전문 가이드 해설 녹취 등의 자료를 핵심 골격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운영 주체별로 각각 다르게 진행되는 지오투어리즘에 대하여 SWOT 분석을 실시하였다. SWOT 분석은 일반적으로 관광이벤트 분석이나 마케팅 분석의 도구로도 널리 사용되었다.<sup>4)</sup> SWOT 분석은 내부적 환경요인(강점, 약점)과 외부적 환경요인(기회, 위협)의 측면들을 동시에 판단할 수 있고 분석 자체가 간단명료하기 때문에 쉽게 장점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SWOT 분석의 이점을 이용해 국내사례의 분석과 해외 사례의 시사점을 반영하여 한국형 지오투어리즘 운영 조직 모델을 제안하고, 이러한 모델을 신안군 홍도와 거제도 해금강에 적용해 보았다.

**표 1. 답사 지역 분류**

구분	사이트	답사 내용 및 방법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세계유산센터, 성산 일출봉, 거문오름, 지오파크 담당자와 인터뷰
대학 및 연구소	강원도 철원	DMZ 지오파크의 철원일대 답사 참여
개인 전문가	강원도 영월	호야 지리 박물관과 지리트레킹 참여
한국형 지오투어리즘 모델 적용지역	신안군 홍도	신안군청 문화관광과, 유람선 투어
	거제도 해금강	거제도청 문화관광과, 유람선 투어

4) 한성호, 2009, “축제관광객의 유형세분화와 SWOT 분석을 이용한 운영전략-영국의 브라이튼 축제 사례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3(1): 3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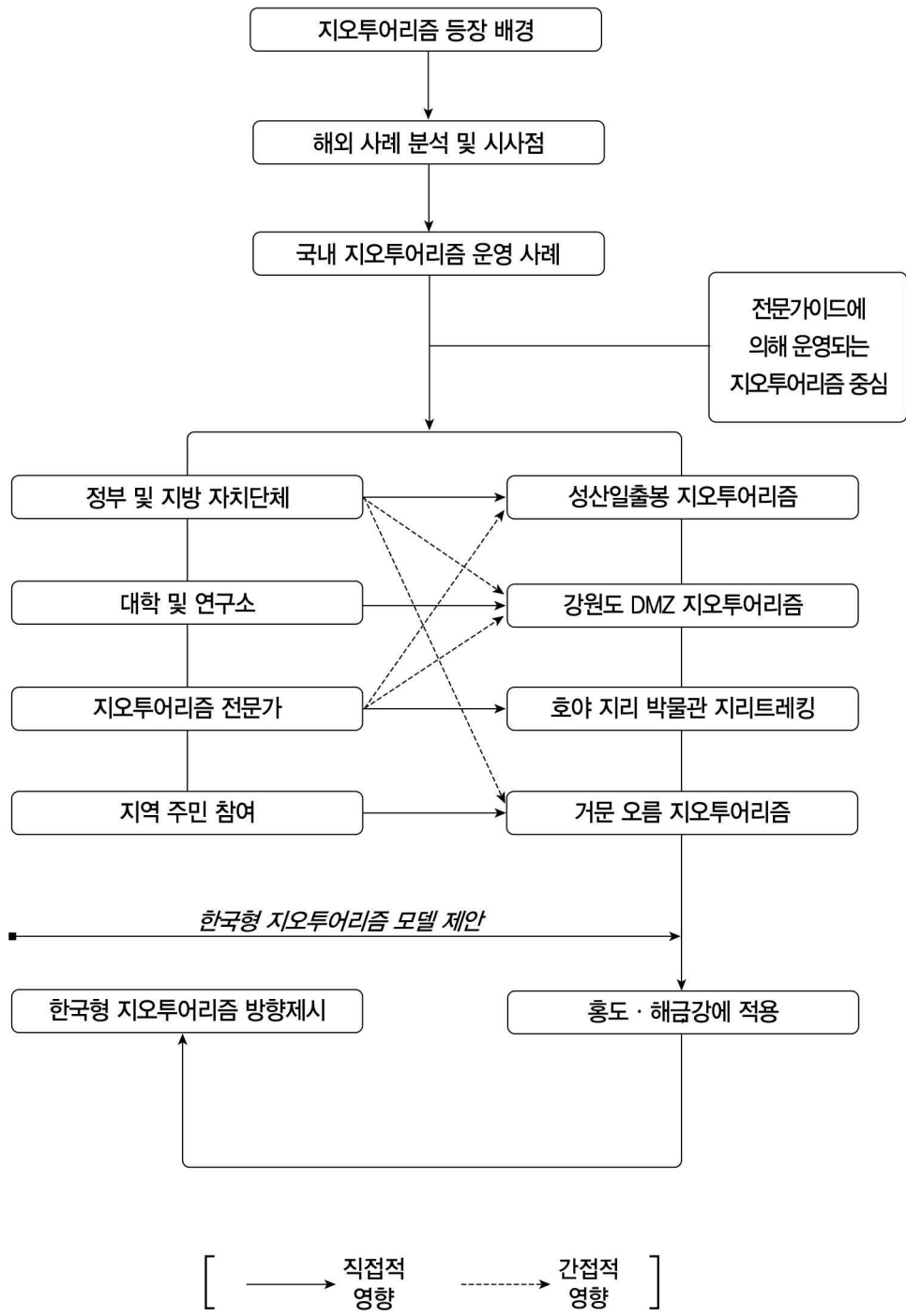


표 2. 논문의 구성

연구 지역은 크게 국내 지오투어리즘 운영 사례 지역과 한국형 지오투어리즘 적용 사례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오투어리즘은 관광객들이 해설관, 팸플릿, 전문 가이드, 방문 센터나 전망 포인트, 그리고 다양한 지오투어리즘 활동 등을 통해 지형·지질 관련 전문 지식과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그 중 전문 가이드 투어는 관광객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지형·지질 자원 지식을 전달할 수 있어 국내 지형·지질 자원에 대한 전문 가이드 해설이 제공되는 곳을 사례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국내 지형·지질 전문 가이드 해설이 제공되는 곳은 제주도의 성산일출봉, 만장굴, 거문오름과 강원도의 DMZ 지오파크, 호야 지리 박물관의 지리트레킹으로 그 수가 제한되어 있다.

제주도의 경우, 2007년 제주도의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고, 지정 유산으로는 한라산 천연보호 구역, 성산일출봉 응회구, 거문오름 용암동굴계가 있다. 또한 2009년 11월에 제주도 전체를 지오파크로 인증해 줄 것을 유네스코에 신청하였고, 주요 명소로 한라산, 만장굴, 성산일출봉, 천지연 폭포, 서귀포 패류 화석층, 중문 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산방산, 용머리 해안, 수월봉 화산쇄설층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2010년 7월 27일부터 3일 동안의 현장 실사 후 2010년 10월 4일 그리스 제 9차 유럽 지오파크 총회에서 세계지오파크로 선정되었다.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2007년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이어 세계지오파크 인증까지 획득함으로써 제주도는 세계최초 유네스코의 자연환경 분야 3관왕이 되었다. 이로써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보존 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자원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제주도는 2007년 세계자연유산지구 선정 이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자연 유산 해설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사전 예약을 통해 성산일출봉, 만장굴, 거문오름에서 자연 유산 해설이 제공되고 있다. 위의 지역 중 성산일출봉과 만장

굴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도형 지오투어리즘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성산일출봉과 만장굴의 지오투어리즘은 운영상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사진 촬영과 전문 가이드 해설 녹취 및 자료 수집이 용이한 성산일출봉을 대표 사례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거문오름은 자연유산해설가 교육을 받은 지역 주민이 직접 유산을 관리하고 가이드로 활동하고 있어 지역 주민 참여형 사례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강원도 DMZ 지오파크는 대학 중심의 운영 사례 지역으로, 2009년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5+2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과 '강원도 DMZ 인접지역의 커뮤니티 비즈니스형 지리공원 조성사업'을 계획한 후, 강원도 DMZ 지오파크사업단은 2010년 7월 지리공원 조성사업을 착수하였다. 강원도 DMZ 지오파크의 공간적 범위는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으로 전역이 접경지역에 속한다. 2010년 7월에 시작하여 2013년 3월까지 3년간 총사업비 30억 원을 지원받아 DMZ 인접지역을 커뮤니티 비즈니스형 지오파크로 조성하는 중이다. 이렇게 형성된 지오파크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 중의 하나가 지오투어리즘이며 각 지역의 지형·지질 자원을 이용하여 테마가 있는 지오투어리즘 프로그램을 상품화하여 운영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또한 지오투어리즘 해설가 양성을 직접 담당하고 있어 대학 주도형 사례지역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강원도 영월에 위치한 호야 지리 박물관은 퇴직한 지리 교사가 운영하고 있는 사설 박물관이다. 특히 지리트레킹은 지리 박물관 관장이 직접 해설을 제공하고 있어 개인 전문가 주도형 사례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한국형 지오투어리즘 적용 사례 지역인 신안군 홍도는 남해의 소금강이라 불리며 유람선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돌아보는 것이 관광의 백미(白眉)라 할 수 있다.<sup>5)</sup> 거제도 해금강은 빼어난 자연경관으로 바다의 금강산이라 불리며, 자연경관 및 생태적 보존가치가 높아 1971년 국가 지정 명승 2호 '거제해금강'으로 등록되었다.<sup>6)</sup> 두 지역 모두 매년 1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지역으로

---

5) <http://tour.shinan.go.kr>

6) <http://tour.geoje.go.kr/index.sko>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유람선 투어와 함께 선사해설을 제공하고 있는 곳이다.<sup>7)</sup> 보존 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자원을 관광 자원으로 이용하고 지역 주민에 의한 해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오투어리즘이라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곳이다. 따라서 이 두 지역이 한국형 지오투어리즘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표 3. 홍도 관광객 추이 현황 및 관광자원**

년도	홍도 관광객 수	관광자원
2005	137,332	홍도 10경 (남문바위, 실금리굴, 석화굴, 탐성, 만물상, 슬픈여, 수중자연부부탑, 독립문바위, 거북바위, 공작새바위), 해식애, 해식동굴, 시스텍, 시아치 등의 해안 경관
2006	147,833	
2007	162,910	
2008	200,210	
2009	174,341	
2010	157,817	

출처: 홍도관광 안내소(2011)

**표 4. 해금강 관광객 추이 현황 및 관광자원**

년도	해금강 관광객 수	관광자원
2005	954,230	해식애, 해식동굴, 시스텍, 시아치 등 해안 경관 (사자바위, 촛대바위, 미륵바위, 두꺼비바위, 해골바위, 신랑바위, 신부바위, 십자동굴)
2006	1,272,794	
2007	1,133,755	
2008	1,035,592	
2009	1,099,558	
2010	967,107	

출처: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tour.go.kr>)

7)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tour.go.kr>)

## II. 이론적 배경

지오투어리즘은 환경 교육, 자연과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 지역사회의 편익 제공 등을 중시하는 생태관광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지오투어리즘은 생태관광에서 비생물자원을 중심으로 발전된 개념으로 생태계의 관광 범위와 영역을 확대시켰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오투어리즘의 개념을 협의적 관점과 광의적 관점으로 분류하고, 지오투어리즘과 생태·문화·체험관광의 차별적인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지오투어리즘의 성장으로 볼 수 있는 지오파크의 개념과 선정 조건 등을 살펴보았다.

### 1. 지오투어리즘 이론적 배경

#### 1) 지오투어리즘 용어의 정의

1982년 WTO의 공동 성명에서 관광과 환경의 적절한 균형 유지를 강조하면서 관광과 환경, 문화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추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로 인해 지속가능한 관광을 실현하며 기존 관광에 대한 반성의 의미가 내포된 대안 관광(alternative tourism)이 등장하였다.

대안 관광의 여러 유형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이 생태관광이다. 생태적으로 민감한 자원의 보호와 지역 사회 개발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방문자의 질 높은 관광체험을 보장한다는 장점때문에 여러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큰 관심을 받으며 성장하였다.

생태관광이라는 용어는 1965년 Hetzer가 기존 관광에 대한 대안으로 생태관광(ecological tourism)을 언급하면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83년에 환경보전주의자이며, 정부 부처의 장관으로 활동하던 Ceballos-Lascurain은

생태관광이란 문화유산은 물론 경관, 야생 동·식물을 감상하고 연구하며 즐기기 위하여 비교적 훼손되지 않은 자연지역으로 떠나는 여행이라 정의하였다.<sup>8)</sup>

생태관광의 개념은 시대 변화에 따른 자원의 성격과 연구 목적, 내용에 따라 많은 학자와 단체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었으나 실제 국제간, 학자간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 중 가장 폭넓게 인용되는 것은 국제 생태관광학회(1991)의 ‘자연자원 보전이 곧 지역 주민의 편익이 될 수 있는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동시에 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면서,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자연 지역으로 떠나는 의미있는 여행’이라는 정의이다.<sup>9)</sup> 생태관광의 본질은 민감한 자연환경 속에서 관광활동을 하면서 생태계를 즐기고 감상하면서 동시에 자연을 단순히 이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환경 보전과 관광을 하나의 동반자 관계로 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생태관광은 생물자원 위주로 이루어지다가 1990년대 초반에 지형·지질 자원을 이용한 지오투어리즘이 등장하게 되었다.

지오투어리즘은 영국의 Thomas Hose(1995)가 ‘Environmental Interpretation’ 저널에서 처음으로 소개하였고, 그의 논문(1996)인 ‘Selling the story of Britain’s stone’ 통해 새로운 관광유형으로 관광과 지형·지질 자원의 결합인 지오투어리즘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sup>10)</sup>

지오투어리즘은 여러 관광유형에 비해 다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며, 용어 자체가 복잡하고 다차원적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개념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sup>11)</sup> 그로 인해 연구자의 다양한 기준에 따라 지오투어리즘이 접근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지오투어리즘에 대한 개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

8) Ceballos-Lascurain, H., 1983, “The Future of Eco-tourism,” Mexico Journal, 119, p. 7.

9) The International Ecotourism Society, 1991, “The Ecotourism Society; An Action Agenda,” In J. A. Kusler ed, Ecotourism and Resource Conservation, pp. 75-79.

10) Dowling, R.K., 2011, “Geotourism's Global Growth,” Geoheritage, 3(1): 1-2.

11) Hose, T.A.(eds), 2006, “Geotourism and interpretation,” *Geotourism*, Elsevier Ltd., Oxford, p. 248.

지오투어리즘은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자원에 초점을 맞춘 협의(狹義)의 관점과 문화·역사·지역 주민의 복지까지 고려한 광의(廣義)의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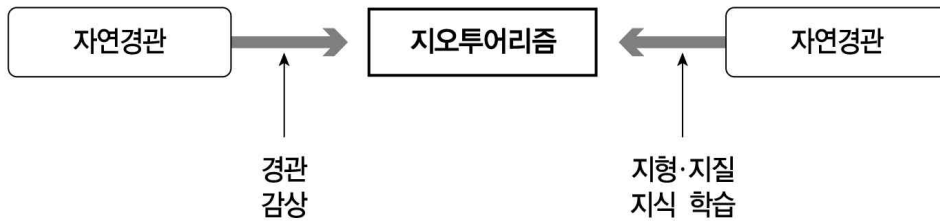


그림 1. 지오투어리즘의 협의적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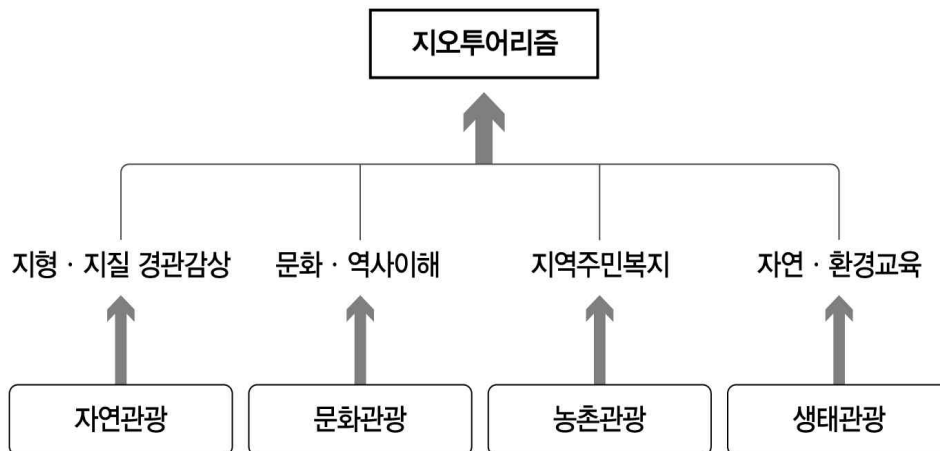


그림 2. 지오투어리즘의 광의적 정의

지형·지질 자원에 초점을 맞춘 지오투어리즘의 협의적 관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표5).

**표 5. 지오투어리즘의 협의적 관점**

학자 및 단체	지오투어리즘의 정의
Bastion(1994)	즐거움과 휴식 등 일반 관광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외에 배움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며 특히 관광객이 학생일 경우 지오투어리즘 대상지역은 현장 학습장으로 활용되어 교육의 질과 효과를 높일 수 있다.
Hose(1995)	지형학적으로 또는 지질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지역에 대해 이 분야에 지식이 없는 관광객들에게 그 지역의 지형과 지질의 학문적인 의미와 지구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과 자료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Slomka, T. & Swiderska, K. (2004)	지오사이트에서 심미적인 경험과 함께 지형·지질 형성과정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인지적 관광(cognitive tourism)과 체험관광(adventure tourism)의 한 분야다.
Joyce(2006)	지리학과 관광의 부분 집합이며 지리관광객들은 지형·지질을 배우기 위해 지오사이트를 방문하는 사람이다.
Pralong(2006)	교훈적이면서도 재미있게 자연경관을 탐험하고, 이를 통해 지구과학에 대한 지식을 제공해주는 관광산업이다. 또한 지오투어리즘은 암석의 시·공간적 차원이나 지표면의 형태 등을 합성하는 이미지 커뮤니케이션(image communication)의 한 종류인 지오마케팅(Geo-marketing)이다.
Dowling & Newsome(2011)	지형·지질 명소를 장려하고, 자연 감상과 학습을 통해 지형·지질 다양성 보전과 지구과학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이러한 효과는 지오투레일(geo-trails)과 전망포인트(view-point), 가이드 투어(guided-tours), 지오희동(geo-activities)과 지오사이트(geosite) 방문 센터(visitor-center)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지오투어리즘에 대한 광의적 관점은 지형·지질 자원과 지역의 문화, 역사, 지역 주민의 복지까지 포함시킨다(표6). 광의적 관점의 지오투어리즘은 문화와 환경, 유물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의 특성과 같은 지리적 특징들을 유지하거나, 혹은 증진시키기 위한 지속가능한 관광의 형태로 정의될 수 있다. 이 정의는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단지 지역의 자연·문화적인 관광자원들을 경관으로 활용하고 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왜(why)’ 이러한 것들이 이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어떠한(how)’ 과정을 거쳐 형성되어 왔는가에 대한 자연 및 인문에 바탕을 둔 종합적 지식을 제공하고 있어 다른 관광들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표 6. 지오투어리즘의 광의적 관점

학자 및 단체	지오투어리즘의 정의
National Geographic (1997)	어떤 장소의 환경, 문화, 미학, 유산, 그리고 지역 주민의 복지 등 지리학적 특성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관광이다. 더 나아가 어떤 장소의 문화,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독특한 가치를 포함한 자연 여행을 의미한다.
Stueve(2002)	지리 관광으로 탐방지의 지리적 특성에, 탐방지 거주자들의 환경, 문화, 심미적인 경관, 주민 복지 등을 지속시키는 한편,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Thompson (2007)	지리학적 성격을 강화하거나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 장소에 근거한 모든 형태의 관광을 포괄한다. 지오투어리즘은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이익을 위해 관광지의 진정성에 초점을 둔다.
Boley(2006)	지속가능한 관광의 범주 안에서 생태관광은 자연교육과 환경 관리 요소를, 공동체기반 관광은 주민 복지를 문화유산관광은 지역문화보호를, 심미적인 경관은 아름다움을 감상하여 이러한 관광객들은 지오투어리즘의 진정성을 경험하게 된다.
전영권(2011)	지오투어리즘은 단순히 지질학에만 초점을 두고 해석하는 ‘지질 관광’이라는 협의의 개념보다는 보다 더 광의의 개념인 ‘지리 관광’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지질 또는 지형자원 자체로 관광 대상을 국한하기보다는 문화, 역사적인 내용까지 포함하는 문화 지형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Karkut(2010)는 지오투어리즘의 광의적 정의는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넓은 범위의 관광을 포함해 지오투어리즘의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단점으로는 다른 유형의 관광을 포함하고 있어 지오투어리즘의 개념이 불명확해질 수 있다고 하였다.<sup>12)</sup> 따라서 다른 관광 활동을 포함한다는 전제하에 지오투어리즘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오투어리즘의 정의를 좀 더 세부적으로 정확히 밝히는 것은 지오투어리즘의 홍보 및 지형·지질 자원의 관리와 보호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지오투어리즘을 “관광객들에게 보존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자원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함께 이를 기반으로 형성된 생태학적, 역사적, 문화적 요소를 포함하여 방문지의 장소성과 지역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는 자연학습 관찰로, 해설판, 방문센터, 전망 포인트, 가이드 투어, 팸플릿 등이 있다. 이러한 정의는 한정된 지형·지질 장소의 학문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생태학적, 고고학적, 역사적 또는 문화적으로도 가치를 지녀야 한다고 정의된 지오파크 개념에 가장 부합된다.

본 논문에서 국내 지오투어리스트들을 “지형·지질 장소를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지오사이트를 방문하는 지오투어리스트를 지형·지질 자원에 대한 관심과 기본 지식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고 지오투어리즘을 3단계로 구분하였다(그림3).

1단계는 지형학·지질학 관련 전공자와 관련 전공자와 동등한 수준의 전문 지식을 갖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 2단계는 지형·지질 자원에 대한 지적 호기심과 관심은 있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 3단계는 지오사이트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거의 없고 단순 자연경관 감상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

---

12) Karkut, J.(eds), 2010, “Reconsidering the boundaries and applications of Geotourism - lessons learnt from tourism at Mount Vesuvius, in Poland,”,*opt. cit.*,pp. 96-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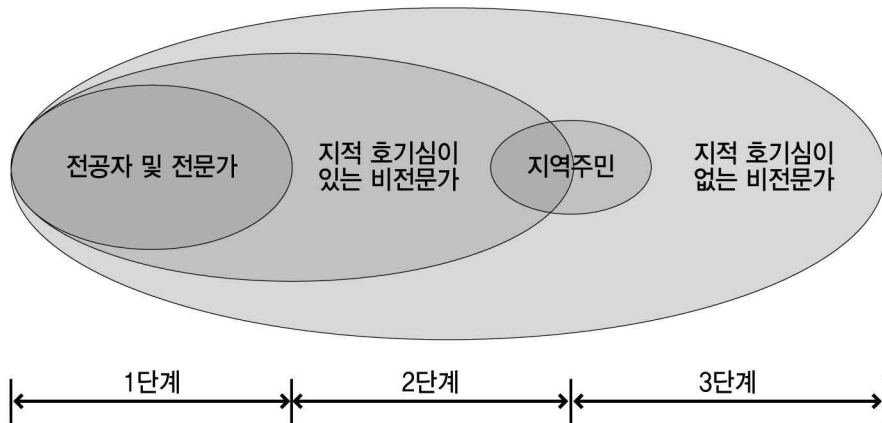


그림 3. 국내 지오투어리스트 분류에 따른 지오투어리즘

1단계는 전공자 및 전문가 대상 지오투어리즘으로 지형·지질 자원에 대한 해설 서비스가 과학적이고 전문적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지리학과나 지질학과의 답사가 해당된다. 2단계는 지형·지질 자원에 관심은 있으나 전문 지식이 없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관광객의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지형·지질 관련 지식의 기초 과정과 심화 과정에 적절한 조화와 방문지역의 문화·역사적 요소를 포함시켜 해설의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 마지막 3단계는 단순 자연경관 감상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객 대상이므로 지형·지질 자원을 생태계의 일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환경 보호 의식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 지역 주민은 지역 내 지형·지질 자원에 대한 기초 지식은 부족하지만 관심의 정도가 다양 하므로 2단계와 3단계 사이로 구분하였다. 지역 주민은 지역 내 지형·지질 자원의 관리 및 개발의 주체자이므로 지역 주민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 지오투어리즘은 관광객의 지적 수준 향상과 지형·지질 자원에 대한 관심으로 2단계 수준의 지오투어리즘까지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형·지질 자원에 호기심과 전문 지식이 없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3단계까지 지오투어리즘이 발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 2) 지오투어리즘의 개념

### (1) 지오투어리즘의 대상

지오투어리즘은 지형·지질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 자연적·인공적 환경과 지형·지질 자원의 규모와 상관없이 없기 때문에 지오투어리즘의 잠재적 가능성은 다른 관광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편이다. 지오투어리즘의 대상을 처음 제안한 Hose(1996)는 자연물은 대규모의 토목 공사나 오랫동안의 침식으로 인해 드러난 노두 또는 지층, 화석이나 퇴적 기원의 특정한 암석으로 건축에 사용된 석재까지도 포함하며, 광물, 침식·퇴적·침강·용기에 의해 만들어진 특이한 지형 등<sup>13)</sup>이라고 하였다.

Hose(2007)에 따르면 일차적인 지오사이트(primary geosite)는 자연적·인위적으로 드러나 있으며 지형·지질적으로 가치가 있는 장소로 채석장, 절벽, 광산, 동굴 등이 있고 엄격한 규제보다는 관리를 중시한다. 이차적인 지오사이트(secondary geosite)는 지형·지질학 발전에 중요성이 있는 장소로 주로 박물관, 관광 문화 유산 센터, 지형·지질학자들의 연구소 등이 속한다.<sup>14)</sup>

Dowling과 Newsome(2006)은 다음과 같이 지오투어리즘의 주요 내용 및 개념을<sup>15)</sup>을 정리하였다(표7).

---

13) Hose, T.A., 1996, "Geotourism, or can tourist become casual rock hounds?, Geology on your Door-step," The Geological Society, pp. 207-228.

14) Hose, T.A., 2007, "Geotourism in Almeria Province, Southeast Spain," Tourism 55(3): 259-276.

15) Dowling, R.K. and Newsome, D.(eds), 2006, "The scope and nature of geotourism," *opt. cit.*, pp. 4-6.

표 7. 지오투어리즘의 주요 내용 및 개념

구분	주요 작용	구체적인 예시
형태 (form)	경관 지형 퇴적물 암석 화석	화산지형, 빙하지형, 하천지형, 풍화지형, 카르스트지형, 퇴적지경, 해안지형, 암석노두, 화석, 광물
작용 (process)	지각변동 화성작용 풍화작용 침식작용 퇴적작용	산맥, 화산활동, 용암류, 풍화층, 산사태, 대륙빙하, 빙하, 폭포, 해안절벽, 하천계곡, 삼각주, 갯벌
관광 (tourism)	매력 숙박시설 투어 활동 해설 경영	장소의 매력성 :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 호주의 에어즈락 숙박 시설 : 지오산장, 지오리조트 투어 : 비행, 차량 가이드 투어, 셀프 가이드 활동 : 지역 방문센터, 가상 투어 해설 : 방문센터, 가이드 트레일, 팸플릿 경영 : 지오사이트 보존, 관광 계획, 관광객 관리

출처: R.K. Dowling and D. Newsome , 2006, "The scope and nature of geotourism," In  
Dowling, R.K. and Newsome, D.(eds), Geotourism, Elsevier Ltd., Oxford, p.5  
연구자가 재구성함.

형태(form)는 경관의 특징과 구성 물질을 의미하며 단일 지형에서만 나타날 수도 있고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작용(process)의 개념은 지구와 관련된 활동으로 지형학적 그리고 지질학적 특성을 의미한다. 관광(tourism)은 투 어리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첫째는 장소의 매력(attractions)성이 있어야 한다. 둘째는 편리한 숙박시설이 필요하며, 셋째는 관광객들에게 친절하고 정 확한 안내가 있어야 한다. 넷째는 탐방 안내소와 전문 가이드를 통한 해설 제공, 다섯째는 지형·지질 자원의 보존과 여행을 통한 관광객 관리가 있어야 한다.

지오사이트는 일반 대중들에게 환경 문제를 교육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

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지구 진화의 증거인 바위, 광물, 화석, 토양, 지형과 풍경 등을 자원으로 이용함과 동시에 해당 장소를 보전할 수 있다.

## (2) 지오투어리즘의 조건

지오투어리즘의 필요 조건을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오투어리즘은 보존 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자원이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자연적 경관부터 인공적인 경관에 이르기까지의 전 영역에 걸쳐 도시환경, 도시 주변 지역, 채석장과 광산, 농경지, 국립공원, 자연보호구역 등이 포함된다.

둘째, 지형·지질 자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관광은 지형·지질 자원의 관리 및 보전 계획을 세우고, 지오사이트 개발, 관광객 관리 등을 통해 지역 내 경제 성장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해설과 안내로 지형·지질 자원의 이해 증진을 통해 환경 보전에 관한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 지형·지질 교육은 해설판, 가이드 투어, 방문객 센터 등에서 이루어지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전문 지식을 가진 가이드를 양성하는 것이며, 이는 교육의 기회와 투자에 달려 있다. Robinson과 Dowling(2009)는 이미 지형학에 관하여 알고 있는 관광객들은 호기심을 충족하고 지적인 자극과 기억에 남을 만한 경험을 통해 그들의 지식을 높이고 싶어 한다<sup>16)</sup>고 하였다. 이러한 배움의 측면은 지형학에 대하여 선행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에 관심을 두고 있는 많은 전문가 집단과 개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넷째, 지역 경제에 이익이 되어야 한다. 지역공동체의 개입이 공동체와 환경

---

16) Dowling, R.K., 2009, "Geotourism's contribution to Local and Regional Development," In: Neto de Carvalho, C. e Rodrigues, J. C.(eds), *Geoturismo & Desenvolvimento Local, Idanha-a-Nova*, pp. 15-37.

에 모두 이익을 주어야 할 뿐 아니라 관광객에게 제공되는 경험의 질도 향상되어야 한다. Dowling(2009)은 지역공동체는 지오투어리즘의 운영과 지식, 서비스, 시설, 상품의 제공에 참여하며, 자원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지역 내 수입과 사회 문화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sup>17)</sup>고 하였다.

다섯째, 관광객에게 지적 호기심에 대한 만족감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전문가 가이드 해설을 통해 방문한 지형·지질에 관한 지적 호기심이 만족되었다면 관광객들의 방문지 만족도는 높아질 것이다.

지오투어리즘은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지역의 지형·지질학적 경관과 이러한 자연경관이 만들어낸 삶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역 공동체는 지역 경관, 지역 주민, 관광객의 상호작용을 통해 진정성있는 관광을 만들기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 (3) 지오투어리즘과 생태관광 · 문화관광 · 체험관광의 차이점

지오투어리즘은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자원뿐만 아니라 생태관광, 문화관광, 체험관광과 관련을 맺고 있다. (그림4)는 생태관광, 문화관광, 체험관광과 지오투어리즘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선이 굵을수록 관련성이 높은 것을 뜻한다. 지오투어리즘은 생태관광과 특별히 강한 관련성을 지니고, 문화관광과는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적은 편이며 체험관광과의 관계가 가장 미약하다.

---

17) Dowling, R.K., 2009, "Geotourism's contribution to Local and Regional Development," In: Neto de Carvalho, C. e Rodrigues, J. C.(eds), *Geoturismo & Desenvolvimento Local, Idanha-a-Nova*, pp. 15-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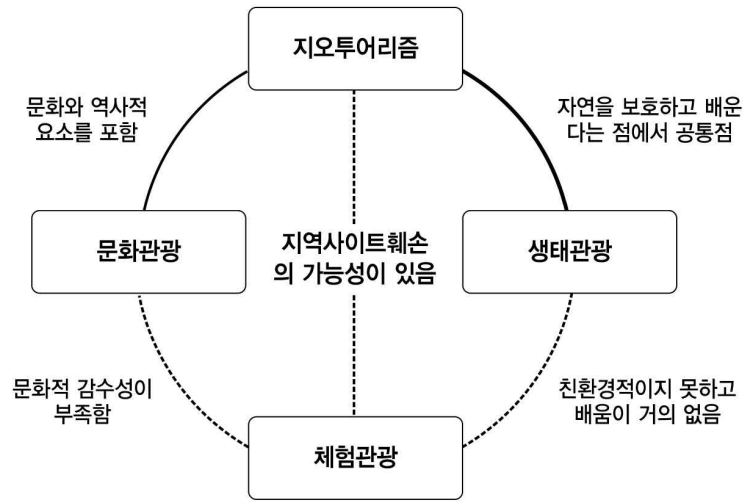


그림 4. 지오투어리즘과 생태·문화·체험관광과의 차이점

출처: Dowling, R.K. 2011, "Geotourism is Global Growth," *Geoheritage*, 3(1), p.3.의 내용을 연구자가 재구성한 것임.

지오투어리즘이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배운다는 점에서 생태관광과 상당 부분 비슷한 관광으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지오투어리즘은 생태관광의 인식 범위를 확대했으며 뚜렷이 구별되는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생태관광의 대상은 대부분의 정의에서 자연 그대로 보전된 지역에 한정되어 있지만 지오투어리즘은 자연환경 뿐만 아니라 도시적 환경까지도 포함한다. 또한 화석이 있는 지역의 바위나 돌과 같이 암석을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광산이나 채석장도 지오투어리즘 범주에 포함된다. Tourtellot's(2006)는 지오투어리즘은 지리적 특성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다른 지속가능한 개발, 지속가능한 관광 그리고 생태관광과 차별화 된다<sup>18)</sup>고 하였다. 또한 지오투어리즘은 지리적 특성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두면서 다양한 여행 경험을 포함한다.

둘째, 생태관광은 주로 자연경관의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지오투어리즘은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경관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시도하고 있다.<sup>19)</sup>

18) Tourtellot's, J., 2006, "World heritage destination rated,"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pp. 113-124.

19) Boley, B.B., *op. cit.*, pp. 19-22.

Boley(2006)는 지오투어리즘은 관광객에게 사실적이고 진정성 있는 경험을 제공하며 지역 주민에게 지역 방문지의 보존과 지역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지만 생태관광은 관광객을 ‘자연보호 지역을 방문하는’ 그리고 ‘상대적으로 방해 받지 않은 지역에서 경험을 추구하는 관광’이라고 정의한다.<sup>20)</sup>

셋째, 지오투어리즘은 환경, 문화, 심미성, 유산 그리고 주민 복지까지 통합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반면, 생태관광은 자연, 교육, 지속가능성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지오투어리즘은 농촌관광, 문화관광, 생태관광 같은 지속가능한 관광을 통합하는 총체적 형태로서 자연을 경험하는 생태관광, 독특한 문화유산을 경험하는 문화관광, 지역 주민의 복지를 체험하는 농촌관광에서 영향을 받았다.

넷째, 지오투어리즘과 생태관광은 자연 지역을 배우고 감상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생태관광은 생물자원에 집중하는 반면 지오투어리즘은 비생물자원에 초점이 맞춰진 특성화된 관광이다. 따라서 생물자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생태관광은 계절적인 제약이 따르지만 지오투어리즘은 비생물자원을 중심으로 하므로 계절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생태관광은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뉘어 지역 소득 및 고용창출의 지속성이 감소되지만 지오투어리즘은 계절적 제약이 없어 지역 내 지속적인 소득창출이 가능하다.

다섯째, 지오투어리즘은 지역의 관광자원에 대한 역사적인 구조, 전통적인 문화, 경관, 음식과 예술 그리고 식생들과 같은 장소성을 나타내 준다는 점과 지역의 독특한 지역성에 공헌하고 있는 특징들을 통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태관광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sup>21)</sup>

여섯째, 생태관광은 야생 동·식물과 같은 생물자원을 감상하거나 산책, 하이킹 같은 소극적인 활동을 하지만 지오투어리즘은 지형·지질 자원에 초점을 맞추고 체험관광과 같은 적극적인 활동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

---

20) Juric, B., Cornwell, T.B., & Mather, D., 2002, "Exploring the usefulness of an ecotourism interest scale," *Journal of Travel Research*, 40(3): 259-269.

21) 한국관광학회, 2009, *관광학 총론*, 백신출판사, pp. 176-177.

문화관광이 지오투어리즘과 두 번째로 관련성이 높은 이유는 지역의 문화와 역사가 지형·지질 자원을 기반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문지의 지역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와 역사가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오투어리즘과 가장 미약한 관계를 갖는 체험관광은 문화관광보다 문화적 감수성이 떨어지며, 생태관광과 달리 친환경적이지 못하고, 자연환경을 배우는 기회가 거의 없다. 그러나 지형·지질 경관이 등산, 암벽등반, 협곡 트레킹과 같은 스포츠 활동의 장소가 된다는 점에서 다소 유사함을 보인다. 단, 지오사이트를 훼손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

### 3) 지오파크(Geopark)

#### (1) 지오파크 등장 배경

세계지오파크가 설립되기 전 유럽에서는 몇 개의 지오투어리즘이 운영되어 왔고, 이는 지형·지질 자원을 이용한 지질 유산의 보전, 교육, 지역 주민의 소득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지오투어리즘의 발전은 유럽의 지오파크 설립의 계기가 되었으며 지오파크의 등장은 지오투어리즘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특히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21세기를 향한 환경과 개발을 위한 행동강령인 ‘아젠다 21’이 채택된 이후로, 환경에 대한 새로운 관리·보호 방식이 우선적인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 활동의 일환으로, 유네스코(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에서는 지형·지질학적 유산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보전을 증진하기 위해 두 가지의 독립적인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세계유산 협약이고, 다른 하나는 기구 내의 지구과학부이다.

세계유산 협약의 목적은 뛰어난 세계적 가치를 지닌 자연·문화적 유적을 인지하는 것으로 전 세계의 지형·지질학적 유적지들을 매우 한정적인 수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형·지질학적으로 학술적 가치가 있으며, 지역적인 면과

국가적인 면에서도 충분한 가치를 지녔지만 “세계적으로 뛰어난” 세계유산의 엄격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엄청난 수의 유적지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오파크가 등장하게 되었다. 유네스코 지구과학부에서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쳐 유네스코의 지오파크 프로그램을 유네스코 이사회에 제출하였고, 1999년부터 이 프로그램에 대해 이사회에서 세 번의 논의를 거친 끝에 2001년 6월에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

유네스코에서 인증하는 세계지오파크는 세계지오파크 네트워크(Global Geoparks Networks)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며, 세계유산(World Heritage)처럼 등재되거나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과 같이 등록되는 것이 아니다.

세계지오파크는 인증 후 4년마다 활동을 평가해 취지와 맞지 않을 경우 개선을 권고하고 그 후에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오파크 네트워크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 (2) 지오파크의 정의 및 목적

지오파크는 한정된 지질 장소나, 단순히 지형·지질학적 중요성만 지녀서는 안 되고 그 외에도 생태학적, 고고학적, 역사적 또는 문화적으로도 가치를 지녀야 한다. 그러므로 자연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가치를 지니는 유산은 서로 밀접하게 얽여 있어 그 중 어느 한 가치만 따로 떼어 낼 수 없다.<sup>22)</sup> 지오파크는 지구 유산의 증진, 지역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과학적 연구에서부터 환경 교육까지를 지향하며, 지오파크는 핵심적인 보호대상 이외에는 행위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지오파크의 목적은 첫째는 후손에게 물려 줄 자연유산의 보존(Conservation), 둘째는 일반인 대상 지형·지질 교육(Education), 셋째는 관광(Tourism)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도모이다(그림5).

---

22) UNESCO, 2006, Guideline and Criteria for National Geoparks seeking UNESCO's assistance to join the Global Geoparks Network, Paris, January, Internal document,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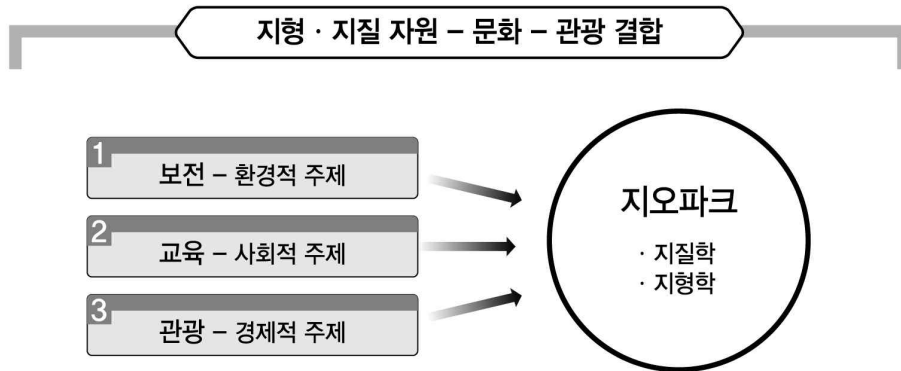


그림 5. 지오파크(Geopark)의 목적

2000년 유럽지오파크 네트워크(Europe Geopark Network, EGN)가 설립되고, 2001년 유네스코 집행위원회에서 지오파크 활동에 대한 지원이 결정된 것을 계기로, 2004년에 세계지오파크 네트워크(Global Geopark Network, GGN)가 설립되었다. 세계지오파크는 비교적 최근의 개념이며 아직은 초창기라 할 수 있다. 지금은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단계이며 EGN, GGN에 이어 아시아 태평양지역 지오파크 네트워크(APGN)가 결성되어 있다.

현재 25개국 77개소의 지오파크가 GGN<sup>23)</sup>에 가맹되어 있다. 세계의 지오파크 분포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GGN에 가맹되어 있는 지오파크는 국가별로는 중국이 24개소로 가장 많고 영국·이탈리아 7개소, 독일·스페인 5개소, 그리스·일본 4개소 순이다. 아시아권에서는 중국, 일본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란에 각각 1개소씩 있다(그림6).

23) GGN 가입 회원국 부록 참조.



그림 6. 세계지오파크 네트워크(GGN) 인증현황(2011.10)

### (3) 지오파크 선정 조건

유럽 지오파크 네트워크(EGN)와 유네스코의 권고사항에 따르면, 지오파크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sup>24)</sup>

첫째, 크기와 장소에 관한 규정으로, 분명한 경계가 있어야 한다. 특히 지오파크는 단순히 지형·지질학적 중요성만 지녀서는 안 되고 그 외에도 생태학적, 고고학적, 역사적 또는 문화적으로도 가치를 지닌 곳이어야 한다.

둘째, 지오파크는 상향식 과정이다. 지오파크는 지역의 자연 경관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지역 주민의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지역 사회가 개발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셋째, 지오파크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을 가져와야 한다. 지오파크의 주된 목적 중 하나는 경제 활동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것은 생활여건과 농촌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자기 고장에 대한 자부심을 강화시켜 지형·지질 유산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준다.

넷째, 관광객들에게 해설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지오파크는 박물관과 교

24) UNESCO, 2006, *loc. cit.*

육센터, 탐방로, 가이드 투어, 현대적 의사소통 매체 등을 통해 지형·지질 자원에 대한 지식과 환경에 대한 개념을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을 지원해야 한다. 그러므로 지오파크는 학술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대학과 지오투어리즘 전문가의 유기적 협력을 지원하고, 지역 사회의 폭넓은 참여와 역량 형성을 위해서 지역 주민 교육이 필요하다.

다섯째, 지오파크 관련 당국은 지역의 전통과 법에 따라 지형·지질 유산을 보호해야 한다. 지오파크는 특별히 새로운 종류의 보호구역 또는 경관은 아니지만, 국립공원이나 자연공원처럼 전체적으로 보호되고 규제되는 경우와는 상당히 다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지형·지질 자원 보호에 관한 권한을 지오파크가 위치한 지역에 부여해 주어야 한다.

여섯째, 지오파크를 통해 사람들이 지형·지질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도록 하고 해당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회원국들의 공통된 목표이다. 그러므로 세계 네트워크는 지형·지질 유산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이 서로 협력하고 교류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여 다른 지오파크의 전문성과 경험 등을 교류하도록 한다.

현재까지는 지형·지질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나 경관을 특화하거나 보호, 증진할 수 있는 국제적인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상태다. 이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전 세계의 수많은 지오파크들은 광물, 화석 등 많은 부분과 연관된 다양한 지형·지질학적 현상들을 이용해 실질적인 경제개발 측면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지형·지질 유산의 적절한 운영을 통해 새로운 경제활동과 고용창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 동향

### 1) 국내 연구

국내 지오투어리즘과 지오파크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연구 활동이 비교적 활성화되지 않았고, 국내 표준화된 이론적 체계가 정립되지 않아 지리학, 지질학, 관광학 등을 비롯한 제 학문 간에도 각자의 논리적 전개와 관점에 따라 비교적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지리학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살펴보면, 2004년 지오투어리즘의 개념이 소개되면서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영권·손명원(2004)은 대구 비슬산지 내 지형자원의 활용 방안에서 직접적으로 지오투어리즘의 개념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비슬산 암괴류를 비롯하여 주 등산로를 따라 다양한 화강암 지형을 파악하고 각 지형의 명칭, 형성 원인, 특성 등에 대한 학습 자료를 제시하였으며 관광객들의 유형에 따라 학습탐방로를 개발하였다. 전영권(2005)은 지오투어리즘 연구에서 대구 앞산을 대상으로 지오투어리즘의 관점에서 지형관찰 학습장 및 탐방로를 조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박미영(2007)은 지오투어리즘의 개념을 북한산 국립공원 세 곳의 자연관찰로에 적용하여 국립공원을 여가의 장소에서 학습의 장소로 바꾸는 시도를 하였다. 한승희(2007)는 지오투어리즘의 개념을 대구 지역 팔공산 탐방로에 적용하여 지형 학습 관찰학습장 및 탐방로를 조성하는 연구를 하였다. 정필모(2009)는 주왕산 국립공원의 자연관찰로 개발 연구에서 해설판을 통한 교육적·홍보적 측면을 강화하고 지형·지질 경관자원을 관광객들에게 보다 쉽게 이해시키도록 자연관찰로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안송이(2009)는 설악산 국립공원의 지형·지질 자원의 다양한 경관을 조사, 그 특성을 분석하고 지형관찰 학습 길을 개발하고, 그에 맞는 해설판을 설치하여 해설판의 교육적 효과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전영권(2010)은 ‘한국의 지오투어리즘’에서 우리나라 지오투어리즘의

현황 파악과 인프라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앞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지오투어리즘 발전 가능성과 전망에 대해 논의하였다. 박미영(2011)은 ‘홍도 지형 자원을 활용한 지오투어리즘’ 연구에서 육상 공원에 국한된 지오투어리즘 연구를 해상 국립공원에 확대·적용하였으며, 실제 유람선 선상해설을 분석하여, 전설에 치우친 관광 가이드의 설명을 대체할 수 있는 지오투어리즘적 선상해설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김창환(2010)은 ‘지오파크와 지리학의 역할’에서 지오파크의 개념을 소개하고 지오파크에서 지리학의 역할과 지리학 분야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지형학 분야에서는 국립공원 중심의 자연관찰 학습장 및 해설관 개선에 관한 연구가 전개되었으며 최근에는 해상 국립공원까지 지오투어리즘의 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지질학 분야에서의 지오파크에 관한 연구로는 이수재 등(2003)에 의한 ‘보전 가치가 있는 지형·지질의 대상 설정에 관한 연구’가 선구적이다. 이 연구는 보전 가치가 높은 지형·지질의 도입 및 가치 평가 방법, 국내·외 지형·지질 유산 운영 사례 및 지질 유산 관리 방안을 위한 보존대상의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지만, 구체적인 지오투어리즘이나 지오파크에 관해 언급하진 않았다. 이어 김유봉 외(2005)의 ‘UNESCO 지정 World Geopark 선정을 위한 National Geopark 개발 연구’에서는 20개 국립공원의 지질학적, 생물학적, 문화적 측면의 조사 및 지오파크의 등급 설정, 지오파크 추진 최적지 선정 등을 연구하였다. 국내 지오파크 도입의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지오파크 가입 및 절차를 소개하고 있다. 허철호(2005)는 오대산 국립공원의 지질 및 지형경관 자원 조사를 통한 관광지질학적 가치 증진 방안을 연구하였고, 태안해안 국립공원을 비롯한 여러 개의 국립공원 지역의 지질·지형자원을 조사하고 그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다. 지질학 분야에서는 지형·지질 자원의 조사 및 보존에 관한 연구가 집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오파크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제주도(2008)는 화산섬인 제주도를 세계지오파크로 등재하기 위한 작업으로 ‘유네스

코 세계지오파크 기초학술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어 울릉군(2008)은 울릉도-독도의 세계유산 및 세계지오파크 등록을 위한 기초 학술 조사 및 타당성을 조사하였다. 제주도청(2009)에서도 제주도의 세계지오파크 추진에 필요한 신청서 작성에 관한 연구 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실제 지오투어리즘에 관한 연구로 발전되지는 못하였다.

관광학 분야에서는 주로 국내 지오투어리즘 시장성을 분석하였다. 정강환(2000)의 지질 관광대상지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시장 분석과 관광 프로그램 및 이벤트 개발에 관한 연구는 지오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하여 지형·지질 대상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인구 통계적 특성과 지오투어리즘의 대상지 내의 행동 특성을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자보다 여자의 참여율이 높았으며, 주로 가족 단위로 참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형·지질에 관한 기초 지식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김성섭(2008)의 '한국관광 상품에 대한 지불의사가격 추정을 통해 가치 측정 및 관광객 특성 분석'에 따르면 강원도 삼척시에 위치한 대금굴의 입장료를 통하여 지오투어리스트의 유형을 일상에서의 탈출(escape), 지식(knowledge), 새로움(newly), 사회화(socialization)의 4가지로 나누었다. 자연감상에 흥미를 느껴 동굴을 방문한 특별 단체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동굴 관광객들은 일상의 탈출 혹은 사회화가 그들이 동굴을 관광하는 주된 이유다. 또한 특이하게도 젊은 사람들이 기성세대보다 동굴 관광에 참여 비율이 더 높았다.

관광학 분야의 연구는 지리학이나 지질학 분야보다 논문 수가 많지 않으며, 지형·지질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객의 특성을 성별, 연령별, 방문 동기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지오투어리즘의 핵심 요소인 지오투어리스트의 개념을 정의하지 못하였고,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지형·지질 관련 전문지식 전달에 대한 본질적인 연구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국내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지오투어리즘의 목적은 관광객들에게 학술 가치가 뛰어난 지형·지질 관련 전문 지식과 이러한 자원을 기반으로 형성된 지역

의 문화와 역사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질 높은 지역성과 환경보전 의식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형·지질 조사에 관한 연구가 집중되어 있는 지질학 보다는 전통적으로 인간과 자연과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며,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형성된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공간의 구조와 분포 관점에서 다루어 왔던 지리학이 지오투어리즘 정의에 가장 부합되는 학문영역이라 할 수 있다.

## 2) 해외 연구

해외의 경우도 지오투어리즘 연구 역사가 길지 않으나 국내보다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해외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지오투어리즘의 개념 정립과 지속가능한 관광에 관한 연구, 지오투어리즘을 위한 자원 발굴과 보존·관리에 관한 연구, 지오투어리즘의 효과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관한 연구, 지오투어리스트를 정의하고 경향성을 파악하는 연구, 지오투어리즘의 교육 활동에 관한 연구 등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지오투어리즘의 개념 정립과 지속가능한 관광에 관한 연구다.

Hose(1995)가 출판물의 형태로 지오투어리즘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정의<sup>25)</sup> 하였으며 1996년에는 지오투어리즘의 대상을 제시하였다.<sup>26)</sup> 지오투어리즘의 역사를 보면 지오투어리즘 관련 활동은 17세기 후반부터 시작되어 자연과학과 예술 활동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지오투어리즘에 이론적 해석과 지형·지질 보존에 대한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후반부터이다. 성공적인 지오투어리즘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형·지질 조사 및 보존과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오투어리즘은 지형·지질 자원 해설에 따라 관광의 질이 결정되므로 그 지역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기술 등에 대해 지형·지질 전문가들의 역할이 검토되어야 한다.<sup>27)</sup>

---

25) Hose, T.A., 1995, *op. cit.*, pp. 16-17.

26) Hose, T.A., 1996, *op. cit.*, pp. 207-228.

Dowling(2006)은 지오투어리즘의 다양한 개념들을 재정의하고, 지오투어리즘의 대상을 재확립하였다. 더불어 지오투어리즘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그림 7).<sup>28)</sup>



그림 7. 지속가능한 지오투어리즘 개발의 원칙

출처: Dowling, R.K., 2009, "Geotourism's contribution to Local and Regional Development," In: Neto de Carvalho, C. e Rodrigues, J. C.(eds), Geoturismo & Desenvolvimento Local, Idanha-a-Nova, pp.15-37 의 내용을 연구자가 재구성 함.

둘째, 지오투어리즘을 위한 자원 발굴과 보존·관리에 관한 연구이다.

호주의 Joyce(2010)는 정부의 지원으로 호주의 지형·지질학적 유산을 정리하고 목록화하여 미래의 지오파크와 지오투어리즘을 위한 국가적인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였다.<sup>29)</sup> Creaser(2010)는 호주의 지형·지질학적 유산이 국제적인 수준으로 어떻게 인식될 수 있었는지 연구하였으며, 지형·지질유산 보호 및 관리에 대한 개인, 단체, 정부 차원의 역할을 논의하였다.<sup>30)</sup>

브라질의 Moreira와 Bigarella(2010)는 지오파크와 지오투어리즘의 개념을 설명하고, 2006년에 브라질의 지형·지질적 다양성을 증진하고, 지오투어리즘의

27) Hose, T.A., 2008, *op. cit.*, 300(1): 37-60.

28) Dowling, R.K., 2009, *op. cit.*, pp. 15-37.

29) Joyce, E.B.(eds), 2010, "Australia's geological heritage: a national inventory for future geoparks and geotourism," *opt. cit.*, pp. 27-42.

30) Creaser, P.(eds), 2010, "Australia's Geological Heritage: raising awareness at national level," *opt. cit.*, pp. 18-30.

잠재 가능성을 높이려는 방안으로 브라질 지오파크 프로젝트(Geoparks of Brazil Project)를 추진하였다. 이는 지형·지질 자원들을 인식(identify), 분류(classify), 묘사(describe), 목록화(catalogue)하여, 지형·지질학적 유산에 대한 정보를 일반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의 Walden와 Hill(2010)은 사람과 장소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는 151개의 길과 경관을 소개하는 America's Scenic Byways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프로그램은 1991년에 설립되어 관광객들에게 질적으로 높은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했으며,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통해 교육적으로도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sup>31)</sup>

셋째, 지오투어리즘의 효과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관한 연구이다.

Farsani 외(2011)는 농촌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의 새로운 전략으로 지오파크의 일자리 창출이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 세계 지오파크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결과를 이용하였다.<sup>32)</sup> Martin(2010)은 세계 최고의 지오투어리즘 명소인 미국의 그랜드 캐년의 관광사업 발전을 연구하였다. 이 공원의 절경을 감상하기 위해 매년 4백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다녀가는데 이 관광 사업은 그 지역에 8억 달러 이상, 주변 지역에 2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다. Martin는 경영자로서의 넓은 견해를 가지고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협력(Cooperation), 기회(Opportunities), 자원(Resources) 그리고 교육(Education)을 성공 요인으로 보았으며, 이 접근 방법을 다른 지오파크나 국립 공원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33)</sup>

Maher(2010)은 The Copper Coast 지오파크와 County Waterford의 실례 연구를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의 사례로 아일랜드의 지형·지질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공원 안에 'Time path'라 불리는 길을 만들고 관광객들에게 그 길을

---

31) Walden, J. et al.(eds), 2010, "USA scenic byways—connecting people to places," *opt. cit.*, p. 212.

32) Farsani, N T., Coelho, C. and Costa, C., 2011, "Geotourism and Geoparks as Novel Strategies for Socio-economic Development in Rural Areas,"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RESEARCH Int. J. Tourism Res.* 13, pp. 68-81.

33) Martin, S.(eds), 2010, "The Grand Canyon, USA: the experience of managing a world-class geotourism destination," *Global Geotourism Perspectives*, Oxford: Goodfellow Publishers, pp. 67-178.

걷게 하며 지형·지질학적 시간의 의미를 테마로 만들었다. 관광객들이 걷는 길에 28개 시리즈의 암석을 사용해 그 암석과 관련한 지구 역사와 진화에 대한 해설판을 설치하였다. Maher는 지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점을 둔 지오투어리즘이 최근에 아일랜드 경제에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지오투어리즘 마케팅을 통해 그 나라의 생산품을 홍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언급하였다.<sup>34)</sup>

넷째, 지오투어리스트를 정의하고 경향성을 파악하는 연구이다.

지오투어리스트 연구는 지속가능한 지오투어리즘 발전에 중요한 기초가 된다. Hose(2000)는 지오투어리스트를 개인적 교육과 지식 향상을 목적으로 지형·지질장소를 찾는 전문 지오투어리스트(dedicated geotourists)와 즐거움과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자 오는 평범한 지오투어리스트(casual geotourists)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그룹을 조사한 결과 개인 또는 가족이 자연스럽게 교육적 효과를 달성하는 것을 발견하였다.<sup>35)</sup> Boley와 Nickerson(2010)는 지오투어리스트들의 경향성을 측정하는(GTS) 연구를 통해 지오투어리스트들을 대상으로 지오투어리즘의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환경 태도, 문화유산의 매력성, 경관의 심미성, 지역 주민의 복지 등을 8개의 척도로 구분하여 35개의 질문을 구성하였다. 지오투어리스트의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구성된 35개 질문지는 타당성을 검증받았으며 이 연구를 바탕으로 지오투어리스트의 특성을 파악하고 지오투어리즘 개발 시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sup>36)</sup>

Grant(2010)은 지형·지질학적 인식과 관계없는 모든 관광객도 지오투어리스트로 보며, ‘geo 관광객’의 범위를 지오 아마추어, 지오 전공자, 지오 전문가로 제안하였다(그림8).

---

34) Maher, P.(eds), 2010, “The Geology of Ireland: providing a catalyst for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opt. cit.*, pp. 153-156.

35) Hose, T.A., 2000, “European Geotourism - Geological Interpretation and geoconservation promotion for tourists.” In D. Barretion, W.A.P.Wimbledon and E. Gallego(eds), *Geological Heritage: Its Conservation and Management, Instituto Tecnológico GeoMinero de Espana, Madrid*, pp. 127-146.

36) Boley, B.B., Nickerson, N.P., 2010, “Measuring Geotourism: Developing and Testing the Geotraveler Tendency Scale (GTS),” *Journal of Travel Research*, October, 20, pp. 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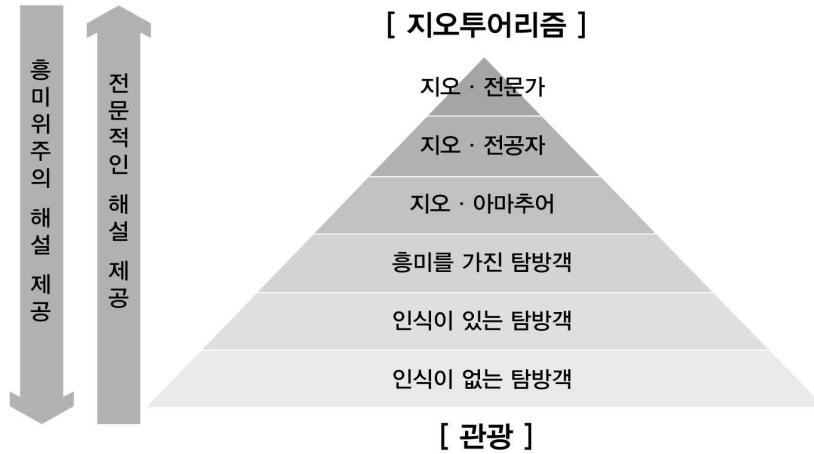


그림 8. 지오사이트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분류

출처: Grant 2010, "Towards a typology of visitors to gosites. Paper presented at the Second Global Geotourism Conference," Making Unique Landforms Understandable. Mulu, Sarawak, Malaysia, April, p.18.

‘인식이 없는 관광객(Unaware visitor)’은 방문지에 아무런 지식과 경험이 없는 관광객, ‘인식이 있는 관광객(Aware visitor)’은 도착 사이트에 약간의 지식과 경관 감상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관광객, ‘흥미를 가진 관광객(Interested visitor)’은 주제에 특별한 관심은 없으나 어떤 것을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관광객, ‘지오 아마추어(Geo-amateur)’는 주제에 흥미를 가지고 직접 찾아가는 관광객, ‘지오 전공자(Geo-specialist)’는 지리학 학위나 그와 비슷한 전문적인 흥미를 가진 관광객, ‘지오 전문가(Geo-expert)’는 특별한 사이트에 흥미와 수준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가르칠 수 있는 관광객이다. 각 관광객의 수준에 따라 해설의 깊이를 다르게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sup>37)</sup>

다섯째, 지오투어리즘의 가장 중요한 교육활동에 관한 연구이다.

관광객들을 위한 해설 매체 분석과 해설방법, 지역 주민 교육방법, 지오투어

37) Grant, C., 2010, "Towards a typology of visitors to gosites. Paper presented at the Second Global Geotourism Conference," Making Unique Landforms Understandable. Mulu, Sarawak, Malaysia, April, pp. 17-20.

리즘 전문가 양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Hughes와 Ballantyne(2010)은 지형·지질 자원에 대한 해설 체계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의 이해 또한 중요하므로 지형·지질 자원해설을 위한 효과적인 매체 선정과 개발에 대한 연구가 강조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지오투어리즘에 대한 해설이 ‘이야기’, ‘비유’, ‘유머’를 통해 관광객과 연결될 수 있는 매체여야 하며 더 높은 차원의 해설은 질문과 퀴즈를 통해 관광객들이 직접 그 내용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sup>38)</sup> Ng, L.W.와 Newsome, D.(2010)는 홍콩의 독특한 지리적 특징과 도시적 환경에서 대중들이 쉽게 지형·지질학에 접근할 수 있는 책자를 개발하였다. 이 시스템은 가장 쉬운 단계인 1단계부터 어려운 5단계로 나뉘어 관광객의 이해가능한 단계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해설이 제공된다. 이러한 자료와 정보들은 배경지식이 다른 관광객들에게도 적합하게 구성되었으며, 많은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지오파크 홈페이지에 올려놓았다.<sup>39)</sup>

Wittlich(2010)는 Rangitoto Island를 방문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설판, 정보 shelter와 가이드 여행과 같이 해설을 제공하는 매체의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매체는 해설판이며, 인터뷰에 참여한 가이드 투어 관광객들은 가이드 투어에 호감을 나타냈다. 이는 주로 관광객과 가이드 사이의 상호작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sup>40)</sup> Komoo, I.(2010)는 유산 보존의 수단으로 지오파크의 이해와 전망을 조사하였다. 랑카위 지오파크(Lang kawi Geopark) 지역 주민과의 인터뷰를 통한 질적 방법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이 연구는 5가지 주요 가치를 제시하였다. 지오파크의 지식과 이해, 지오파크 유산의 중요성에 대해 공유된 가치, 지역 주민의 지오파크 계획과 개발에서의 역할과 책임, 지오파크의 경제적 이익과 기회, 지역공동체가 지오파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이다(그림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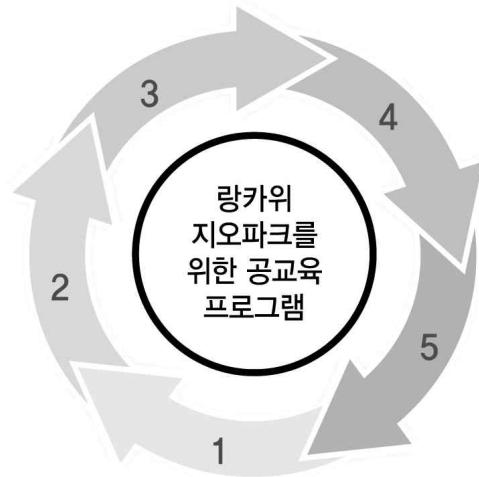
38) Hughes, k. and Ballantyne, R.(eds), 2010, "Interpretation rocks! Designing signs for geotourism sites," *opt. cit.*, pp. 184-199.

39) Young Ng, Lok Wang Fun and Newsome, D.(eds), 2010, "Hong Kong Geopark: uncovering the geology of a metropolis," *opt. cit.*, pp. 179-190.

40) Wittlich, C.(eds), 2010, "Geotourism product interpretation: Rangitoto I sland, Auckland, New Zealand," *opt. cit.*, pp. 158-170.

Note :

1. 지식과 이해
2. 공유된 가치
3. 역할과 책임
4. 이익과 기회
5. 공동의 책임과 자율권



Tool & Mechanism

### 그림 9. 지형·지질 보존을 위한 공교육의 틀

출처: Komoo, 2011, "The Langkawi Global Geopark: local community's perspectives on public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17(3): 267.

지역 주민을 위한 공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와 인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지역 주민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서 역량 함양 프로그램(capacity-building workshop)을 통해 지역 안내원 교육, 지역자원 활용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지역 주민 교육을 통해 지역공동체 인식과 지형·지질 자원 관리를 이끌어 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sup>41)</sup>

2008년 호주의 Perth에서 처음으로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 이 컨퍼런스는 세계에서 첫 번째로 지형·지질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발전, 관리, 마케팅 및 홍보를 위해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지오투어리즘이란 관광객들이 시간에 따fms 지형과 암석의 형성 과정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자연적 경관들을 즐기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정의하였다.<sup>42)</sup> 컨퍼런스는 지형·지질 관련 과학자들, 관

41) Kommo, I., et al., 2010, "Public Education in Heritage Conservation for Geopark Community," *Procedia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7(C): 504-511.

42) [www.promaco.com.au/2008/geotm/venue.htm](http://www.promaco.com.au/2008/geotm/venue.htm)

광전문가들, 환경학자들에게 지오투어리즘을 홍보하며 새로운 지식과 전문성을 나누는 동시에 자연유산을 보호할 것을 강조하였다. 2009년 World Heritage and Geotourism 회의는 남아프리카의 Pretoria에서 개최되었다. 두 번째 컨퍼런스에서는 지형·지질 자원의 보존, 교육, 자연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활동을 강조하였다. 이 컨퍼런스는 지오투어리즘 경영과 관리, 지오투어리즘의 지속가능성 영향 및 환경의 이슈에 관한 사례연구를 통해 지오투어리즘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sup>43)</sup>

지오투어리즘은 여러 공동체와의 협력관계가 필수 요인이기 때문에 정부, 기업, 대학, 지역 주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당사자의 협력에 성공여부가 달려있다. 지오투어리즘의 핵심 요소에 해당하는 교육 분야에서도 지형·지질 자원에 대한 교육적 해설과 매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sup>44)</sup>

---

43) [www.globalgeotourism.com](http://www.globalgeotourism.com)

44) Dowling, R.K., 2011, *op. cit.*, 3(1): 1-13.

### Ⅲ. 해외 지오투어리즘 사례 연구

#### 1. 영국

##### 1) 리비에라 지오파크(English Riviera Geopark)

2007년 9월 영국 Devon의 Torbay 지역이 유럽 지오파크 네트워크(ENG)의 32번째로 지정되었다. Torbay 지오파크는 English Riviera Geopark로 잘 알려져 있으며 62km<sup>2</sup>의 육지 면적과 해양 면적은 42km<sup>2</sup>로 도시적 성격이 강한 곳이다(그림10). 주요 산업은 관광으로 매년 9백만 명의 투숙객이 머물고, 이로 인해 약 15,000명을 직·간접적으로 고용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GDP 중 약 13.5%가 관광 산업으로부터 나온다. 거주인구는 약 123,000명에서, 여름철에는 관광객 유입으로 인해 약 180,000명까지 늘어난다.<sup>45)</sup>



그림 10. 토베이 지오사이트 안내지도

출처: <http://www.englishrivierageopark.org.uk/>

45) TDA, 2009, Turning the tide for tourism in Torbay 2010-2015, Torbay Development Agency.

## 2) 영국 리비에라 지오파크 기구

Torbay의 지형·지질학적 유산을 관리하는 주요 기관으로 영국 리비에라 지오파크 기구(The English Riviera Geopark Organisation)가 2007년에 창설되었다(그림11). 영국 리비에라 지오파크 기구는 지오투어리즘(GeoTourism), 지오교육(GeoEducation), 지오사이트 관리(Geosite Conservation), 지오파크 조정(Geopark Coordination)을 핵심 활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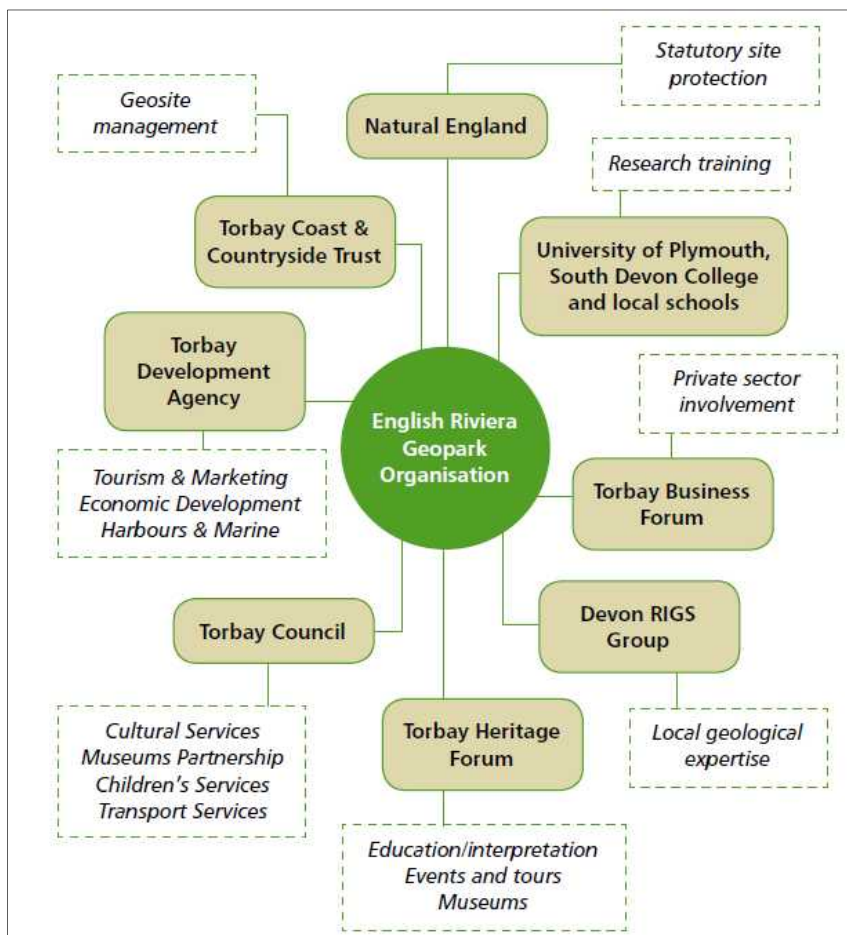


그림 11. 영국 리비에라 지오파크 기구 조직도

출처 : The English Riviera Management Plan, p 5.

환경부(Natural England)는 Torbay의 지형·지질 명소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집행하고, 자연환경 보존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또한 University of Plymouth, South Devon College와 지역 내 학교들이 Torbay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폴리머스 대학교는 1862년에 설립되어 대학 서열 3위 내에 드는 유명 대학으로 생물공학과와 지구과학과, 해양환경과학과가 속해있는 과학 대학들이 지오파크와 협력하고 있다. 또한 30년 전통을 가진 데번 남부대학은 폴리머스 대학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Torbay 비즈니스 포럼(Torbay Business Forum)은 토베이의 다양한 지역산업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데번지역 중요지질명소 모임(Devon RIGS Group)은 1991년에 만들어진 봉사활동 기관으로, 데번지역의 지형·지질명소를 보전하기 위한 특별한 목적으로 창설되어 지역 사회의 전문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Torbay 유산 포럼(Torbay Heritage Forum)은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형·지질 유산 교육과 행사, 관광, 박물관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Torbay 의회(Torbay Council)는 지역 행정기관으로 학교, 박물관, 도서관, 스포츠 시설, 공원, 해변 등을 이용해 공교육과 문화 증진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Torbay 개발회사(Torbay Development Agency)는 관광과 마케팅, 경제개발부서, 항구와 해안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Torbay 해안과 지방 재단(Torbay Coast & Countryside Trust)은 독립적인 성격을 가진 신탁회사로 Torbay 지역의 지질학적으로 중요한 장소뿐만 아니라, 많은 양의 공공녹지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기관의 주 목적은 해당 지역의 지형·지질학적 가치를 보호하고 증진시켜 자연 보전과 교육 프로그램 등을 장려하는 데 있다.

지역 주민은 자원봉사와 보전 행위를 통해 참여할 수도 있지만, 여러 행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기도 한다. 일례로, Paignton 지역에서 최근 그 지역에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는 테마 지오파크 설립을 목표로 한 500,000파운드 기금 모금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바가 있다.

English Riviera Geopark가 세계지오파크에 가입한 것은 도시의 지역경제를 부흥하기 위한 것이며, 이들은 지역의 여러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지오파크를 모든 활동의 최상위에 놓고 그 인지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여러 조직들은 지오파크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Torbay의 자연유산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교육과 지역 사회 기능까지도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다. 그들의 전략은 첫째, 지역의 지형·지질 다양성을 인식하고, 둘째, 지형·지질의 다양성을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며, 셋째, 이를 통하여 지오파크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English Riviera Geopark는 이러한 최고의 지형·지질학적 자원들과 잘 갖추어진 대학 및 연구기관, 여행기반 시설, 단체, 개인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파트너십을 통해 세계적인 지오파크로 성장할 수 있었다.

## 2. 폴란드

### 1) Akademia Górniczo-Hutnicza(AGH) 과학기술 대학

폴란드는 1999년 AGH-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의 지질·물리학 환경 보호학부에서 응용 지형·지질학 과정으로 지오투어리즘 전문가 과정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연계는 지오투어리즘이 지형학, 지질학 그리고 관광학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초기 지오투어리즘 교육은 1999년 응용지질학에서 지오투어리즘 전문학과를 신설하고 이학 석사 또는 엔지니어링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다. 교육의 목적은 첫째는 지형·지질 자원을 기반으로 관광 상품을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 둘째는 상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 셋째는 일반 관광객에서부터 전문가 집단까지 해설의 수준을 조절하고, 다양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전문 해설가를 양성하는 것이다. 즉 이 교육과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새로운 관광산업에 폭넓은 지식을 가진 졸업생들을 배출하는 것이다.

## 2) 지오투어리즘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지오투어리즘 교육 과정은 (1) 표준 과목 (2) 학부 기준 과목 (3) 전문 과목으로 이루어졌다. 표준 과목은 폴란드의 모든 대학에서 필수 과목을 두고 있는데, 응용지질학, 수학, 물리학, 화학, 컴퓨터, 일반 지리학과 지구과학, 경제, 경영원리, 광산업과 시추 엔지니어링의 원리와 외국어를 포함하여 1~3학기 동안 50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학부 기준 과목은 응용 지구과학의 많은 영역을 포함하여 지구 물리학, 광물 지질학, 지도제작, 수문 지질학, 제4기 지형학이 있다. 이러한 주제들은 대부분 4~5학기 동안 1,00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전문 과목은 대부분 8~10학기에 배우며 수업시간은 1,000시간이다. 관광 산업의 다양한 측면으로 관광 지리학, 관광 상품 준비, 관광 서비스, 관광 관리와 지오투어리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여러 선택과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광과 지오투어리즘이 세부적으로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문 과목 시간 동안에는 현장학습이 포함되며 주요 답사지역은 폴란드의 남쪽 산간 지역과 동쪽 알프스 지역이다. 지금까지 약 300명의 지오투어리즘 분야의 졸업생들이 이학 석사와 엔지니어링 학위를 받았다. 대부분의 졸업생은 폴란드와 유럽의 관광 산업 분야에 종사하거나, 주·지방 기관에서 관광 홍보와 마케팅을 담당한다.

대학은 2005년에 볼로냐 프로세스<sup>46)</sup>(Bologna Process) 원칙을 수용한 새로운 표준 과목으로 지질보존, 지구 유산 보호, 지오파크 과목을 신설하였다. 더불어 환경교육이 신설되면서 지오투어리즘 교육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었다. 2009년 9월부터는 지금까지의 폴란드 기술대학에서는 시행한 적이 없는

---

46) 볼로냐 프로세스(Bologna Process)는 1999년 6월 이탈리아의 볼로냐에서 유럽연합 국가들이 2010년까지 비교 가능한 고등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 및 학술교류의 확대뿐만 아니라 미래의 단일 유럽 문화권을 완성하고 유럽 국가들의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도입한 것이다.

관광과 레크레이션 과목이 신설되었다(표8).

표 8. 지오투어리즘 전공 이수 교육과정

구분	교과목	과정	이수시간
표준 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용지질학</li> <li>- 수학/물리학/화학</li> <li>- 컴퓨터</li> <li>- 일반 지리학/지구과학</li> <li>- 경제/경영원리</li> <li>- 광산업</li> <li>- 외국어 필수</li> <li>- 지질보존/지구유산보호 /지오파크 (2005년 신설)</li> </ul>	1~3학기	500시간
학부 기준 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구 물리학</li> <li>- 광물 지질학</li> <li>- 지도제작</li> <li>- 수문지질학</li> <li>- 제4기 지형학</li> </ul>	4~5학기	1,000시간
전문 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지리학</li> <li>- 관광상품 준비</li> <li>- 관광 서비스</li> <li>- 투어리즘 관리</li> </ul>	8~10학기	1,000시간

폴란드 AGH 과학 기술 대학의 성공은 다른 대학의 주목을 받았으며 현재는 지오투어리즘 전문과정이 폴란드의 여러 주립대학과 사립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다. 지오투어리즘 전문과정은 지구환경 과학과 관광학 분야에 새로운 형태의 전문가를 만들어냈으며, 이러한 시도는 변화하는 노동 시장에 대한 대학의 유연한 대처라 할 수 있다.<sup>47)</sup>

47) Slomka, T., Mayer, W.(eds), 2010, "Geotourism and geotourist education in Poland," *opt. cit.*, pp. 142-152.

### 3. 독일

#### 1) 불칸아이펠 지오파크(Vulkaneifel Geopark)

독일어로 Vulkan은 화산을 의미하고 Eifel은 산악지대를 뜻하므로, 불칸아이펠은 ‘화산 산악지대’라는 의미로 통용될 수 있다. ‘불칸벨트’라고 불리는 이곳은 3백 50여 개의 각종 화산체와 70여 개의 마르(Marr)형 분화구의 고장이다 (그림12).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접경지역에서부터 동쪽으로 55km 이상 펼쳐진 곳에 Daun, Gerolstein, Prum, Sank Vith 등의 도시가 있는 광활한 지역으로 불칸아이펠 지오파크는 6개의 권역(Daun, Gerolstein, Hillesheim, Manderscheid, Obere Kyll, Kelberg)으로 나뉘며, 총면적은 13,000km<sup>2</sup>, 높이는 해발 300~675m이다.



그림 12. 불칸아이펠 지오사이트 안내지도

출처: <http://www.vulkaneifel-european-geopark.de>

1990년대 초부터 불칸아이펠 지역을 중심으로 유럽 화산활동과 관련된 지오투어리즘이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2000년 1월 유럽 지오파크, 2004년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지오파크로 선정되었으며, 이는 지오투어리즘의 성장의 결과로 볼 수 있다.<sup>48)</sup>

독일과 지방 정부는 ‘불칸아이펠’의 관광화를 위해 1980년대 중반부터 1천 2백만 유로(1백 80억 원)를 집중적으로 투자해오고 있으며 국가가 나서서 화산 지역 일대 토지를 매입해 관광화하고 있다. 또한 불칸아이펠 지오파크의 지속적인 연구를 위해 대학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sup>49)</sup>

지방 정부는 지오투어리즘 전문 가이드도 양성하고 있다. 비록 지형·지질학에 관한 정식 학위가 없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속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전문성을 길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오투어리즘 가이드 양성 교육과정은 일반 지질학과 응용 지형학, 지형·지질 방법론, 지형·지질학 관련 의사소통 방법, 지형·지질학적 자연 유산과 같은 다양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과정은 전문적 지식보다는 지형·지질학에 관한 전체적인 개론과 지형의 진화·변형 과정에 중점을 두고 구성되었으며, 일회성 교육과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보수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방 정부가 지오파크 가이드 양성 교육을 지원하는 목적은 첫째, 최근에 연구된 새로운 정보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둘째, 지오파크 인근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sup>50)</sup>

## 2) 박물관의 역할

현재 불칸아이펠에는 5개의 박물관과 200개가 넘는 노두가 관광루트로 개발되어 방문객으로 하여금 환상적인 경관을 만끽할 수 있도록 활용되고 있다.

48) <http://www.vulkaneifel-european-geopark.de>

49)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관광문화상품 개발 보고서, 2009, 제주특별 자치도, pp. 127-137.

50) Marie-Luise F.(eds), 2006, “Geotourism and interpretation,” *Geotourism*, Elsevier Ltd., Oxford, pp. 96-109.

불칸아이펠의 5개 메인 박물관은 게롤스타인 자연사 박물관(Gerolstein Natural History Museum), Jünkerath의 철 박물관(Jünkerath Iron Museum), 아이펠 화산 박물관(Eifel Volcano Museum), Manderscheid의 마르 박물관(Maar Museum), Strohn의 화산박물관(Volcano Houses)이다.

화산박물관은 화산폭발과정을 첨단과학기술을 이용해 마치 실제 상황을 보는 것처럼 재현한 박물관이다(그림13). 관광객들에게 기계를 만져 폭발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도 제공하며, 주변의 용암을 그릴로 쪼개 그 형태 그대로 박물관 안에 전시하고 있다.



그림13. 화산박물관의 화산폭발 재연

출처:<http://www.vulkaneifel-european-geopark.de>

불칸아이펠에는 모두 5개의 박물관이 주제별로 분산 설치돼 있으며, 박물관은 전시공간과 연구동을 갖춘 소규모로 운영된다. 주제별 박물관들은 사전에 등록을 받아 연령별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독특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주요 관광 인프라가 된다.<sup>51)</sup>

51) 강시영, 한라일보, “지오투어(Geo-Tour)시대 열린다- 獨 불칸아이펠 르포(상),” 한라일보, 2009. 1.1.

#### 4. 일본

##### 1) 산인해안 지오파크 (Sanin Kaigan Geopark)

산인해안 지오파크는 2010년 10월 3일 일본에서는 4번째로 지정된 세계지오파크이다.<sup>52)</sup> 산인해안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동해가 형성된 시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형·지질과 이를 배경으로 형성된 문화·역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14).



그림 14. 산인해안 지오파크 안내지도

출처: [http://sanin-geo.jp/en/index\\_english](http://sanin-geo.jp/en/index_english)

산인해안 지오파크 협의회는 크게 사무국, 학술분과, 교육분과, 지역협력분과, 투어리즘분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15).

52) [http://sanin-geo.jp/en/index\\_english](http://sanin-geo.jp/en/index_engli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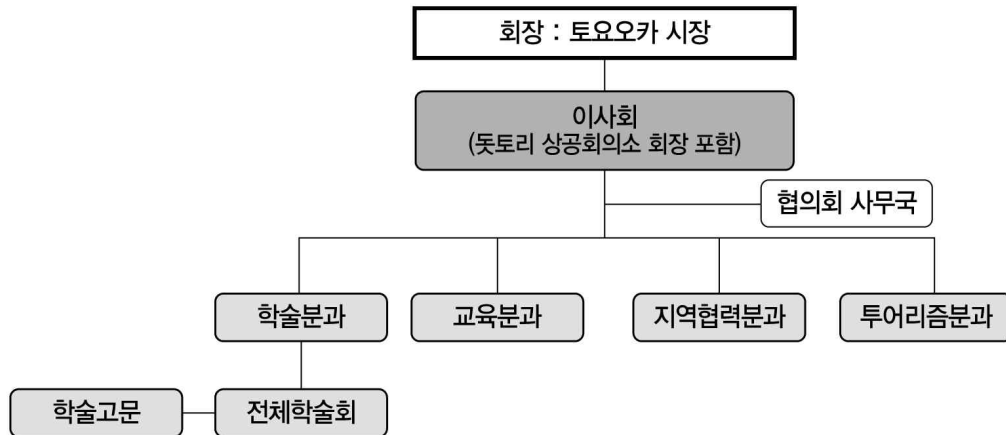


그림 15. 산인해안 지오파크 협의회

출처 : 강원도 DMZ 지오파크조성사업단 산인해안 지오파크 출장 보고서, 2011.

토요오카 시장이 산인해안 지오파크 협의회 회장이며, 토요오카 시청 공무원이 주축이 되어 총 8명의 상주 근무자가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학술분과는 전체학술회와 학술고문이 담당하며, 전체학술회는 지역 학술협회에 의해 구성된다. 지역 학술협회는 지리학자, 지질학자, 마치즈꾸리(마을 가꾸기)를 연구하는 학자 등 다양한 전공자가 있다. 지역 학술협회는 스토리텔링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돗토리시(鳥取市)의 지원으로 전문 가이드 양성을 계획하고 있다. 교육 분과에서는 지역 내 대학이 지형·지질 자원에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지역협력분과는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돗토리 사구재생회 등 시민단체의 활동과 지역 주민 가이드 활동이 대표적이다. 투어리즘분과는 돗토리 사구와 우라도메 해안 연결, 하쿠토 해안의 전설 활용, 돗토리 락교 산업 육성, 지역민속주 개발 등을 담당한다.

## 2) 우라도메(浦富) 유람선 투어

산인해안 지오파크 내에 있는 우라도메(浦富) 해안은 일본의 해안 100선에 선정된 리아스식 해안으로 유람선 투어를 통해 약 15km의 해안선이 절경을 이루는 곳이다.

우라도메 유람선 회사는 1963년 우라도메 국립공원이 지정되면서 유람선 회사가 설립되어 우라도메 4km 정도를 도는 유람선 투어를 운영하고 있다. 95인승(3대)과 12인승(4대)을 운영하며, 운행 기간은 3월~11월까지로 연간 이용객 수는 총 10만 명 이상이다. 우라도메 유람선 코스는 암석해안을 중심으로 돗토리시(鳥取市) 사구까지 약 50분 정도 소요되며, 선장이 해설을 제공한다. 지오파크 인증 이후 가이드 교육시 선장의 참석을 필수로 하고 있다.

우라도메 가이드클럽에서는 가이드를 관리한다. 전문 가이드 해설은 가이드 1인당 3천엔(한화 3만 원) 정도 받고 있으며, 가이드 1명당 관광객 15명으로 그 수를 제안하고 있다. 지오투어리즘 전문 가이드 해설은 지오파크 관련 설명 20%, 현무암, 화강암 등 암석 설명 20%, 해안지형설명 및 지역 생성과정 설명 20%, 문화 및 역사 20%, 기타 20%로 구성한다.

## 5. 소결

국내의 지오파크 및 지오투어리즘 운영 사례가 부족하여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지오파크 및 지오투어리즘 활동 사항들을 분석하였다. 이는 국내 지오파크 및 지오투어리즘 정착 방안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표9).

표 9. 해외 사례 시사점

구분	국내 지오파크에의 시사점
영국 리비에라 지오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지오파크 운영 조직 기구 필요</li> <li>• 다양한 단체와 조직의 유기적인 파트너십</li> <li>• 지오파크 운영을 위한 지역 주민의 모금 운동</li> </ul>
폴란드 AGH 과학기술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지리학과와 지오투어리즘 전문 가이드 양성 과정 신설 필요</li> <li>• 지리학과 학생들에게 지오투어리즘 전문 가이드 자격증을 위한 커리큘럼 운영</li> </ul>
독일 볼칸아이펠 지오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형·지질 지역을 국유화하여 관광지 개발</li> <li>• 정부의 지원을 통한 지형·지질 자원에 대한 대학의 지속적인 연구 지원</li> <li>• 정부 주도의 지오투어리즘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li> <li>• 지역 주민의 지형·지질 교육이 지속적인 세미나와 보수 교육을 통해 이루어짐</li> </ul>
일본 산인해안 지오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 정부의 지오파크 및 지오투어리즘 운영 담당 부서 조직과 공무원 배치</li> <li>• 지형·지질 자원과 문화·역사가 균형을 이룬 해설 구성</li> <li>• 지오투어리즘 전문 가이드에게 해설비 지급</li> </ul>

리비에라 지오파크는 영국 리비에라 지오파크 기구(The English Riviera Geopark Organisation)를 조직하여 정부, 대학, 지역 주민 참여, 지형·지질 전문가 모임 등 각각의 역할과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지오파크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오파크 운영을 모든 지역 활동의 최상위에 놓고 그 인지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국내 지오투어리즘 정착을 위해서도 지오투어리즘 운영 기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폴란드는 AGH 과학기술 대학에서 지오투어리즘 전문가 과정을 신설하여 지형·지질 자원을 기반으로 관광 상품을 계획하고 홍보할 뿐만 아니라 전문 가이드 양성을 교육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국내 지리학과에서도 지오투어리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지리학과 및 지리교육학과 졸업생들에게 취업의 폭을 넓혀 주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독일의 불칸아이펠 지오파크는 1980년대 중반부터 정부의 집중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화산지역 일대 토지를 매입해 관광화하고 있다. 지방 정부는 대학과의 유기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지오투어리즘 전문 가이드 양성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 가이드 양성 교육 방식은 단기적인 교육과정이지 아니라 지속적인 세미나와 보수 교육이 제공되며, 이를 통해 지형·지질 교육의 전문성을 추구하고 지오파크에 사는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의 산인해안 지오파크 협의회는 지오파크 담당 부서와 공무원을 배치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지오파크 내 우라도메 유람선 투어는 교육을 받은 선장이 선상해설을 제공한다. 우라도메 가이드클럽에서는 가이드 1인당 15명의 관광객 수를 제안하고 지형·지질 자원과 문화·역사의 균형 있는 해설을 제공하며 관광객들에게 가이드비를 받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국내 지오투어리즘 전문 가이드와 암석의 형태와 전설 위주로 구성된 선상해설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

## IV. 국내 지오투어리즘 현황

국내 지오투어리즘 여건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를 분석하였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생태관광지와 기암괴석 관광지를 분석하여 지오투어리즘적 요소를 가진 관광지가 전체 관광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국립공원 홈페이지를 분석하였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연관찰로 해설관을 분석하여 전체 자연관찰로에 있는 해설관 중 지형·지질 관련 해설관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립공원에서 전문 가이드가 운영하고 있는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 다양한 해설가 양성 교육과정 중 지오투어리즘 범주에 속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생태관광해설가, 숲해설가의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국내 지형·지질 교육의 여건을 분석하였다.

### 1.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분석

한국관광공사는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지역의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국제 경쟁력을 갖춘 관광정보 인프라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최근 들어 가속도를 더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홈페이지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관광안내 책자나 관광안내소보다 더 효율적으로 정보를 국내·외에 홍보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 제공되고 있는 관광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sup>53)</sup>가 제공하고 있는 유형별 여행정보 관광 명소는 자연관광, 역사관광, 체험관광, 테마관광, 문화시설로 분류되어 있다. 총 8,201개

---

53) <http://www.visitkorea.or.kr>

의 관광지 중 역사관광이 2,628개로 가장 많으며 자연관광이 2,062개, 체험관광은 1,565개, 문화시설관광은 1,514개, 테마관광은 426개, 기타 6개로 안내되어 있다.

총 6개로 분류된 관광 유형 중 지오투어리즘에 가장 근접한 자연관광 분야의 자연 생태관광지와 기암괴석 관광지를 분석하고, 홈페이지에 소개된 관광지 안내 정보를 살펴보았다.

### 1) 자연 생태관광지

자연관광지 중 지오투어리즘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자연 생태관광지 총 146개를 분석하였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생태공원, 천문대, 지형·지질, 공룡 화석지, 습지, 식생, 조류, 시설물(방조제 및 하굿둑) 및 기타 등 9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그림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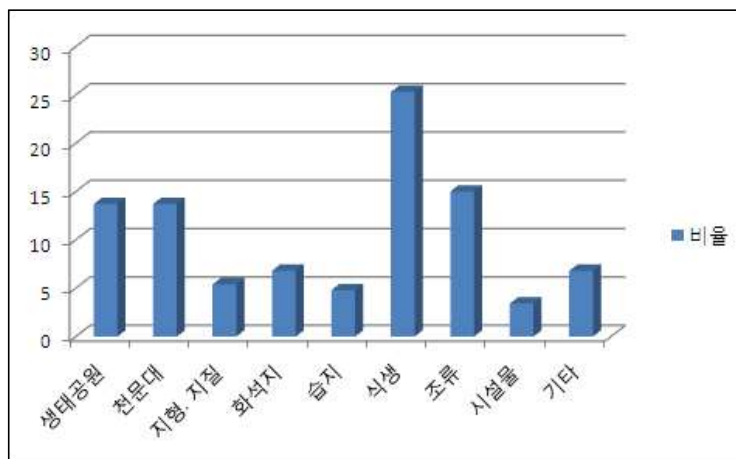


그림 16. 자연 생태관광지 분류

출처: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생태공원은 자연 관찰 및 학습을 위하여 공원녹지를 생태적으로 복원, 보전하여, 이용자들에게 식물, 동물, 곤충들이 자연환경 속에서 성장, 활동하는 모

습을 관찰할 수 있도록 조성한 공원이다. 천문대는 천문 현상을 관측하고 연구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기관으로 주로 경기도권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습지는 서울 주변 지역의 습지만을 중심으로 소개되고 있으며 보다 중요한 가치를 지닌 국내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24곳<sup>54)</sup> 중 경상남도 창원군 우포늪 하나만을 습지 관광지로 소개하고 있을 뿐이다. 식생 관광지는 주로 숲, 군락지, 자생지, 마을 단위의 식생분포 지역을 안내하였으며 철새 관광지는 철새도래지, 관망 타워, 조류 생태전시관 등을 관광지로 소개하고 있다. 방조제 및 하굿둑은 시화호, 하굿둑, 방조제 등의 인공 시설물을 관광지로 소개하고 있으며 인공 시설이 자연 생태관광 유형으로 분류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지형·지질 관광지는 흔들바위, 편치불, 성산일출봉 같이 지형·지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이트 8곳과 공룡 화석지로는 10곳을 관광지로 소개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 제공된 자연 생태관광지 146개를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식생이 27%, 그 다음은 조류가 16%로 생물자원의 비율이 약 4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지형·지질 자원을 이용한 비생물자원은 6%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지오투어리즘 관점에서 공룡 화석지도 관광자원에 포함되므로 지오투어리즘에 적합한 관광지는 13%로 분석된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국내 생태관광은 생물자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태 전반을 이루는 비생물자원에 관한 관광지 안내는 턱없이 부족하다. 게다가 비생물자원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지형·지질 자원을 이용한 관광지 개발이 미흡 하여 국내 지오투어리즘은 아직 전문적 관광으로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자연 생태관광지 중에서 연구자가 분류한 지형·지질 자원 관광지 안내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지형·지질 자원을 이용한 관광지로는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의 흔들바위,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편치불,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백옥포리 팔석정,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해안사구, 전북 진안군 성수면 좌포

---

54) 국토해양부, 2010, 해양생태과 보도자료.

리 풍혈과 냉천, 전북 김제시 만경읍 화포리의 김제평야, 경남 의령군 공류면 평촌리 봉황대,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성산 일출봉으로 총 8개가 소개되고 있다.

흔들바위, 팔석정, 봉황대는 주로 암석의 형태와 모양을 중심으로 관광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흔들바위는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지형·지질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흔들나 여러 사람이 흔들나 똑같이 흔들리기 때문에 흔들바위다.’라는 정도의 비전문적인 정보만이 제공되고 있다. 김제평야와 풍혈관광지는 관광지로 특별한 매력을 느낄 수 없는 사진과 관광지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그에 반해 편치불, 신두리 해안사구, 성산일출봉은 비교적 관광지 소개도 자세하고 지형 형성과정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자연 생태관광지에 비하면 지오투어리즘 비율은 질적·양적으로 극소수에 불과한 수준이다.

## 2) 기암괴석 관광지

희귀동식물/기암괴석으로 분류된 관광지는 총 67개인데 식물자원이 83.5%, 기암괴석 14.9%, 동물자원이 0.5%로 희귀동식물/기암괴석 관광유형에도 식물자원 위주의 불균형적인 비율을 보이고 있다.

기암괴석 관광지로 소개된 곳은 총 10개 사이트로 경북 포항시 마산리 하선대, 경북 군위군 학소대, 전남 완도군 범바위, 경북 울진군 사랑바위, 강원 동해시 추암 촛대바위, 전남 화순군 물염적벽, 전북 진안군 마이산 타포니, 경북 영천시 돌할매, 경남 의령군 탑바위, 제주 서귀포시 외돌개가 있다. 홈페이지에서는 기암괴석의 사진과 함께 간단한 설명을 제시해 주고 있다.

촛대바위, 사랑바위, 탑바위 관광지 안내 정보는 암석의 모양과 형태 중심이고 외돌개와 하선대는 그 지역의 전설 중심의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돌할매, 학소대, 물염적벽은 기암괴석으로 분류하기에는 특별한 지형적 특징이 보이

지 않으며, 특히 돌할매의 경우는 미신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관광지다. 그에 비해 추암 촛대바위나 외돌개는 시스텍을 대표할 만한 관광 명소임에도 불구하고 촛대바위는 암석의 형태와 주변의 경관만을 설명해주는 수준이며, 제주도의 외돌개도 역사 관련 설화만을 소개하고 있다. 이렇듯 마이산 타포니를 제외하고는 지형 형성과정을 전문적으로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경관에 대해 통상적으로 기암괴석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기암괴석이란 ‘기이하고 특이하게 생겼다’ 뜻이 있으나 용어 자체가 매우 추상적이어서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어 가는 자연경관을 설명해 주기에는 부족한 표현이다. 그러므로 지형·지질 관광자원을 ‘기암괴석’으로 통칭하기보다는 형성과정이 내포된 과학적이고 전문적 용어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광객들의 지적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지형·지질 자원 관광지의 안내는 매우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으므로 관광지의 특성이 잘 반영된 사이트를 개발하고 관광지 설명에 대한 수준과 전문성도 개선되어야 한다.

## 2. 국립공원 홈페이지 분석

국립공원은 자연환경보호법에 따라 국가에 의해 지정된 자연환경으로 산, 강, 평야 혹은 바다의 한 부분 등을 일컫는다. 여기에서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자연환경이란 천연적으로 아름다움을 가진 자연뿐만 아니라 희귀 생물들의 서식지, 그리고 그곳에 남겨진 뜻 깊은 유적지 등을 포괄한다. 1967년 12월 29일 지리산 국립공원이 국내 최초로 탄생하였고, 1968년에 한려해상국립공원이 우리나라 최초의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현재까지 국내에 20개의 국립공원이 지정되어 있다.

국립공원의 자원은 크게 지형경관자원, 동·식물자원, 문화자원으로 구분된다.<sup>55)</sup> 지형경관자원은 공기와 물을 영력으로 하는 풍화작용을 통해서 중생대

이래 수억 년에서 수백만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형성된 것이다. 동·식물자원으로는 국립공원 내에 상록활엽수림, 침엽수림 등 각종 귀중한 식물 군락이 있다. 그리고 국립공원은 다양한 야생동물의 서식지로 우리나라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221종 중 57.9%인 128종이 서식·분포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문화자원은 유구한 역사 속에서 문화적 보전가치를 지니는 것들에 대해 국가적, 공공의 보물로 지정하여 보호,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국립공원 내에 국보 38점, 보물 141점, 사적 및 명승 6개소 등 전체 문화재의 16%가 있다. 그러나 국립공원에 분포하는 많은 자연유산과 문화유산들에 대해서 관광객들에게 제공되는 해설 서비스가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립공원 자원 중 동·식물 자원은 관광객들에게 제공되는 생태 해설 프로그램이나 해설관이 많지만, 국립공원 전반을 이루고 있는 지형·지질 자원에 대한 해설 정보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즉 국립공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및 정보가 생물자원에 집중되어 있고 이들이 살아가는 기반인 지형·지질 자원 관련 정보는 간과되고 있다.

#### 1) 자연관찰로 해설관

국립공원은 해안형, 해상형, 산악형으로 분류<sup>56)</sup>되며 국립공원 홈페이지 자연관찰로 해설관에는 공원 안내, 자연관찰, 동·식물 자원, 지형·지질 경관자원, 문화유산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해 주고 있다. 홈페이지에 내용 확인이 가능한 자연관찰로 중 해안형 국립공원 2개소, 해상형 국립공원 7개소, 산악형 국립공원 35개소를 중심으로 해설관을 각 유형별로 분류하고 해설관에 나타난 지형·지질 자원의 비율을 분석하였다.

해안형 국립공원 자연관찰로는 2개소가 있으며 해설관은 총 51개가 있다. 해안형 국립공원에 해당하는 태안반도 자연관찰로의 해설관은 식물·동물자원의 비율이 92.1%인데 비해 지형·지질 자원은 5.8%에 불과하다(표10).

55) 국립공원관리공단, 2005, 국립공원백서, pp. 52~61.

56) 국립공원관리공단, 위의 책, p. 224.

표 10. 해안형 국립공원 자연관찰로 해설판

해당공원	자연관찰로	해설판 수록 내용 분류						해설판 총계
		공원 및 관찰로 소개	식물	동물	지형 지질	생태 전반	인문 자원	
태안반도	기지포	0	12	2	1	0	0	15
	학암포	1	20	13	2	0	0	36
총계		1	32	15	3	0	0	51
비율		1.9	62.7	29.4	5.8	0	0	100

해상형 국립공원 자연관찰로는 7개소가 있으며 해설판은 총 108개가 있다. 해상형 국립공원은 해안이라는 뛰어난 지형·지질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형·지질 자원 해설판 비율이 10.1%에 불과해 식물·동물의 생물자원의 해설판 비율 54.5%보다 매우 낮은 비율을 차지한다(표11).

표 11. 해상형 국립공원 자연관찰로 해설판

해당공원	자연관찰로	해설판 수록 내용 분류						해설판 총계
		공원 및 관찰로 소개	식물	동물	지형 지질	생태 전반	인문 자원	
다도해 해상	정도리	1	8	1	0	2	0	12
	흑산도	0	5	1	1	0	3	10
	향일암	5	3	1	1	0	0	10
	거문도	2	3	2	0	2	3	12
한려해상	금산	1	7	3	1	6	2	20
	학동	1	7	2	1	1	2	14
변산반도	격포	0	8	8	7	2	5	30
총계		10	41	18	11	13	15	108
비율		9.2	37.9	16.6	10.1	12.0	13.8	100

산악형 국립공원 내 자연 관찰로 해설판의 자원별 현황을 살펴보면 자연관찰로 35개소에 있는 총 700개 해설판 중 동·식물에 관련된 해설판의 비율이 62.6%이며, 비생물자원인 지형·지질에 관련된 해설판은 3.5%이다(표12).

표 12. 산악형 국립공원 자연관찰로 해설판

해당공원	자연관찰로	해설판 수록 내용 분류						해설판 총계
		공원 및 관찰로 소개	식물	동물	지형 지질	생태 전반	인문 자원	
가야산	해인사	1	5	0	0	2	1	9
계룡산	동학사	2	4	2	0	3	0	11
	갑사	2	4	7	0	2	2	17
내장산	내장사	0	2	1	0	2	0	5
	원적골	3	13	1	1	8	1	27
	백양골	2	14	2	0	3	0	21
	남창	2	3	0	1	1	1	8
북한산	소귀천	1	2	1	0	0	0	4
	도봉	2	26	8	1	5	3	45
	송추	2	14	3	0	3	0	22
설악산	비룡폭포	1	8	0	2	3	0	14
	비선대	0	10	4	0	4	0	18
	용소폭포	0	4	14	3	0	1	22
	백담	0	2	5	1	3	2	13
소백산	희방계곡	1	16	8	1	5	0	31
	죽령 옛길	0	8	4	0	0	7	19
	삼가동	0	10	4	1	4	1	20
	천동	1	10	4	0	3	2	20
속리산	화양동	2	3	2	1	2	1	11
	법주사	1	10	3	0	2	0	16
오대산	소금강	2	6	14	0	5	7	34
	월정사	3	9	4	0	1	4	21
월악산	만수골	0	11	8	2	5	0	26
	하늘재	0	11	3	0	5	10	29
월출산	천황지구	3	4	4	0	2	0	13
	도갑지구	2	7	4	1	4	0	18
주왕산	상의	3	7	3	0	1	0	14
지리산	중산리	3	3	7	1	5	1	20
	뱀사골	2	15	3	2	12	0	34
	불일폭포	3	3	4	1	4	3	18
	구룡	2	7	4	0	13	4	30
	가내소	1	7	4	3	6	4	25
	세석	1	18	1	2	1	0	23
치악산	구룡사	2	14	7	1	3	4	31
	금대리	1	3	3	0	1	3	11
총계		51	293	146	25	123	62	700
비율		7.2	41.8	20.8	3.5	17.5	8.8	100

이처럼 국립공원 자연관찰로에서 제공하는 지형·지질 관련 해설관은 전체 해설관 비율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낮다. 이는 국내 지오투어리즘 정착과 국립공원의 균형 잡힌 생태자원 인식을 위해서라도 생물자원과 비생물자원의 균형적인 자연관찰로 개발과 해설관 설치가 시급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 2) 생태관광 프로그램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체에서 실시하는 생태관광 프로그램의 경우 내용, 구성, 운영 방법 등이 지오투어리즘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내용을 검토하였다. 국립공원 에코투어<sup>57)</sup> 생태관광 프로그램 내용으로 숲치유(eco-healing), 역사·문화(history&culture), 자연생태(natural ecosystem), 템플스테이(temple stay), 팜스테이(farm stay), 해양생태(marine ecosystem)로 분류하여 각각의 테마에 맞는 여행을 국립공원 탐방안내소에서 운영하고 있다. 분류된 생태관광 중 지오투어리즘 범주에 가장 적합한 자연생태와 해양생태관광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자연생태 분야의 탐방 프로그램은 9개의 국립공원에서 당일형, 1박 2일, 2박 3일 일정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장에서는 당일형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계룡산 국립공원은 ‘미래세대 계룡산 생태탐방’으로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동학사 자연관찰로 해설 및 자연물을 이용한 체험 프로그램, 도예체험관에서 도자기 만들기 체험, 계룡산 자연사 박물관 관람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연 관광보다 인문적 체험 활동의 비율이 높다. 내장산 국립공원은 ‘내장산과 함께하는 즐거운 여행’으로 천연기념물 91호 굴거리나무 군락지~내장산 구간 경관 해설과 함께하는 트레킹, 숲에서 하는 삼림욕 체험, 산림박물관 견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숲치유와 유사한 프로그램이다. 북한산 국립공원 프로그램은 ‘우이령 숲으로 떠나는 여행’으로 우이령 숲의 동물과 식물 해설, 오봉 전설

---

57) <http://ecotour.knps.or.kr>

및 경관 해설, 우이령의 역사와 문화를 해설하고 있다. 북한산 자연생태 프로그램은 비교적 생태자원의 해설과 문화·역사 해설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소백산 국립공원은 ‘자연과 역사가 함께하는 소백산 여행’으로, 주요 프로그램은 죽령 옛길 걷기, 운달관광지 역사 문화체험, 부석사와 구인사 문화해설로 구성되어 있는데 역사·문화 프로그램과 흡사하다. 속리산 국립공원에서는 ‘속리산과 친구 되기’로 진행되며 코레일 투어서비스와 연계되었다. 승마체험, 법주사 탐방, 전통 한옥 체험 및 음식 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연생태관광의 프로그램 요소가 거의 없다. 오대산 국립공원의 ‘오대산에서 체험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생태관광’은 풍력발전 원리 체험 및 신재생 에너지의 중요성, 양떼목장 체험, 전나무숲길 체험, 월정사와 상원사의 역사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연생태 분야보다는 역사·문화 프로그램으로 분류될 수 있다. 주왕산 국립공원의 ‘주왕산 국립공원과 함께하는 가족 동반 여행’ 프로그램은 대전사 전설 이야기, 참나무숲 삼림욕, 청송민속박물관 관람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주왕산 국립공원에서는 주왕산 암석이야기라는 해설을 프로그램 일부로 포함하고 있어 자연생태관광 해설에서 처음으로 지형·지질 관련 해설이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리산 국립공원에서는 ‘반달가슴곰과 함께 걸어요’는 지리산 화엄사의 문화적 특징, 반달곰의 복원과 생태이야기, 야생화 체험 놀이 등 동물생태를 비롯해 역사·문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치악산 국립공원에서는 ‘함께해요~금강소나무가 살아 숨 쉬는 명품 녹색길 체험’을 통해 금강소나무 명품 길에서 자연해설, 구룡사 사찰문화 체험, 녹색농촌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자연생태관광, 템플 체험, 농촌 체험으로 구성된 다소 복합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해양생태(marine ecosystem) 관광은 내륙 지역의 국립공원과는 다른 경관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양생태관광 4개의 국립공원도 자연생태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당일형, 1박 2일, 2박 3일 일정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장에서는 당일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변산반도 국립공원의 '변산반도로 떠나는 녹색 여행'은 변산의 고사포에서 시작해서 하섬까지 맨발로 걸으며 갯벌을 체험하고 하섬 갯벌의 해양 생물과 고사포의 사구 식물을 관찰 및 채석강의 지형·지질 탐사가 포함되는 프로그램이다. 오후에는 곰소 천일염 등의 계절별 체험놀이와 내소사에서 문화·역사 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채석강의 지형·지질 탐사 프로그램은 바다의 가치, 채석강의 유래, 암반 설명, 암반 조간대 해양 생물, 관광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 등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채석강의 지형·지질 탐사는 지오투어리즘에 부합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태안해안 국립공원에서 진행되는 '우리들의 특별한 여행'의 코스는 몽산포갯벌, 송화염전, 기지포 자연관찰로로 구성된다. 태안해안 국립공원에서 운영되는 생태관광은 물때에 맞춰 바닷가의 생물들을 직접 만져보고 관찰할 수 있다. 또한 바닷가 기지포 자연관찰로를 거닐며 해안사구의 중요성과 역사에 대해서 배우고 직접 해안사구를 복원하는 '모래 포집기 체험'을 통해 미래 세대에게 소중한 자연유산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송화염전을 통해 천일염 제조 과정을 체험하며, 마지막으로 몽산포 갯벌 자연해설을 통해 갯벌의 형성 원리 및 중요성, 갯벌 생물 관찰 및 생존 전략 등의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듯 태안해안 국립공원의 프로그램은 태안 해안을 이루는 전체적인 생물자원과 비생물 자원에 대한 해설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푸른 바다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서'는 정도리 구계등 탐방, 완도수목원 녹색수업, 산림박물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만 년에 걸쳐 형성된 갯돌 해변과 상록 방풍림이 어우러진 정도리 구계등(명승지 제 3호)에서 자연해설을 하고 갯바위 해조류 표본 만들기, 손수건 천연 염색 등 다채로운 생태 탐방을 한다. 그리고 국토 최서 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완도 수목원에서 3,700여 종의 식물 자연해설 및 자연물을 이용한 공예체험, 난대수종 산림 박물관을 관람함으로써 주로 숲과 식물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다 함께 떠나는 한려해상 보물찾기’ 프로그램 코스 구간은 이충무공 영상관 관람, 자연재료 만들기 체험, 원예 예술촌 견학으로 이루어져 있어 역사 프로그램을 주요 코스로 하고 있다.

이상으로 에코투어 프로그램 중 지오투어리즘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연생태관광과 해양생태관광 프로그램을 분석해 보았다. 국립공원에서 제공하는 에코투어 프로그램은 자연생태관광보다 해양생태관광 프로그램이 비교적 지오투어리즘 요소에 더 부합됨을 알 수 있으나 주제별 뚜렷한 특성은 나타나지 않고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비슷한 내용과 운영방식을 보인다.

### 3. 국내 해설가 양성 교육과정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인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추세에 따라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및 관광 관련 기관에서는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우리의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와 체험활동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문 해설가를 양성하기 시작하였다. 전문적 가이드의 체계적 해설은 방문자의 자연 및 환경에 대한 경험의 질을 향상시키고 태도와 인식을 변화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공헌할 수 있게 된다.

국내 해설가 양성은 국가 주도형과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 중심으로 나누어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 주도형 관광자원 해설가로는 숲해설가(산림청), 국립공원 자연환경안내원(환경부), 박물관·미술관 어린이 해설사(노동·문화관광부), 갯벌생태안내인(국토해양부), 문화관광해설사(문화체육관광부), 바다해설사(농림수산식품부) 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 단체 중심의 관광자원 해설사는 청계천생태해설사(서울), 순천만생태해설사(순천), 수(水)생태해설사(하남), 생태관광해설사(하동, 연천군 DMZ, 창녕군), 슬로우시티해설사(담양), 제주자연유산해설사(제주)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중심 관광자원해설사 양성 과정은 그 지역의 특화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교육 내용이 이루어진다.<sup>58)</sup>

이 장에서는 관광의 유형 중 지오투어리즘의 범주에 속하는 문화관광과 관련된 문화관광해설사, 생태관광과 관련된 자연생태해설사, 자연관광과 관련된 숲해설사 양성 교육 과정을 분석하여 국내 지형·지질 자원 교육 여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1)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과정

문화관광해설사<sup>59)</sup>의 개념은 ‘문화재, 관광지 등을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유산, 관광자원, 풍습, 생태환경 등에 관한 설명과 해설을 통해 관광객들로 하여금 우리 문화유산 및 관광자원에 대해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자원봉사자’라 정의된 바 있다. 따라서 문화관광해설사는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제공되는 혜택에 부가 가치를 더하는 기능을 한다. 이미 관광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은 관광 사업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렇지 않은 지역의 경우는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은 중요하다.

이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례지역으로 지정한 신안군 홍도, 거제도 해금강, 제주도에서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직접 교육을 받은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분석하였다.

신안군, 거제도, 제주도에서 이루어지는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표13).

---

58) 강영란, 2011, “관광자원해설사의 교육참여동기 요인 및 행태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석사학위 논문, pp. 20-23.

59) 문화관광해설사는 2001년 도입 당시부터 2010년 현재까지 법적 근거나 관련 규정에 의한 자격증 제도가 아니며, 사업의 총괄 관리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기본 운영 계획 및 지침을 매년 수립 조달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해 사업을 예산 보존 지원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0,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

표 13.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교육과정	신안군	거제도	제주도
문화관광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설사의 역할과 의무</li> <li>- 문화관광마케팅 전략</li> <li>- 문화유산의 유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li> <li>- 관광산업의 발전방안</li> <li>- 해설사의 책임과 임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과 의무</li> </ul>
문화역사 관련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전통 건축의 이해</li> <li>- 호남의 인물과 역사</li> <li>-新安군의 문화와 역사</li> <li>- 한국해양사와新安</li> <li>-新安의 섬과 유배 인물들</li> <li>- 불교문화와 불교신앙</li> <li>- 민속문화</li> <li>- 남도소리 이해와 감상</li> <li>- 600년 목포역사</li> <li>- 목포의 역사와 인물</li> <li>- 남도문화의 이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효와 사회</li> <li>- 가야의 역사와 문화</li> <li>- 경남의 무형문화재</li> <li>- 풍수로 보는 경남 문화유적</li> <li>- 한국의 궁궐이야기</li> <li>- 임진왜란 해전과 이순신 리더십</li> <li>- 만주망명과 독립운동</li> <li>- 불교미술의 이해</li> <li>- 경남의 유배문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역사의 이해</li> <li>- 세계 자연유산의 이해</li> <li>- 제주지오파크의 이해</li> <li>- 제주의 전통문화</li> <li>- 제주해녀와 문화</li> </ul>
안전교육	-	-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요령	- 응급처치 요령
해설 방법 및 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설기법 및 매너</li> <li>- 문화관광 해설기법 발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토리텔링기법</li> <li>- 시나리오작성기법</li> <li>- 문화관광 해설 및 안내기법(Ⅰ)</li> <li>- 문화관광 해설 및 안내기법(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토리텔링기법</li> <li>- 문화관광테마와 시나리오 작성기법</li> </ul>
자연생태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해안 갯벌과新安</li> <li>- 해양관광, 성장산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습지와 환경보전</li> <li>- 자연환경을 이용한 생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의 동물 및 유산지구 동물의 특징</li> </ul>
커뮤니케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설가의 올바른 자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커뮤니케이션 기술</li> <li>- 서비스전략</li> <li>- 글로벌에티켓</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절 서비스 교육</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전의 사회경제적 가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일어</li> <li>- 관광중국어</li> <li>- 관광영어</li> <li>- 이미지 메이킹</li> <li>- 수화교육(이론/실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 실용 영어회화</li> <li>- 디지털 카메라 이론 및 촬영기술</li> </ul>
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유적 답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교육(한려해상국립공원 및 이순신 관련 유적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해설 시연테스트 및 평가 현장교육</li> </ul>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은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론 부분에 해당하는 교육 과목은 문화관광교육, 문화·역사 관련교육, 안전교육, 해설 방법 및 실습, 자연생태 모니터링, 커뮤니케이션, 기타로 분류하였다. 각 영역에 분류된 수업 내용을 통해 각 영역의 비율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표14).

표 14.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분류

분류	문화 관광교육	문화·역사 관련교육	안전교육	해설 방법 및 실습	자연생태 모니터링	커뮤니케이션	기타
신안군	3	11	-	2	2	1	1
거제도	3	9	1	4	2	3	5
제주도	1	5	1	2	1	1	2
합계	7	25	2	8	5	5	8
비율	11.6	41.6	3.3	13.3	8.3	8.3	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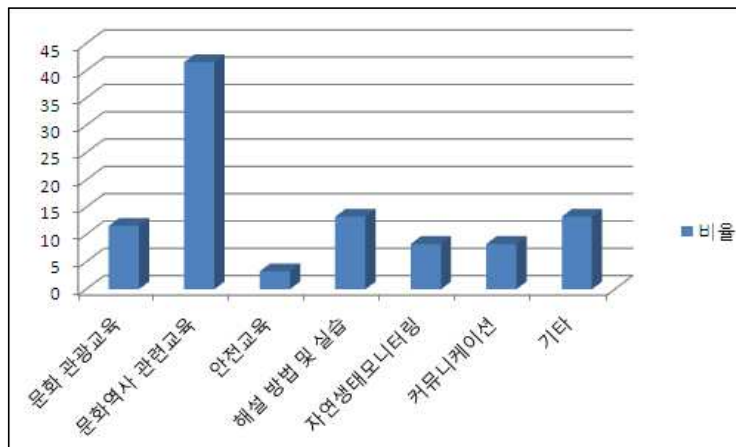


그림 17. 문화관광해설사 교육내용 비율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은 문화·역사 교육이 41.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그림17). 그에 비해 지형 경관은 다양한 문화 형성에 영향을 미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에서 지형·지질과 관련된 자연생태 모니터링 관련 수업은 전체 수업 중 8.3%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 2) 생태관광해설가 양성 교육과정

생태관광해설가는 자원 해설을 통해 주민이 직접 살고 있는 지역의 우수한 자연 환경을 공감하고 널리 알려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보통 생태관광해설가 교육과정은 교육 인원 30명 내외, 60시간 이수를 기준으로 진행되며 별도의 시험 없이 교육 이수 여부를 통해 생태관광해설가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생태관광해설가 양성은 2006년 하동에서 처음 시작하여, 2010년에는 창녕군과 연천군 DMZ에서도 운영되고 있다. 경상남도 하동은 섬진강 하류 지역의 생태를 바탕으로 2009년에 슬로우시티로 인증되면서 자연·환경과 인간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여유 있고 즐겁게 사는 고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자연생태를 바탕으로 웰빙 도시로 거듭나면서 외지인의 방문이 해마다 늘고 있는 지역이다.

창녕군 우포늪은 한국형 생태관광 10대 사업 모델에 선정된 지역이다. 1997년 생태계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1998년에는 국제습지조약에서 보존습지로 지정했다. 또한 지난 2008년에 이곳에서 람사르 총회가 개최되면서 한반도에 있는 생태계 보고(寶庫)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경기도 연천군 DMZ 일대에는 멸종위기 생물 67종과 천연기념물 물범, 산양 등 2천 700여종의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동식물의 낙원’, ‘살아있는 생태교과서’, ‘한반도 생태계의 보물창고’로 불리고 있다. 2010년 11월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생태관광해설가 27명을 배출하였다.

이 장에서는 하동군, 창녕군 우포늪, 연천군 DMZ에 대한 교육과정의 전체적인 틀을 생태 교육 이론, 문화·역사 관련 교육, 안전교육, 해설 방법 및 실습, 자연생태모니터링, 커뮤니티, 기타로 분류하고 각 과목별 수업을 합산하여 전체적인 수업의 비율을 분석해 보았다.

경상남도 하동군, 창녕군 우포늪, 연천군 DMZ에서 실시하는 생태관광해설가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표15).

표 15. 생태관광해설가 교육과정

교육과정	하동군	창녕군 우포늪	연천군 DMZ
생태교육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태해설가의 자세와 역할</li> <li>- 생태윤리</li> <li>- 생태적 농업</li> <li>- 어린이 생태교육론</li> <li>- 어린이 생태교육의 방법과 실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태관광의 이해</li> <li>- 우포늪 생태관광프로그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태관광 지역 활성화 사례</li> <li>- 생태관광의 이해</li> <li>- 국내 생태관광 우수사례</li> <li>- 우리지역 생태관광 가능한가?</li> </ul>
문화·역사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동의 문화와 생태 변천사</li> <li>- 하동의 노거수를 찾아서</li> <li>- 섬진강의 처음에서 끝까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관광의 이해</li> <li>- 문화재 탐방</li> <li>- 창녕의 역사</li> <li>- 창녕 관광 소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지역의 역사와 문화</li> </ul>
안전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 및 응급처치요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li> </ul>
해설 방법 및 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숲 체험 활동기법과 시연</li> <li>- 송림의 생태 체험하기</li> <li>- 생태해설사의 자세와 해설기법</li> <li>- 생태해설활동의 사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토리텔링 현장사례 해설 실무</li> <li>- 효과적인 해설방법</li> <li>- 해설의 역사와 이념</li> <li>- 마을 이야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토리텔링 작성</li> <li>- 주제별 스토리텔링 기법 및 피드백</li> <li>- 역사, 문화 해설기법</li> </ul>
자연생태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풀꽃나들이</li> <li>- 숲생태계의 역할과 기능</li> <li>- 목본의 종류와 특성</li> <li>- 목본의 동정과 방법</li> <li>- 초본의 구분과 분류</li> <li>- 초본의 특성</li> <li>- 초본의 동정과 방법</li> <li>- 갯벌생물의 구분과 종류</li> <li>- 갯벌생물의 특성</li> <li>- 갯벌생물의 동정과 방법</li> <li>- 조류생태 이해</li> <li>- 조류의 종류와 특성</li> <li>- 조류의 동정과 방법</li> <li>- 섬진강의 생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물다양성 종 복원</li> <li>- 따오기 복원</li> <li>- 수생식물의 이해</li> <li>- 우포의 숲</li> <li>- 우포의 버드나무</li> <li>- 식물관찰(야생화)</li> <li>- 우포의 어류</li> <li>- 곤충의 이해</li> <li>- 양서·파충류의 이해</li> <li>- 우포늪의 조류</li> <li>- 철새 탐방</li> <li>- 천체 관측</li> <li>- 우포늪 소개</li> <li>- 습지와 인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새 탐조와 생태관광</li> <li>- 사진으로 보는 철새, 텃새 그리고 나그네새</li> <li>- 흔적으로 찾아가는 야생동물</li> <li>- 쉽게 찾아보는 우리 버섯</li> <li>- 습지로 떠나는 아주 특별한 여행</li> </ul>
커뮤니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짚풀 공예</li> <li>- 자연놀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절한 관광객 맞이</li> </ul>	-
현장 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덕천강 기행</li> <li>- 우포늪, 주낙동강 탐방</li> <li>- 낙동강, 사천만 탐방</li> <li>- 지리산 둘레길 걷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남저수지 탐방</li> <li>- 순천만 탐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산 국립공원 현장방문</li> <li>- 장항습지, 태풍전망대 현장 방문</li> <li>- 연천, 파주지역 현장방문</li> <li>- 자연놀이 이론 및 실습</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리산의 의미와 지리산 둘레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포늪 다큐멘터리</li> <li>- 창녕의 먹거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숲체험 프로그램 사례연구</li> </ul>

다음은 위의 표에 나타난 생태관광해설가 교육과정 중 자연생태 모니터링 수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였다. 자연생태 모니터링 수업에 분류된 과목은 생물자원인 식물, 어류, 곤충, 양서류, 조류, 야생동물, 천체, 지형·지질의 하위 영역으로 구분하였다(표16).

표 16. 생태관광해설가 교육과정 분류

	식물	어류	곤충	양서류	조류	야생동물	천체	지형·지질
하동군	6	-	-	-	3	-	-	3
창녕군	6	1	1	1	2	-	1	2
연천군	1	-	-	-	2	1	-	1
합계	13	1	1	1	7	1	1	6
비율	41.9	3.2	3.2	3.2	22.5	3.2	3.2	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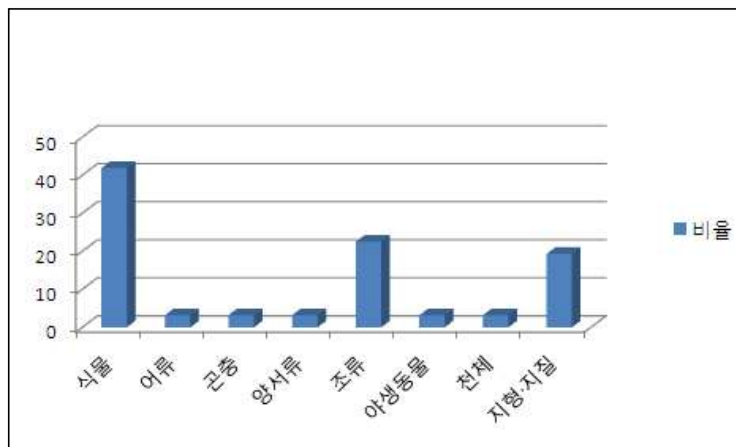


그림 18. 생태관광해설가 교육내용 비율

생물자원은 77.2%의 수업 비율을 보이지만 비생물자원은 19.3%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그림18). 생태관광해설가 교육과정에서도 생태 교육의 내용이 생물자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불균형적인 생태 인식을 야기시킬 수 있다. 특히 생태관광해설가는 생태 전반의 정보를 관광객들에게 제공해 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므로 균형 잡힌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 3) 숲해설가 양성 교육과정

1988년 처음으로 자연 휴양림이 조성되기 시작하면서 효과적인 휴양림의 활용을 위해 숲해설의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숲해설이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전개된 것은 1992년 1월에 결성된 사단법인 숲과 문화연구회가 우리 숲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시민의 눈높이로 해설하고자 ‘아름다운 숲 찾아가기’를 1992년 3월부터 진행하면서부터이다.

산림청은 1999년 3월 최초로 자연휴양림에서 활동할 숲해설가를 위촉하였으며 사단법인 숲해설가 협회를 창립하고 산림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숲해설 활동의 확산과 산림정책으로 자리잡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06년에는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007년에는 숲해설 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도가 도입되었다.<sup>60)</sup>

숲해설은 산림, 산림 생태계, 야생 동·식물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산림 자원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와 산림의 공익적 기능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휴양 편익의 증진뿐만 아니라 산림자원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자원을 건전하게 보호하고, 관광객들에게 자연재해 및 안전사고에 의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적 역할도 담당한다. 따라서 숲해설가는 관광객들에게 산림 환경에 관련된 지식 및 정보를 전달하고 체험활동을 통해 산림 환경에 대한 태도 및 행동의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산림자원의 관리 효과 및 경험의 질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다.

숲해설 교육은 민간 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및 산림 관련 단체 등에서 이루어진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숲연구소, 숲해설가 협회, 춘천시에서 주관한 숲해설가 양성 교육과정을 분석하였다(표17).

숲해설가 양성 교육과정은 산림과 인간 환경윤리, 산림과 생태계, 산림환경 교육·교수 학습방법, 안전교육, 커뮤니케이션, 인간발달과 교육심리로 분류하였다.

---

60) 산림청, 2007, 제1회 전국 숲해설가대회 및 통합 Workshop 자료집.

표 17. 숲해설가 교육과정

교육과정	숲연구소	숲해설가 협회	춘천
산림과 인간 환경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숲이란 무엇인가</li> <li>- 산림휴양과 건강</li> <li>- 자연휴양의 개념과 기능</li> <li>- 산림환경교육론</li> <li>- 왜 생태교육인가</li> <li>- 환경윤리</li> <li>- 녹색문화운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숲해설의 이해와 현장 전략</li> <li>- 숲해설과 자연체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숲해설 개론</li> <li>- 숲과 문화 자원 활동</li> <li>- 숲가꾸기</li> <li>- 숲생태학</li> <li>- 환경교육</li> </ul>
산림과 생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태학 개론(식물)</li> <li>- 산림과 생태계</li> <li>- 식물학(목본)</li> <li>- 식물학(초본)</li> <li>- 산림과 토양</li> <li>- 야생동물학</li> <li>- 곤충의 세계</li> <li>- 수서 생물학</li> <li>- 새들의 비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식물학 개론</li> <li>- 초본류의 이해</li> <li>- 야생동물학 개론</li> <li>- 들꽃구분과 생태</li> <li>- 목본류의 이해와 동정</li> <li>- 곤충의 생태</li> <li>- 조류의 생태</li> <li>- 도시생태의 이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양학</li> <li>- 초본(이론/실습)</li> <li>- 목본(이론/실습)</li> <li>- 조류(실습)</li> <li>- 야생동물(이론)</li> <li>- 곤충(실습)</li> <li>- 균류(이론)</li> <li>- 어류(실습)</li> </ul>
산림 환경 교육·교수 학습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숲생태체험 교육의 교육 방법</li> <li>- 식물자원과 인간의 관계</li> <li>- 숲을 보는 돋보기</li> <li>- 곤충과 인간과의 관계</li> <li>- 야생동물 보전을 위한 인간의 노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숲과 환경윤리교육</li> <li>- 교수방법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숲해설기법</li> <li>- 숲해설방법</li> <li>- 프로그램기획 나무 공작</li> </ul>
안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급처치 일반</li> <li>- 숲해설 안전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교육 및 응급처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급처치</li> </ul>
커뮤니케 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교육 운영을 위한 그룹 형성</li> <li>- 생태교육에서 커뮤니케이션</li> <li>- 그룹 커뮤니케이션 방법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효과적인 의사소통기술</li> <li>- 오감으로 느끼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놀이</li> <li>- 현장체험</li> </ul>
인간발달과 교육심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간의 발달단계</li> <li>- 인간발달에 따른 생태 교육 방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의 발달단계</li> <li>- 아동청소년 발달단계와 특성 교육심리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간발달과 교육 심리</li> </ul>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숲해설가 양성 프로그램은 담당 기관이나 단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특징적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 이유는 양성과정을 개설하고 교육내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이 이전의 다른 단체나 기관에서 했던 교육 내용들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비슷하게 구성되는 것이다.

다음은 숲해설가 양성과정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산림과 생태계 관련 교육과정을 세분화하여 지형·지질 관련 교육의 비율을 살펴보았다(표18).

표 18. 숲해설가 교육과정 분류

분류	식물	조류	곤충	수서	균류	야생동물	도시생태	지형·지질
숲연구소	4	1	1	1	-	1	1	1
숲해설가 협회	4	1	1	-	-	1	-	-
춘천	2	1	1	1	1	1	-	1
합계	10	3	3	2	1	3	1	2
비율	40	12	12	8	4	12	4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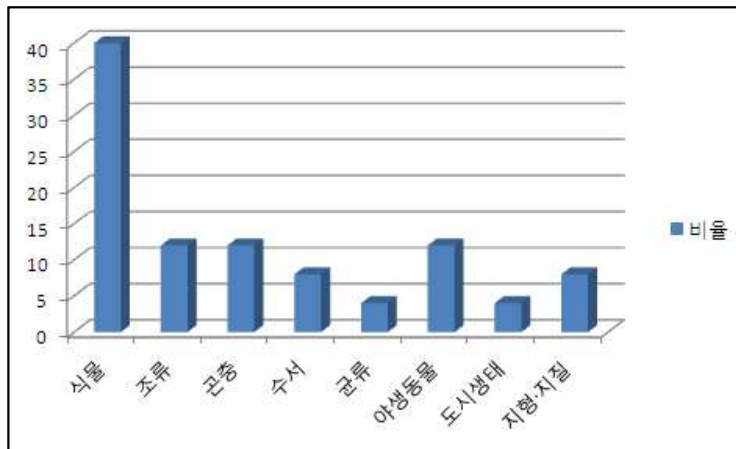


그림 19. 숲해설가 교육내용 비율

산림과 생태계 관련 교육은 생물자원 관련 내용이 92%이며 비생물자원 관련 수업은 8%이다(그림19). 숲의 생태는 비생물적 요소가 기반이 되어 생물자원이 자라고 있으므로 지형·지질의 중요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숲 생태의 전반을 구성하는 지형·지질 관련 교육이 거의 배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4. 소 결

국내 지오투어리즘 여건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와 국립공원 홈페이지를 분석하였으며, 국내 지형·지질 교육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지오투어리즘 관련 관광 해설가 양성 교육과정을 살펴보았다.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유형별 관광지로 분류된 자연 생태관광지 146개를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생물자원의 비율이 약 40% 이상이며 지형·지질 자원을 이용한 비생물자원은 6%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국내 지형·지질 자원이 다양하고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생태관광 상품 중 비생물적 자원을 중심으로 한 관광 상품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관광자원 해설 또한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되지 못할 뿐더러 해설의 내용도 암석의 형태와 전설 위주의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어 수준도 비교적 낮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일반 대중들의 지적 수준이 높아지고 관광도 전문화·세분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므로 국내 관광을 선도해 나가는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는 차별화된 관광지를 선정하고 관광지 안내 서비스의 양적·질적 수준을 높임으로써 관광 수요자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할 것이다.

현재 국립공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전국 국립공원 내 자연관찰로에서 제공되고 있는 해설판을 자원별로 분석해보면, 생물자원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생물자원은 4.5%로 매우 낮다. 이처럼 생물자원에 치우친 자연관찰로 해설판은 자연 인식의 틀을 왜곡시켜 국내 지오투어리즘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국립공원 자연관찰로에 지형·지질 관련 해설판을 보완·수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립공원에서 운영 중인 탐방프로그램은 대체로 자연생태, 역사·문화, 해양생태, 팜스테이, 템플스테이, 숲치료 등 6개의 주제로 분류하고 있으나 각 테마별 주제가 뚜렷한 특성이 나타나지 않고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비슷한 내용과 운영

방식을 보인다. 그러므로 향후 탐방 프로그램 개발 시에는 주제별 특성이 부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지형·지질 자원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지오투어리즘을 운영한다면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탐방 프로그램의 근간이 되는 지형 경관과 지질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 해설가의 육성이 필요하다.

관광 유형 중 지오투어리즘의 범주에 속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생태관광해설가, 숲해설가 양성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국내 지형·지질 자원 교육 여건에 대해 살펴보았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은 역사·문화 교육이 41.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자연생태 모니터링 관련 수업은 전체 수업 중 8.3%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생태관광해설가 교육과정에서 생물자원에 대한 교육의 비율은 77.2%로 높은 반면 비생물자원은 19.3%의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생태관광해설가에게 생태계가 생물자원이 중심이 된다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숲해설가 교육과정 수업에는 생물자원 관련이 92%이며 비생물자원 관련 수업은 8%이다. 숲의 생태는 생물적요소와 비생물적요소가 함께 공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숲생태의 전반을 구성하는 지형·지질 교육이 거의 배제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국내에서 제공되고 있는 해설가 양성과정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와 국립공원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생태관광지 안내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비생물자원보다 생물자원의 비율이 매우 높으며 국내 해설가 양성과정 또한 비생물자원의 수업 비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비생물자원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찰과 보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관광객의 올바른 생태계 인식을 위해서도 생물자원과 비생물자원의 균형잡힌 교육과정과 관광지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V. 국내 지오투어리즘 사례 연구

지오투어리즘의 목적중 하나는 관광객들이 자연경관 감상을 통해 지형·지질 자원에 대한 전문 지식과 환경 보호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다. 관광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설판, 팸플릿, 전문 가이드, 방문 센터나 전망 포인트와 다양한 지오 활동 등이 제공된다. 그 중 지오투어리즘 전문 가이드 투어는 지리학과 졸업생들에게 취업 기회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해 가장 효과적인 해설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지오투어리즘 연구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지형·지질 자원에 대한 전문 가이드 해설이 제공되는 곳을 사례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조건에 적합한 지역으로 제주도의 성산일출봉과 거문오름, 강원도의 DMZ 지오파크와 호야 지리 박물관이 있다.

###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지오투어리즘

#### 1) 제주도 성산일출봉 지오투어리즘

성산일출봉의 전문 가이드 투어 형태인 자연유산 해설은 성산일출봉 대표소부터 분화구까지 해설가와 관광객이 함께 동반하며 시간은 약 40분 정도 소요된다. 지형·지질관련 해설은 전망대, 등반로, 육계사주, 성산일출봉 분화구까지 4개의 사이트로 약 20분 분량의 해설이 제공된다.

첫 번째 사이트는 성산일출봉 전체를 측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전망대로 해안 벽면에 스코리아들이 엉겨 붙은 집괴암을 관찰할 수 있다. 지하에서 상승하던 마그마의 상부에는 가벼운 기체가 많이 집적되어 있는데, 화산 분출 초기에는 이 기체가 포함된 많은 현무암 덩어리들이 분수와 같은 형태로 뿜어져 나온다. 이 암석을 스코리아로 부르거나 기공이 많아 제주어로 ‘송이’라고 부른다.

두 번째 사이트는 등반로 주변에 수직으로 서 있는 등경돌, 곰바위, 초관바위

등이다. 등경들은 제주섬을 창조한 설문대 할망과 고려말 원나라로부터 나라를 지킨 김통정 장군에 관련된 전설로 알려진 곳이다. 자연유산 해설가 역시 이 독특한 바위들의 형성 원인보다는 전설에 초점을 맞추어 해설을 제공하고 있다.

세 번째 사이트는 성산일출봉의 육계사주에 관한 해설이다. 성산일출봉 응회구는 약 오천 년 전 얽은 바다에서 분출이 일어나 만들어졌다. 분출 직후의 일출봉은 하나의 섬이었으나 수천 년 동안 파도에 깎여 크기가 작아졌고, 깎여 나간 물질은 남서쪽으로 운반되어 제주도의 동쪽 연안에 쌓였다. 그로 인해 일출봉은 제주도과 연결되었으며 현재와 같은 연안 지형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 과정은 해설판의 모식도, 실제 지형 조망과 함께 자연유산해설까지 더해져 일반 관광객들의 이해를 돕는 데 효과적이다(그림20).



그림 20. 성산지역의 해안지형 변화 해설판

마지막 사이트는 성산일출봉의 분화구이다. 성산일출봉은 높이 약 182m, 분화구의 직경이 약 600m, 남북으로 350m, 분화구의 둘레는 약 1.7km로 99개의 봉우리로 구성되어 있어 하늘에서 보면 마치 왕관과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

다. 성산일출봉은 수성폭발로 형성되어 주변이 팝콘같은 스킨아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쉽게 훼손될 수 있으므로 특별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

자연유산 해설의 주요 4개의 사이트 중에서도 등반로 지점은 암석의 전설에만 의존하고 있어 실제 지오투어리즘적 해설은 3개의 사이트에서만 제공된다고 볼 수 있다.

## 2) 제주도 성산일출봉 지오투어리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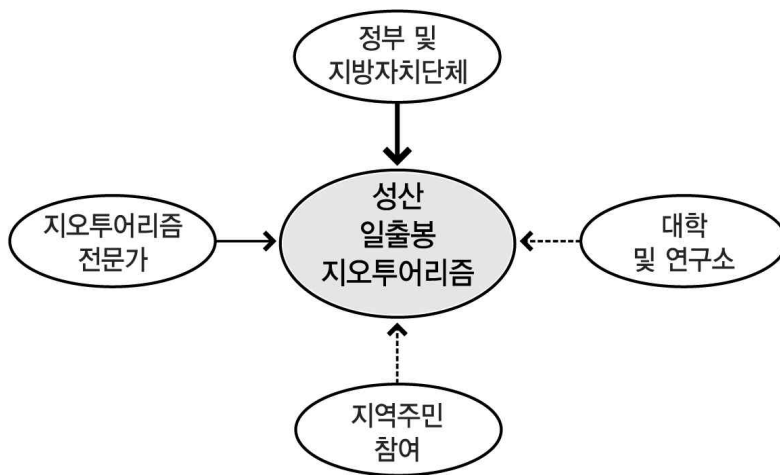


그림 21. 제주도 성산일출봉 지오투어리즘 운영주체 분석

성산일출봉 지오투어리즘 운영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화살표가 두꺼울수록 관련성이 높다(그림21). 성산일출봉은 세계자연유산지구인 동시에 지오파크로 선정된 곳으로, 2011년부터 제주도 세계자연유산관리 본부에서 세계자연유산과 지오파크를 통합하여 관리·운영하고 있다. 세계자연유산지구로 선정되면서 제주도청에서 세계자연유산 해설가를 양성하고 있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지오투어리즘 전문가는 가이드 양성 교육을 담당하고 있어 성산일출봉 지오투어리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대학 및 연구소와 지역 주민 참여는 비교적 미약한 편이다.

성산일출봉의 지오투어리즘을 바탕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제주도 성산일출봉 SWOT 분석을 하였을 때, 제주도 지역의 내부적 환경요인의 강점과 약점, 외부적 환경요인의 기회와 위협의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표19).

표 19. 제주도 성산일출봉 지오투어리즘 SWOT 분석

Strengths(강점)	Weakness(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가 지오파크로 인증됨</li> <li>• 관광특구 지역으로 관광 인프라가 구축됨</li> <li>• 자연유산 해설가 일자리가 창출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오파크에 가이드 투어 활동 부족</li> <li>• 지오투어리즘 전문가 부족</li> <li>• 지형·지질 관련 교육 예산 감축</li> </ul>
Opportunities(기회)	Threats(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자연유산 지정 이후 관광객 증가</li> <li>• 국가 지오파크 운영을 규정한 자연공원법 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7대 자연 경관에 밀려 세계지오파크 후속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이 소극적임</li> </ul>

제주도의 내부적 환경 요인의 강점은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제주도는 유네스코가 인증한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선정에 이어 세계지오파크로 지정되면서 '트리플 크라운'의 영예를 차지하게 되었다. 제주도의 세계지오파크 인증은 국내에서는 처음이며, 아시아에서는 다섯 번째에 해당한다. 또한 한 지역이 유네스코의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오파크로 모두 인증받은 곳은 세계적으로 제주도가 유일하다. 특히, 세계지오파크는 세계자연유산이나 생물권보전지역과 달리 행위 제한이 강하지 않다. 따라서 생태계 보호뿐만 아니라 지역 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 주민의 소득창출을 목표로 할 수 있으며 지형·지질 명소나 장소 이외에는 특별한 행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역 주민의 거부감이 적다. 오히려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로 다양한 지오투어리즘과 교육 프로그램, 지역 주민 전문 가이드 양성, 특산품 개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둘째, 제주도는 1960년대 이후 한국의 대표적 관광지로서, 지오투어리즘으로

성장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제주도 내 탐방안내소만 해도 총 7개로 기존에 위치한 탐방안내소를 이용하면 지형·지질 자원 안내 센터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세계자연유산 해설가를 국내 처음으로 양성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오투어리즘 전문 가이드 양성에 기본 틀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현재 제주도에서는 ‘자연유산해설가’ 양성을 통해 200여명의 새로운 일 자리를 창출하였다.<sup>61)</sup> 따라서 전문 가이드 양성은 지역 내 새로운 일 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된다.

제주도의 내부적 환경요인의 약점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지오파크로 인증을 받은 제주도는 9개의 지형·지질 명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성산일출봉과 만장굴 외에는 전문 가이드에 의한 해설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지오투어리즘 전문 가이드 양성을 위한 전문가가 부족하다. 현재 제주도는 지질학 박사 두 명에 의해서 지역 주민 교육과 가이드 양성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많은 지형·지질 명소가 있어 지오투어리즘 운영에 적합하므로 두 명의 지질학 박사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다. 따라서 전문 가이드 양성을 위한 지형·지질 분야의 전문가 확보와 적절한 배치가 필요하다.

셋째, 지형·지질 관련 전문 가이드 교육 예산지원이 감축되고 있다. 제주도청 산하 제주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에서는 관광관련 예산 중 해설가와 가이드 교육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으며 2011년에는 관광 해설가 및 안내원 교육 예산을 ‘인재 개발원’에서 편성하고 있다. 게다가 2010년 대비 2011년의 경우 지형·지질 및 자연유산 해설가와 관광 해설가 교육 예산 비율이 2.5% 감축된 실정이다. 지오투어리즘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 전문 가이드 양성 교육을 위한 예산투자의 확보가 시급하다(표20).

---

61) 조승원, “세계자연유산 등재 후 3년...성과와 과제는?,” 미디어 제주, 2010. 6. 27.

표 20. 해설가 관광안내원 양성 관련 예산

(단위:백만원)

2010년			2011년		
관광관련 예산	교육 예산	비율	관광관련 예산	교육 예산	비율
16,009	884	5.5%	16,220	491	3.0%

출처: 제주도청 내부 자료 (2011)

제주도의 외부적 환경요인의 기회 요인은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세계자연유산 지정으로 제주도의 국·내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지오파크 인증을 계기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세계자연유산 등재로 불과 3년 만에 내국인 관광객이 크게 증가한 데서도 이를 예상할 수 있다(표21). 이러한 관광객 증가는 지오투어리즘이 일반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관광유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표 21. 제주도 내국인 관광객 입도 현황

(단위: 천명)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관광객수	4,614	4,852	4,888	5,281	5,891	6,801

출처: 제주도청 문화관광과 (2010)

둘째, 국가 지오파크 운영 등을 규정한 자연공원법이 개정되었다.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에 지오파크를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가 지오파크를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지오파크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해설사를 선발하고 양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오파크 및 지오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한 전문해설가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과 인프라 구축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제주도의 외부적 환경요인의 위협으로는 세계 7대 자연 경관에 밀려 세계지

오파크 후속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이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011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계 7대 자연 경관 선정을 위한 홍보에는 수십억 원을 제공한 반면 유네스코 지오파크 후속사업에는 적절한 예산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제주도의 세계 7대 자연 경관 홍보 마케팅 사업비로 관광정책과에 10억 원을 편성했고 관광 진흥기금에도 5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해외 홍보를 위한 비용으로 4억 7,000만 원을 편성, 세계 7대 자연 경관 홍보 비용으로만 20억 원 가까이 책정했다. 반면 제주도에서는 세계지오파크 인증으로 생물권보전지역과 세계자연유산과 더불어 세계 최초로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의 쾌거를 달성한 이후 안타깝게도 후속 대책을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2011년 예산안에서 세계지오파크 인증 1주년 기념 관련 사업비 3,000여만 원 만이 책정되었다.<sup>62)</sup>

세계지오파크는 인증 후 평가가 매우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증 후에는 4년마다 활동을 평가해 취지와 맞지 않을 경우 개선을 권고하고 그 후에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오파크 네트워크에서 삭제시키고 있어 관리가 매우 엄격한 편이다. 이처럼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지오파크에 관한 예산 확보에 매우 소극적이라면 제주도의 세계지오파크 인증으로 얻은 유네스코 3관왕의 의미와 효과를 스스로 반감시키게 될 것이다. 지오파크 인증을 위한 준비과정과 노력이 한시적으로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

62) 위영석, “7대경관엔 ‘평평’ 지질공원은 ‘찢끔,’” 한라일보, 2010. 11. 15.

## 2. 대학 주도형 지오투어리즘

### 1) 강원도 DMZ 지오투어리즘

강원도 DMZ 지오파크의 공간적 범위는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으로 전역이 접경지역에 속하는 지역이다. 총 면적은 4,818.69km<sup>2</sup>로 강원도 전체면적(16,873.61km<sup>2</sup>)의 28.6%를 차지하며, 총 연장 238km(약 148마일)의 군사분계선 중 약 159km와 접하고 있다. 이는 군사분계선 총 연장의 약 67%에 해당한다(그림 22).<sup>63)</sup>



그림 22. 강원도 DMZ 지오파크의 공간적 범위

출처: 강원도 DMZ 지오파크조성사업단, 2010, 인터프리터 현장실습 자료집, P9.

DMZ 지오파크는 70여 개의 지오사이트를 선정하여 검은내길, 우뚝바위길, 모래뭇길이라 부르는 지오투어리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sup>64)</sup> 지오투어리즘 프로그램 중 검은내길의 주요 지오사이트는 직탕폭포~순담계곡~고석정~대교천 현무암 협곡 사이트로 구성되어 있다.

한탄강 상류에 위치한 직탕폭포는 높이는 3m에 불과하지만 너비는 50~60m에 이른다. 옆으로 길게 낙하하는 폭포는 장엄하고 아름다워 일명 ‘한국의 나이

63) 강원도 DMZ 지오파크조성사업단, 2010, 인터프리터 현장실습 자료집, p. 9.

64) 강원도 DMZ 지오파크조성사업단, 2011, 지리공원, 대한지리학회 발표 자료집, p. 11.

아가라 폭포'라고 불리며 철원 8경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또한 직탕폭포는 다른 곳의 폭포와는 다르게 용암층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이 특징이다. 마그마가 분출한 이후 지표를 흐르던 용암이 굳어져 용암층을 만들고, 그 위로 다시 용암이 흐르고 또 다른 용암층이 만들어진 곳에 오랫동안 물이 흐르면서 풍화와 침식작용을 받으면 용암층의 한 부분이 수직으로 생긴 틈을 따라 떨어져 나가면서 계단 모양의 지형과 폭포가 형성되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생성된 직탕폭포는 시간이 흐를수록 두부침식으로 인해 폭포가 뒤로 후퇴 중이다.

고석정 일대는 구하도<sup>65)</sup>의 흔적을 파악할 수 있는 곳으로, 용암 분출 이전의 기반암이었던 화강암 지역의 골짜기를 현무암이 메운 후에 생성된 한탄강의 새로운 물길이 두 암석의 접촉부를 깎으면서 지금의 한탄강 물길이 만들어졌다.

순담계곡은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수평·수직절리의 발달이 탁월하며, 특히 관상절리의 발달이 현저하다. 이는 화강암이 온도와 압력이 매우 높은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지형·지질적 특질이다.

한탄강의 지류인 대교천 계곡은 좁고 깊어서 협곡이라고 부르며, 총 길이는 1.5km이다. 한탄강의 여러 계곡 중에서 드물게, 하천의 바닥과 양쪽 절벽이 모두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협곡을 이루는 현무암의 두께는 평균 25m로 다른 곳에 비해 매우 두껍다. 절벽에는 두께가 2~10m인 3개의 용암층을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적어도 세 번 정도의 용암이 흘러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교천 협곡의 하식애에는 여러 절리가 발달하였는데, 그 중 기둥 모양의 주상절리, 수평 모양으로 쪼개진 관상절리, 부채꼴 모양의 방사성 절리 등이 특징적이다. 특히, 이곳의 방사성 절리는 흐르던 용암이 식을 때 밀리거나 회전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밖에 대교천과 한탄강의 합류점에서는 물의 침식작용으로 만들어진 포트홀, 하식동굴 등의 미지형이 잘 관찰된다.

---

65) 과거에 강이 흘렀던 곳으로 지금은 물이 흐르지 않는 곳. 평탄한 지역을 흐르는 산지나 구릉지의 골짜기를 따라 흐르는 감입곡류 하천 또는 자유곡류 하천에서 자주 나타남.

## 2) 강원도 DMZ 지오투어리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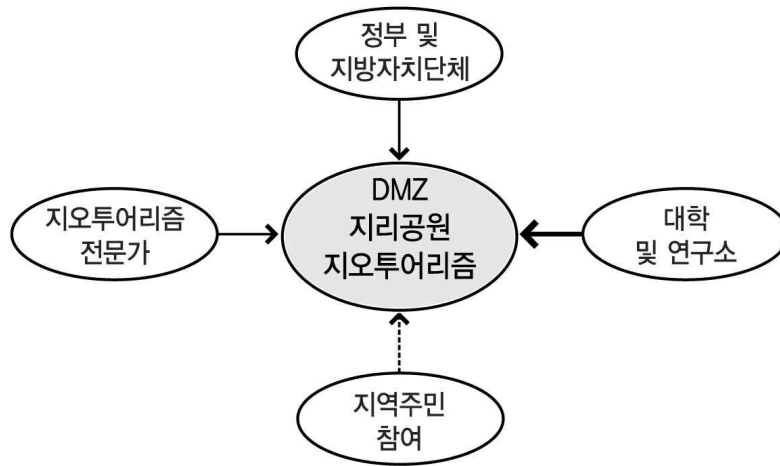


그림 23. 강원도 DMZ 지오투어리즘 운영주체 분석

강원도 DMZ 지오투어리즘 운영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화살표가 두꺼울수록 관련성이 높다(그림23). 강원도 DMZ 지오투어리즘은 대학 주도형으로 지오사이트를 직접 개발하고 해설가를 양성하고 있다. 두 번째로 영향을 미친 것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 2009년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5+2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 번째로 지형·지질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지오투어리즘 전문 가이드 교육을 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강원도 DMZ 지오투어리즘을 대상으로 SWOT 분석을 이용하여, 내부적 환경요인의 강점과 약점, 외부적 환경요인의 기회와 위협 요인들을 분석하여 대학 주도형 지오투어리즘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표22).

표 22. 강원도 DMZ 지오투어리즘 SWOT 분석

Strengths(강점)	Weakness(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에서 지오투어리즘 가이드 교육 담당</li> <li>• 전문 관광업체가 지오투어리즘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오투어리즘 가이드 교육 부재</li> <li>• 다양한 지형·지질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시기를 놓침</li> </ul>
Opportunities(기회)	Threats(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MZ 지오파크 조성사업 선정</li> <li>•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DMZ 개발 사업에 대한 적극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경지역의 관광인프라 부족</li> <li>• DMZ 지오파크 조성사업 이후 지오투어리즘 가이드 양성 관리 문제</li> </ul>

강원도 DMZ 지역의 내부적 환경요인의 강점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형·지질 관련 대학에서 사이트 개발 및 지오투어리즘 가이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강원도 DMZ의 공간적 범위인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의 접경지역에 속하는 지역의 지오사이트를 개발하고 지형·지질 전공 인력을 활용하여 지오투어리즘 프로그램과 해설을 위한 스토리텔링을 구성하고 있어 관광객들에게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받은 지리공원 조성사업비 10억 중 6%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역 주민 교육 및 전문 가이드 해설가 양성을 위해 책정해 두고 있다.

둘째, 지오투어리즘 상품을 전문 관광업체와 MOU를 체결함으로써 좀 더 전문적인 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오파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양성된 지오투어리즘 전문 가이드가 해설을 담당하고, 지오투어리즘 상품 운영은 관광업체가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형태다.

반면 내부적 환경요인에는 간과할 수 없는 두 가지 약점이 있다.

첫째,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오투어리즘 가이드 교육과정 구성이 필요하다. 지오투어리즘 가이드 교육은 기초 교육, 현장 실습, 보수 교육으로 1년에 총 3회 60시간 무상교육이며, 기초 교육은 2박3일 동안 총 15시간으로 이루어진

다.66) 지오투어리즘 가이드 양성 교육에서 현장 실습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은 편이나 기초 이론 교육의 경우 DMZ 지형·지질 교육이 단 하루 5차시만 제공되고 있어 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이 매우 미흡하다. 지형·지질 관련 지식이 없는 일반 사람들을 가이드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단 기간에 많은 분량의 내용을 제공하는 단기적 일회성 교육보다는 지속적인 보수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강원도 지형·지질 자원은 국내 자연 경관의 축소판으로 평가되는 지형·지질학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자원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 개발의 많은 제약으로 비교적 지오투어리즘 프로그램 개발이 늦은 편이다.

강원도 DMZ 지역의 외부적 환경 요인의 기회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오투어리즘은 DMZ 관광의 새로운 관광 유형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DMZ 관광은 안보관광으로서 내국인들의 반공의식 고취와 국민 안보교육을 위하여 전적비, 전적지, 전시관, 교육관, 땅굴 등이 관광 대상으로 제공되어 관광 내용이 단조롭고 정적이어서 관광자원으로서 큰 매력을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강원도 DMZ 지오투어리즘은 지금까지의 단조로운 DMZ 관광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 줄 것이다.

둘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학계·민간단체 등이 DMZ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30년까지 18조 8천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비무장지대(DMZ) 일대를 생태관광 벨트로 육성하고 동서 녹색 평화 도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DMZ 일원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접경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관광, 인문·역사 등 다양한 자원을 조사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키로 했다.67) 또한 ‘강원 10대 브랜드 함께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국토 정중앙인 ‘대한민국의 배꼽’ 양구군을 브랜드화하기 위해 ‘지리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68) 이러한 사업을 통해 국내 지오투어리즘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66) DMZ 지오투어리즘 인터프린터 양성 교육과정 부록 참조.

67) 장하나, “정부, DMZ 일대 생태관광벨트로 육성,” 강원일보, 2011. 7. 27.

68) 강원도민일보, “강원 10대 브랜드 사업 이런 성과 거뒀습니다.” 2009. 11. 26.

외부적 환경 요인의 위협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DMZ 지리공원 조성사업 이후 양성된 지오투어리즘 가이드 교육 사후 관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강원도 DMZ 지리공원 조성사업 일환으로 실시되는 지오투어리즘 가이드 양성 프로그램은 기존 문화관광해설가의 보수 교육과 신규 지오투어리즘 가이드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지오파크 조성사업은 2010년 7월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이루어질 계획이고 2011년 4월에 지오투어리즘 가이드 양성을 위해 기초 교육과 현장 실습이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2013년 지리공원 조성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는 지오투어리즘 가이드 양성 교육 운영에 관한 계획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지오투어리즘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는 신규 해설가 양성 뿐만 아니라 기존 해설가들에게 지속적인 보수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전문성을 향상시켜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강원도 DMZ 지리공원 조성사업 이후 지오투어리즘 가이드 양성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원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후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접경지역의 관광인프라가 부족하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DMZ 정주환경 마련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계획에 의해 마련된 보조금으로는 50년 동안 정체되었던 접경지역의 낙후화를 개선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접경지역의 투자와 개발이 단기적이고 급속한 개발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관광 인프라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 3. 개인 전문가형 지오투어리즘

#### 1) 호야 지리 박물관 지오투어리즘

호야 지리 박물관은 퇴직한 지리 교사가 사재를 털어 박물관을 세운 것으로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무릉리에 위치해 있다. 2007년 5월 4일에 국내 최초 지리 전문 박물관을 건립하였으며, 2009년에 지오토피아관을 준공함으로써 상설 전시관과 체험학습실, 수장고 등을 구비한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전시 전용 면적은 상설전시관이 390m<sup>2</sup>, 지오토피아관이 500m<sup>2</sup>으로 총 890m<sup>2</sup>의 규모이다. 전시물들은 주제별로 분류, 배치하고 있는데 1층에는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시청각실, 휴게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종 고지도와 지도책을 비롯하여 지구의 와 지형 모형, 지리 관련 퍼즐과 블록, 항해용품, 토양·광물·암석 등의 컬렉션을 전시하고 있다. 2층에는 세계 각지의 민속품과 민속 의상 등을 전시하였고 과거 지질 시대에 살았던 고생물의 화석을 통해 지구 역사를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호야 지리 박물관은 다른 박물관과는 차별적으로 ‘지리트레킹’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리 참가 신청을 받아 지리 박물관 관장과 함께 영월 지역 일대를 답사한다. 보통은 단체로 신청을 받기도 하지만 가족 단위의 신청도 받고 있다. 지리트레킹은 호야 지리 박물관만이 운영하는 최고의 지리 체험 학습 프로그램으로 2010년에 지리트레킹만 100여 회, 참여 인원만 3,500여 명에 이르는 프로그램이다.<sup>69)</sup> 지리트레킹은 강원도 영월의 지형·지질 자원을 직접 보고 느끼며 체험할 수 있도록 소책자와 전문 가이드 해설 형태로 운영되는 지오투어리즘이다. 지리트레킹은 4개의 코스로 운영되고 있으며 호야 지리 박물관에서 출발한다(표23).

---

69) <http://www.geomuseum.co.kr>

표 23. 영월 지리트레킹 코스

구분	답사 코스
제1코스 (1시간 30분)	호야 지리 박물관 - 시멘트 공장 - 돌리네 - 라피에 - 선돌(하안단구) - 청령포(감입사행천) - 방절리(구하도)
제2코스 (2시간 30분)	호야 지리 박물관 - 시멘트 공장 - 돌리네 - 라피에 - 한반도 지형 - 선돌 - 청령포 - 방절리(구하도)
제 3코스 (3시간 30분)	호야 지리 박물관 - 요선정·요선암 - 시멘트 공장 - 돌리네 - 라피에 - 한반도 지형 - 문곡리(스토로마톨라이트) - 선돌 - 청령포 - 방절리(구하도)
제4코스 (4시간 30분)	호야 지리 박물관 - 요선정·요선암 - 시멘트 공장 - 돌리네 - 라피에 - 한반도 지형 - 문곡리(스토로마톨라이트) - 요봉리 역암층 또는 마차리 광산문화촌(건설 중) - 선돌 - 청령포 - 방절리(구하도)

출처: 호야 지리 박물관 홈페이지(<http://www.geomuseum.co.kr>)

영월 지리트레킹의 주요 지오사이트는 일반 지형인 하천 지형과 특수 지형에 해당되는 카르스트 지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석회암은 영월에 시멘트 공장이 입지한 원인을 한국의 지질구조와 관련하여 해설한다. 카르스트 지형에서 관찰될 수 있는 석회암 용식작용을 통해 형성된 돌리네와 테라로사가 발농사로 이용되는 것을 확인하고, 싱크홀의 역할, 석회동굴 형성과정 등을 통해 국내 카르스트 지형에 관한 전체적인 해설이 제공된다. 암석의 절리 현상을 볼 수 있는 선돌은 영월읍 방절리 서강안에 절벽을 이룬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날골과 남애 마을 사이에 높이 70m 정도의 큰 바위를 말한다. 선돌은 일명 신선암이라고도 하며 마치 큰 칼로 절벽을 쪼개 내려다 그친 듯 한 형상으로 암석의 절리 현상을 볼 수 있다. 선돌 사이로 관찰되는 하안단구는 플라이스토세의 기후 변화(빙기와 간빙기)에 따른 유수량의 변화에 기인한 침식과 하상면 융기의 반복 작용으로 퇴적층이 융기 과정에서 하천 침식을 받아 형성된 계단상의 지형이다 (그림24).



그림 24. 선들 및 하안단구 관찰 전망대

하천지형으로는 청령포의 감입사행천, 유로 변경에 따른 구하도의 형성 과정과 방절리 구하도의 토지 이용 등을 소책자의 지형도와 비교하면서 해설해 준다.

요선정과 요선암의 감입곡류하천 모습, 하천 상류에서 관찰되는 자갈의 크기, 하천 폭, 유속과 하천의 마식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포트홀에 관한 해설이 제공된다. 한반도 지형은 감입곡류하천에 의해서 형성된 지형이 마치 한반도를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최근 이 지역은 서면에서 한반도면<sup>70)</sup>으로 지명을 바꾸면서 지형·지질 자원의 활용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질학적 요소로는 요선정과 요선암의 암석의 특징, 석회암 분포 지역의 지질 시대, 영월 문곡리 스트로마톨라이트와 건물구조가 있다. 이는 천연기념물 제 413호로 약 4~5억 년 전에 생긴 오르도비스기 하부 고생대 지층에서 발견되었으며, 건물구조는 얇은 물 밑에 쌓인 퇴적물이 물 위로 나와 마를 때, 퇴적물이 줄거나 오그라들면서 생긴 틈이 그대로 굳어져 형성된 지질구조로 퇴적 당시 퇴적물 내에 존재하던 퇴적물 구조가 잘 나타내고 있다.<sup>71)</sup>

70) 한반도면(韓半島面)은 대한민국 강원도 영월군의 면이다. 넓이는 69.87km<sup>2</sup>이고, 인구는 2008년 기준으로 3,425명이다. 이전의 이름은 서면(西面)이었으나, 2009년 10월 20일에 현재와 같은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명칭은 용정리 선암마을 인근의 평창강 지형이 마치 한반도를 닮은 형태를 보이는 것에서 유래하였다.

71) 공달용 · 이성주, 2009, “천연기념물 제413호 영월 문곡리 스트로마톨라이트에 대한 고찰,” 지질학회지 45(6): 711-723.

2) 호야 지리 박물관 지오투어리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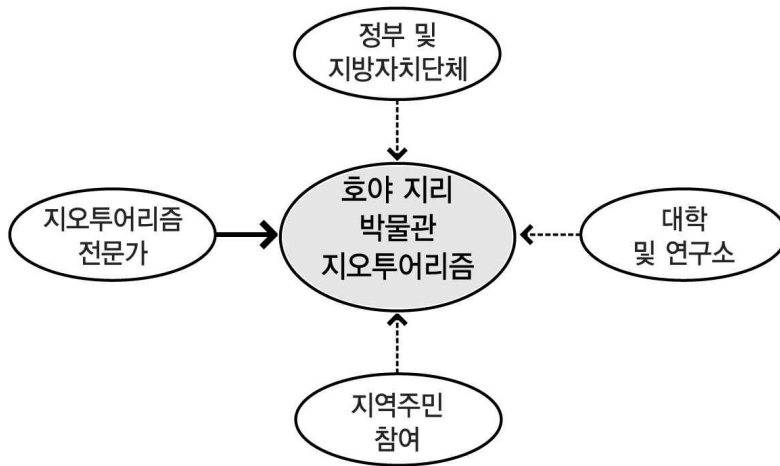


그림 25. 호야 지리 박물관 지오투어리즘 운영주체 분석

호야 지리 박물관 지오투어리즘 운영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화살표가 두꺼울 수록 관련성이 높다(그림25). 개인 전문가형 지오투어리즘으로 지리박물관과 지리트레킹을 운영하고 있다. 그 외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연구소, 지역 주민 참여적 요소는 미비한 편이다.

다음으로 강원도 영월의 호야 지리 박물관의 지오투어리즘을 SWOT 분석을 이용하여, 내부적 환경요인의 강점과 약점, 외부적 환경요인의 기회와 위협의 요인들을 분석하여 살펴보고자 한다(표24).

표 24. 호야 지리 박물관 지오투어리즘 SWOT 분석

Strengths(강점)	Weakness(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오투어리즘 활동이 박물관 체험학습과 함께 이루어짐</li> <li>• 지오투어리즘 가이드 활동에 대한 해설비를 받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및 학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족</li> <li>• 지오투어리즘 전문가 부족</li> <li>• 지오사이트간의 접근성 부족</li> </ul>
Opportunities(기회)	Threats(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원도 영월의 다양한 지형·지질 경관을 보유함</li> <li>• 2012년 지오파크 조성사업 계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형·지질 자원 훼손에 대한 위협</li> </ul>

내부적 환경요인의 강점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호야 지리 박물관은 국내 최초 지리 박물관으로 지형·지질 등 지리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 등을 직접 체험하고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리트레킹을 통하여 현장에서 직접 확인을 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

둘째, 지리트레킹 운영 시 전문 가이드 해설비를 받고 있다. 지리트레킹 해설비는 개인당 1만 5천원으로 숙식비와 차량비는 별도이다. 임대 차량을 쓸 경우에는 1인당 2만원의 참가비를 받고 있다. 지리트레킹은 인터넷 접수를 통한 예약제로 이루어지며, 가족단위에서 단체에 이르기까지 지리트레킹에 참여할 수 있다. 지형·지질 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지리트레킹 참가자는 매년 늘어가는 추세이다. 이러한 사례는 국내 지오투어리즘 전문 가이드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는 좋은 사례이다.

내부적 환경 요인의 약점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리트레킹은 지형·지질적으로 다양한 사이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전문 인력에만 의존하고 있다. 전문 가이드 및 박물관 관리에 필요한 인력이 없어 대부분 박물관 관장이 직접 가이드와 박물관 관리를 하고 있다. 비록

사설 박물관이지만 이 박물관의 공공적 측면을 고려하여 정부의 예산 지원과 전문 가이드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학계의 지속적인 연구와 지원이 부족하다. 관장의 관심과 역량에 기대어 교육 부문에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박물관 발전에 필수적인 연구 기능이 많이 부족하다. 국내 최초의 지리 박물관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형·지질 관련 학계의 연구 활동이 연계되어 새로운 지오사이트 개발과 프로그램을 보완 발전시킬 수 있는 전문적인 연구가 동반되어야 한다.

셋째, 호야 지리 박물관과 지오사이트 간의 접근성의 문제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는 박물관에 도착할 수 없으며, 다양한 지오사이트 간의 접근성도 떨어져 차량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인용 차량이나 단체의 경우 관광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므로 교통 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외부적 환경 요인의 기회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강원도 영월의 지형·지질 자원을 이용하여 다양한 지오사이트를 개발할 수 있다. 영월에는 이미 널리 알려진 석회암 동굴인 고씨동굴, 동강래프팅, 어라연계곡 등의 관광자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리적으로 볼 때 카르스트 지형이 잘 발달된 곳이다. 그리고 감입사행천과 하안단구와 같은 용기지형의 흔적과 폐광이 있다. 해외의 경우 폐광을 지오투어리즘의 잠재적인 관광 자원으로 인식하여 지역 경제 성장의 발판으로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폐광을 석탄박물관과 함께 또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영월 자체가 하나의 지리 박물관이 될 수 있으며 지리트래킹을 통해 박물관의 입지 조건을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2012년에는 지오파크 조성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강원도 영월은 국내 최대 석회암 지대의 정체성을 살려 올해부터 2014년까지 105억 원을 투자하여 카르스트 지오랜드 조성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카르스트 지오랜드에는 관내 전역이 대상이 되며 지오파크, 지질문화박물관, 카르스트 교실, 미니 지오

랜드, 상설 자연사학습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sup>72)</sup> 이러한 지오파크 조성사업으로 강원도 영월의 지오투어리즘이 활성화 될 것이다.

외부적 환경 요인의 위협으로는 전문 인력 부족으로 지리트레킹 운영에 의한 지형·지질 자원이 훼손될 수 있다. 지오투어리즘은 야외 체험 활동이므로 많은 주의와 관리가 요구된다. 하지만 개인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경우에는 지형·지질 자원 보전에 소홀해질 수 있다. 따라서 지리트레킹을 즐기면서도 환경 보전 인식과 지형·지질 자원 훼손 방지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4. 지역 주민 참여형 지오투어리즘

##### 1) 제주도 거문오름 지오투어리즘

거문오름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거문오름 국제트레킹대회를 시작으로 새로운 생태관광지로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거문오름 탐방은 사전예약제로 세계자연유산 홈페이지<sup>73)</sup>에서 접수받고 있으며, 일일 관광객 인원수를 정하여 오전 9시에서 정오 12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자연유산 해설은 분화구 코스와 자을 탐방 코스로 나누어지는데 분화구 코스는 2시간 정도 소요되며 자연유산 해설가가 동반되지만 자을 탐방은 1시간 30분 코스로 별도의 해설 없이 운영된다.

거문오름 탐방코스는 분화구 내부와 정상부 능선을 따르는 순환 코스로, 탐방안내소~용암협곡~알오름전망대~숯가마터~화산탄~수직동굴~9개봉우리~탐방안내소까지 이어지는 8km 코스이다. 분화구 내부는 용암협곡과 풍혈, 화산탄 등 지형·지질 자원과 함께 숯가마터, 일본군 동굴 진지 등 문화·역사까지 포함된 전문 해설이 제공된다(그림26).

72) 김광희, "국내 최대 석회암지대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 강원일보, 2010.11.10.

73) <http://jejuwnh.jeju.go.kr>



그림 26. 전문 가이드에 의한 해설

자연유산 해설가는 전체적인 코스와 거문오름 탐방 시 지켜야 할 유의 사항에 대해 꼼꼼하게 설명한다. 거문오름 탐방 시 물 이외의 모든 음식물 반입 금지하고 등산용 스틱, 구두, 샌들, 슬리퍼 착용을 금지한다. 또한 우천 시 우비와 등산화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초입 부분에서 현무암의 파호이호이 용암과 아아 용암의 분류와 특징을 설명하고, 제주도의 지형·지질에 대해 거문오름이나 용암동굴 같이 단편적인 지식에 대해 설명하기보다는 제주도를 한라산부터 해안저지대까지 이루어진 하나의 화산섬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곳자왈은 제주도 말로 ‘곳’은 숲이고 ‘자왈’은 돌무덤으로 버려진 땅에 씨들이 발아하여 숲을 이룬 곳이라는 해설을 제공한다. 거문오름의 지형·지질 자원 주요 코스는 용암 협곡~용암 함몰구~화산탄~거문오름 분화구 전망대~풍혈~선흘수직동굴 사이트다.

용암 협곡은 분석구로부터 지속적으로 용암이 공급되면서 용암류의 표면이 먼저 굳고, 내부에는 용암이 계속적으로 공급되어 동굴을 형성하고, 이후 동굴의 천장이 무너지면서 협곡을 형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화산탄은 지하 맨틀에 흘러들어온 용암에 광물석, 휘석, 장석 등의 광물질이 포획되어 있는 형태로, 원래는 고구마 형태이나 굳지 않은 용암이 흐르다가 딱

떨어져 같이 흘러가면서 원형으로 마모되었다(그림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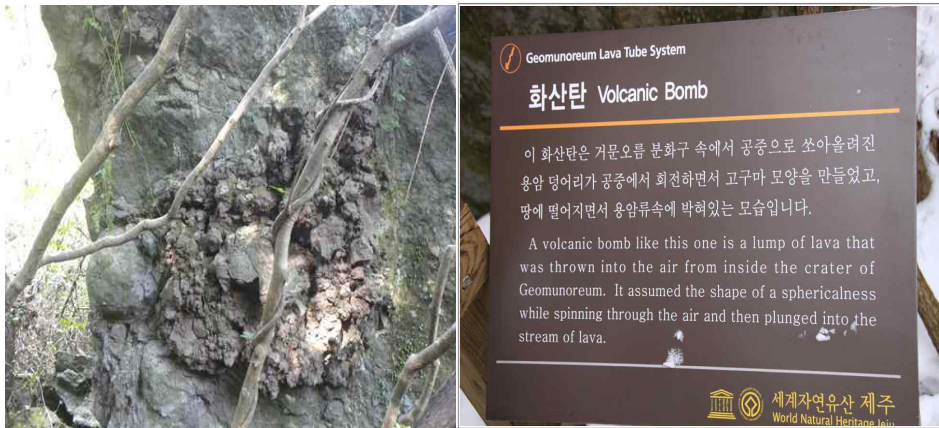


그림 27. 거문오름의 화산탄과 해설판

풍혈은 분화구 내에서 다량의 낙반이나 암석들이 성글게 쌓여 있는 틈 사이에서 바람이 나오는 곳이다. 대기 중의 공기는 이 암석들의 틈 사이를 지나면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게 되는데, 암석의 틈 사이를 지나 빠져 나오는 공기는 일정한 온도를 띠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시원하고 겨울철에는 따뜻한 미기후를 형성하게 된다. 선홀수직동굴은 천연동굴로 깔대기를 뒤집어 놓은 모양으로 일반적인 용암동굴이 수평으로 발달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수직으로 발달한 독특한 형태의 동굴이다. 입구 직경은 약 2~3m이며, 깊이는 약 35m로 동굴 속에는 현재 멸종된 사슴의 뼈가 발견되어 동굴의 형성시기가 오래되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2) 제주도 거문오름 지오투어리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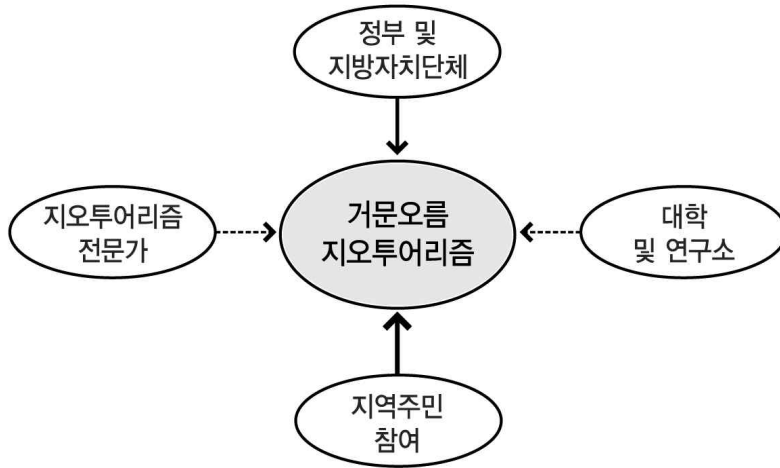


그림 28. 제주도 거문오름 지오투어리즘 운영주체 분석

거문오름 지오투어리즘 운영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화살표가 두꺼울수록 관련성이 높다(그림28). 지역 주민 참여형으로 거문오름 지오투어리즘 운영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 다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으로 지역 주민이 자연유산 해설가 양성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그 외에 대학 및 연구소와 지오투어리즘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다음으로 거문오름 지오투어리즘을 SWOT 분석을 통해 지역 주민 참여형 지오투어리즘 내부적 환경요인의 강점과 약점, 외부적 환경요인의 기회와 위협 요인들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다(표25).

표 25. 제주도 거문오름 지오투어리즘 SWOT 분석

Strengths(강점)	Weakness(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쉽</li> <li>• 지역 주민에 의한 지형·지질 유산 관리</li> <li>• 지역 주민 지오투어리즘 가이드 활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오투어리즘 가이드 경제적 안정 기반 취약</li> <li>• 지역 주민 전문성 함양 보수 교육 부족</li> <li>• 지역 소득창출방안 취약</li> </ul>
Opportunities(기회)	Threats(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문오름 트레킹 대회 개최</li> <li>• 제주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세계자연유산 지구에 비해 선호도가 비교적 낮음</li> <li>• 지형·지질 자원 훼손에 대한 위험</li> </ul>

내부 환경적 요인의 강점은 첫째, 마을지도자의 추진력으로 선흘리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였다. 마을 지도자의 역할은 특히 관광 초기 단계에서 매우 중요하며, 마을지도자의 능력에 따라 지역 주민 참여의 폭이 결정된다. 특히, 거문오름 국제트레킹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냈다.

둘째,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지형·지질 자원 관리 및 바람직한 탐방문화가 정착되었다. 거문오름 방문 초기에는 예약제 운영과 올바른 탐방 문화에 익숙지 못한 관광객들과의 갈등이 많았다. 그러나 현재는 바람직한 탐방 문화와 전문 가이드 활동 등이 정착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연유산을 우리 마을에서 보존한다는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셋째, 지속가능한 지오투어리즘을 위해 지역 주민을 전문 가이드로 활용하였다. 지역 주민 전문 가이드는 그 지역의 생태 경관뿐만 아니라 역사·문화까지도 관광객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어 일반 외지 출신 자연해설가들과 달리 그 지역의 지역성 및 지역애도 느낄 수 있다. 더불어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서로 이해하고 각각의 문화를 존중하며 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특히 지역 주민이 전문 해설가로 정착하게 되면 지역 내 새로운 일자리 및 소득원이

창출될 수 있다.

내부 환경적 요인의 약점은 첫째, 지역 주민 전문 가이드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거문오름은 주민들이 일주일에 1~2회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자연유산 가이드를 하고 있으며, 일일 교통비와 식비 정도만 보조 받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 중 젊은 연령층은 자연유산 해설가 과정을 이수하고도 생업에만 종사하고 있어 실제 전문 가이드로 활동하는 연령층이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전문 가이드들을 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관광객들에게 일정액의 해설비를 받아 그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둘째, 지역 주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보수 교육이 필요하다. 지역 주민 참여와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과 대학 및 지오투어리즘 전문가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보수 교육의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세계자연유산을 활용한 지역 주민의 지속적인 소득 창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거문오름 경관을 담고 있는 엽서나 거문오름 사진을 넣어 투박하게 조각된 목공예 열쇠고리, 그리고 표선리의 특산물인 백도라지와 고사리가 매점 앞에 소량 전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품들은 관광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보편적인 상품들로서 세계자연유산인 거문오름을 효과적으로 상품화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구상 중인 지역소득 창출방안으로는 우선 지역 주민들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농업 기술원과 연계해서 거문오름과 관련된 상품으로 Black food<sup>74)</sup>를 상품화하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품개발은 정부와 학계의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다.

외부적 환경 요인의 기회는 첫째, 2007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성공적으로 거문오름 국제트레킹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국제트레킹대회 추진은 지역 주민들

---

74) 검은 색을 띤 자연식품으로 만든 음식으로 검은콩, 검은깨, 검은쌀 등을 말함.

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었으며 지역 주민, 제주도민, 관광객들에게 지형·지질 자원 활용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사례가 되었다. 또한 단순한 경관 중심 관광에서 지오투어리즘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둘째, 대규모의 제주 세계자연유산센터의 건립 계획이다. 거문오름 일대에 조성될 제주 세계자연유산센터는 부지 3만 9천 789㎡에 지상 1층, 지하 1층, 전체면적 7천335㎡ 규모로, 291억 원을 들여 2012년 6월에 완공할 예정이다. 센터에는 홍보전시관, 영상체험관, 교육 및 학술 연구실, 관련 국제기구 사무실 등이 마련된다. 전시관과 영상체험관은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제주의 숨겨진 풍경을 비롯해 화산섬 제주도와 한라산의 탄생 과정, 한라산과 용암동굴의 지질구조, 지형 특성, 생태 체험, 세계자연유산 등재 의미 등을 실제 모습에 가깝게 대부분 재현해 다양한 화면으로 보여줄 예정이다. 따라서 제주 세계자연유산센터를 이용하여 거문오름 탐방 전에 거문오름의 지형·지질학적 지식을 제공하는 다양한 해설 매체가 제공된다면 지오투어리즘의 교육 효과를 증진시킬 것이다.

외부적 환경요인의 위협은 첫째, 다른 세계자연유산 지역에 비해 선호도가 낮으며, 숙박시설 미비로 관광객들이 인근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다. 거문오름 탐방 이후 타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관광객들의 숙박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형·지질 자원 보존 관련 적용 법규 부재로 자연 해설을 원하지 않는 일부 관광객들을 위해서 능선부분을 자율 탐방으로 열어 두고 있다. 그러나 자율탐방 코스에서는 자연 훼손에 대한 우려가 따르게 된다. 특히 스코리아콘은 다양한 크기의 스코리아들이 미고결된 상태로 누적되어 형성되기 때문에 한번 파괴되면 복원이 불가능한 내부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관광객들은 반드시 전문 가이드와 함께 탐방이 이루어져야 하며, 관광객의 적정 수용인원에 대한 관리도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된 지형·지질 자원의 경우,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보존을 위해 해당 지역 주민과 관리자들에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 5. 소 결

국내 지형·지질 전문 가이드 해설이 제공되는 제주도의 성산일출봉, 거문오름, 강원도의 DMZ 지오투어리즘, 영월 호야 지리 박물관 지리트레킹을 운영 주체에 따라 분류하였다(그림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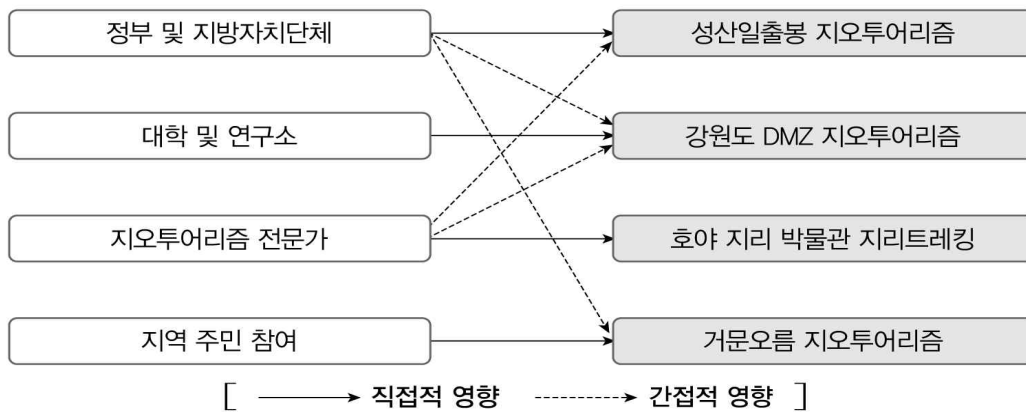


그림 29. 지오투어리즘 운영 주체별 분류

성산일출봉은 제주도 세계자연유산관리 본부에서 지오투어리즘을 직접 운영 관리하고 있다. 강원도 DMZ 지오투어리즘은 지리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진행되었다. 2009년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5+2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대학이 지오투어리즘 사이트 개발과 전문 가이드 양성을 직접 담당하고 있다. 강원도 영월의 호야 지리 박물관은 개인 사설 박물관으로 지형·지질과 관련된 다양한 전시관을 두고 있으며, 특히 지리트레킹은 지오투어리즘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거문오름은 자연유산 해설가 교육을 이수한 지역 주민들의 참여로 운영되고 있다. 전문 교육을 받은 지역 주민 가이드는 관광객에게 지형·지질학적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지역에 특화된 문화·역사에 대한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해 준다. 따라서 거문오름은 국내 지오투어리즘의 가장 이상적인 사례이다.

각 운영별 특징과 SWOT 분석을 살펴본 결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오투어리즘을 운영할 수 있는 부서 및 담당 공무원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제주도와 강원도 영월의 호야 지리 박물관은 모두 보존 가치가 뛰어난 지형·지질 사이트가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오투어리즘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전문가의 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형·지질 교육은 제주도와 강원도 DMZ 지오파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시작단계로 교육과정이 체계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관광객들에게 과학적인 전문 지식을 이해시켜야 하는 만큼 체계적인 교육 과정과 지속적인 보수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강원도 영월의 호야 지리 박물관은 갖추어진 교육시설을 이용하여 지역 주민 교육을 위한 지리교육 센터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호야 지리 박물관의 지리트레킹은 가이드 해설비를 받는 대신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됨으로써 관광객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는 다른 지역의 지오투어리즘 전문 가이드 처후 개선에 방향을 제시한 좋은 사례이다.

거문오름은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방안과 지역 주민 전문 가이드 활동에 대한 경제적 안정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VI. 한국형 지오투어리즘 정착을 위한 논의

국내 지오투어리즘 정착을 위해 해외 지오파크 및 지오투어리즘 사례의 시사점과 국내 지오투어리즘 운영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지오투어리즘 운영 조직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 조직 모델을 운영하기 위해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오투어리즘 전담 부서 및 업무 담당 공무원을 배치하여 대학 및 연구소, 지오투어리즘 전문가, 지역 주민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안군 홍도와 거제도 해금강을 한국형 지오투어리즘 모델 적용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두 지역 모두 자연경관을 대상으로 유람선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오투어리즘이라 하기엔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두 지역을 통해 바람직한 한국형 지오투어리즘이 되기 위한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 1. 한국형 지오투어리즘 모델 제언

#### 1) 지오투어리즘 운영 조직 모델 구성

국내 지오투어리즘의 운영 주체별 분석 결과를 통해 제기되는 문제점으로는 지오투어리즘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운영 조직과 담당 공무원의 부재를 들 수 있다. 또한 대학 주도형 지오투어리즘은 프로그램 구성과 전문 가이드 양성을 모두 운영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재정 지원 및 가이드 보수 교육 문제가 있다. 개인 전문가형 지오투어리즘은 개인 역량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어 지오투어리즘 전문가 충원과 학계의 지원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 참여형 지오투어리즘은 주민 참여를 지속시킬 수 있는 방안과 지역 주민 전문 가이드의 경제적 안정에 관한 문제가 있다.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 지오파크 및 지오투어리즘 운영 조직을 구성하여 여러 단체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지오투어

리즘 정착을 위해서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연구소, 지오투어리즘 전문가, 지역 주민의 파트너십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운영 조직이 필요하다. 해외 지오파크 및 지오투어리즘 운영사례를 바탕으로 한국형 지오투어리즘 정착을 위한 운영 조직 모델을 제안하였다(그림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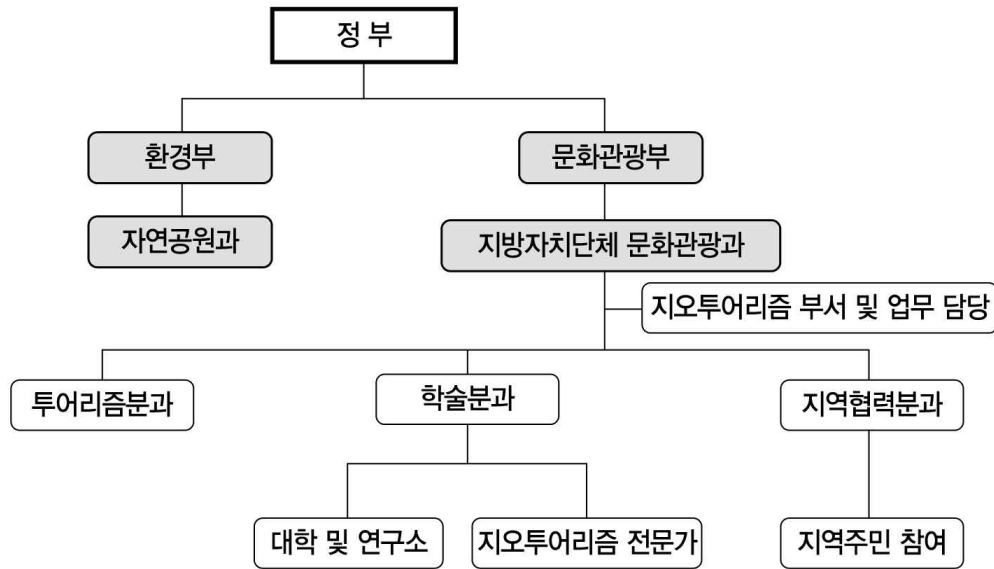


그림 30. 한국형 지오투어리즘 운영 조직 모델 구성

2011년 7월 28일 환경부의 자연공원법이 개정되면서 지오파크 및 지오투어리즘에 대한 법적·재정적 지원이 2012년 1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법적 지원 마련과 함께 지오투어리즘 담당 운영 조직 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문화관광부는 지오파크 및 지오투어리즘 운영 조직 기구를 총괄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문화관광과에서는 지오투어리즘 담당 부서 및 업무 담당 공무원을 배정하여 지오투어리즘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 문화관광과에서는 지오투어리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분과로 학술분과, 지역협력분과, 투어리즘분과를 구성하도록 한다.

학술분과는 지역 내 대학 및 연구소, 지오투어리즘 전문가와의 유연성 있는

조직을 구성한다. 지역협력분과는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하고 지역 내 소득 향상 방안에 대한 협의와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오투어리즘 전문가와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투어리즘분과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숙소, 음식점, 교통편 등의 서비스 시설과 관광객들의 지적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해설관, 자연관찰로, 방문객 센터 등을 관리하고 지오투어리즘 전문 가이드 운영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 2) 지오투어리즘 운영 조직의 역할 제안

###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역할의 중요성은 국내 사례 및 영국, 독일, 일본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지오투어리즘 정착을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오투어리즘 운영을 위한 조직 기구와 담당 공무원을 배치해야 한다. 지오투어리즘 운영 조직을 중심으로 각 기관 및 단체와의 관계를 지원하고 유지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지역 주민을 지오투어리즘 전문 해설가로 양성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에게 전문적인 지형·지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지오투어리즘 전문가 양성에 있어, 신규 양성 교육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보수 교육을 통해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전문성을 향상 시켜야 한다.

셋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오투어리즘 전문 가이드 양성을 위해 지형·지질 교육 전문가를 적절하게 배치하고 공급해야 할 것이다. 지오투어리즘 전문 가이드 양성을 위해서는 지형·지질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를 지역 사이트에 따라 적절하게 확보 및 배

치 해야 한다.

넷째, 지오투어리즘 전문 가이드에 대한 경제적 안정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정부는 지오투어리즘을 단순히 새로운 관광의 유형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지속가능한 관광으로서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해 지역 내 지형·지질 자원을 관리하고, 지역 주민 일자리 및 소득 창출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지오투어리즘 전문 가이드를 정규직이나 계약직으로 채용하거나 일본의 사례처럼 전문 가이드 해설비를 지불하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제안해 본다.

궁극적으로 지오투어리즘이 단순히 보존가치가 높거나 우수한 지형·지질을 이용하여 관광객을 유인하고 그로부터 일정한 수입을 올리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조직이 필요하다.

## (2) 대학 및 연구소의 역할

폴란드는 지형·지질 관련 대학에서 지오투어리즘 전문가 과정을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신설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지오투어리즘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투자이며, 새로운 노동 수요에 대해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도 새로운 관광유형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국내 대학 및 연구소의 역할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 국내 대학에서도 지오투어리즘 전문 가이드 양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문 가이드 양성방안으로 지리학과나 지리교육학과 졸업생들에게 지오투어리즘 전문 가이드 자격증을 부여하여 졸업생들의 취업 기회를 넓혀 주는 방법이 있다. 또한 일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오투어리즘 전문 가이드 양성을 담당하는 방법도 제안해 볼 수 있다.

둘째, 대학 및 연구소에서 지오투어리즘 전문 가이드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형·지질 교육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기본과정으로 국내에서 운영되는 지형·지질 교육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바람직한 교육과정 모형을 제안해 보았다.

지오투어리즘 전문 가이드는 지속가능한 관광 전문가의 역할, 지형·지질 전문가의 역할, 해설전문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해설가 양성과정의 교육은 크게 지속가능한 관광 전문가 영역, 지형·지질 전문가 영역, 해설 전문가 영역으로 나누고 하위에 각각의 과목들을 제시하였다.

지속가능한 관광 전문가 교육과정은 지속가능한 관광의 개념에 대한 교육을 기반으로하여 환경보전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표26). 지오투어리즘의 정의를 통해 자연환경을 이루고 있는 비생물자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속가능한 지오투어리즘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과 틈새 관광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교육 한다.

**표 26. 지속가능한 관광 전문가 교육과정 작성**

교과목	교육내용
지속가능한 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한 개발의 의미</li> <li>- 지속가능한 관광의 개념</li> <li>- 지속가능한 관광의 특성 및 필요성</li> </ul>
지오투어리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태계의 다양성에 관한 교육</li> <li>- 지오투어리즘의 개념</li> <li>- 지오투어리즘의 특성 및 필요성</li> </ul>

지형·지질 전문가 영역은 지오투어리즘 전문 가이드 양성을 위해 가르쳐야할 핵심적인 내용이다(표27).

표 27. 지오투어리즘 전문 가이드 기본 이론 교육과정 작성

교과목		교육내용
한반도의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반도의 지질</li> <li>- 한반도의 지형 발달 원리</li> <li>- 한반도의 기후환경</li> </ul>
산지 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침식 및 풍화지형 : 암석돔, 판상절리지형, 수직·수평 절리지형, 토르, 고위평탄면, 풍화동굴, 거터<sup>75)</sup>, 나마, 산지타포니, 플래어드 슬로프 지형, 다각형 균열 지형</li> <li>- 퇴적지형 : 암괴류, 암괴원, 애추, 산지습지</li> </ul>
하천 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침식지형 : 폭포, 포트홀, 감입곡류하천, 미앤더코어, 하식애, 하식동, 거터</li> <li>- 퇴적지형 : 삼각주, 선상지, 곡저평야, 포인트바, 자연제방, 하중도, 사력퇴적지, 구하도, 우각호, 망류하도구간, 지류습지, 배후습지, 하안단구, 호소성습지</li> </ul>
해안 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침식지형 : 해식애, 해식동, 파식대, 시스택, 시아치, 포트홀, 해안타포니</li> <li>- 퇴적지형 : 간석지, 염습지, 거력해안, 자갈해안, 모래해안, 패사해안, 사취, 사주, 연안사주, 육계사주, 육계도, 범, 비치리지, 석호, 해안사구, 사구 습지, 해안평야</li> <li>- 기타 : 해안단구, 간척지</li> </ul>
특수 지형	카르스트 지형	돌리네, 우발라, 자연교, 카렌(라피에), 석회동굴, 카르스트 건곡, 용천
	화산 지형	용암원정구, 분석구, 응회구, 응회환, 마르, 용암동굴, 화구, 중앙화구, 화구호, 칼데라, 칼데라호, 용암대지, 스텝토, 베개용암, 주상절리

지형·지질 자원에 관한 지식은 광범위할 뿐 아니라 전문성을 요하므로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성한다. 기본과정에서 지형·지질 이론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기초 이론 교육을 실시하며, 심화과정에서는 그 지역의 보존 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자원에 관한 이론과 현장 실습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지형·지질 전문가 영역은 지형경관에 관한 자연환경조사 지침<sup>76)</sup>과 전국자연

75) 거터(gutter)는 산지나 기반암 하상에 형성된 절리를 따라 발달하는 홈통모양의 침식지형.

76) 자연환경조사 지침은 국가의 전반적인 지형 분포 현황을 파악하여 보존가치가 있는 지형자원을 발굴하

환경(지형)조사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교육과정<sup>77)</sup>을 참고로 구성하였다.

지형·지질 교육과정은 한국의 지형과정, 산지지형, 하천지형, 해안지형, 특수 지형(카르스트지형, 화산지형) 등 5개 분야로 구분된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 국내 지형·지질 형성에 관한 기초 교육을 실시한다.

심화과정에서는 각 지역의 보존가치가 있는 지오사이트의 지형·지질 관련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을 실시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론교육을 통해 기본을 익히고 현장실습을 통해서 지형·지질을 실제로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지형·지질 전문가 심화 교육과정은 다른 해설가 양성과정과 달리 이론보다 실습에 비중을 두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해설 전문가 영역은 해설활동에 있어 필요한 해설가의 자질을 갖추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표28).

**표 28. 해설 전문가 영역 교육과정 작성**

교과목	교육내용
지형·지질 해설 기법	- 지형·지질 해설의 목적 및 필요성 - 해설 기법의 종류 및 특징 - 해설 기법과 매체 활용방안
현장체험 학습론	- 현장가이드의 특징 및 지도요령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 기본적인 응급처치 요령 - 응급상황 대처요령 - 위험요소 모니터링 및 관리
커뮤니케이션	-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법 - 대화/스피치 요령

려는데 목적이 있다.

77)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에 근거, 10년 단위의 전국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해 왔고, 자연환경보전법 제34에 근거, 생태자연도를 작성해 왔다. 이 조사에서는 지형, 식생 등 9개 분야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 중 지리학 쪽에서는 '지형'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조사원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반 조사원 단기 양성 프로그램이 제안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지형분야의 인원 총 29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따라서 2009년 부터 수도권 거점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총 20명의 수강생을 모집하여 총 200시간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 교육과정에서는 해설가가 관광객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교육내용을 탐구하고 해석하여, 해설활동에 적용하는 방식을 포함하도록 한다. 교과목은 지형·지질 해설 기법, 현장체험 학습론,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커뮤니케이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설 전문가 영역은 해설가가 알고 있는 내용 지식을 관광객들의 지적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관광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영역은 지형·지질 전문가로서의 교육내용과 지속가능한 관광 전문가로서의 해설을 계획, 조직하고 이끌어가기 위해 이용하는 실천적인 지식을 구체화한 것이다.

현장 체험학습 이론은 해설가들에게 필수적인 요소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설활동은 대부분 야외활동으로 이루어지므로 야외활동의 특징과 지도요령, 주의 사항 등의 기본 원칙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해설은 사고 등의 위험이 동반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해설가들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위험요소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커뮤니케이션은 해설에 있어서 지형·지질 관련 지식 습득만큼이나 중요한 것으로 해설내용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다. 따라서 다양한 연령층에게 해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광객들의 특성에 맞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법을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오투어리즘 가이드 양성교육 구성 모형의 세 영역은 각각의 특성으로 인해서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역 간에는 유기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과 지오투어리즘 개념을 이해하고 지형·지질 전문가 영역을 통해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지형·지질 기본교육이 제공되며, 이러한 지형·지질학적 지식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설의 특수성이 반영된 교육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오투어리즘 전문 가이드 양성 교육 과정에서 각 영역에 대한 균형있는 학습이 진행되어야 한다.

### (3) 지오투어리즘 전문가의 역할

지오투어리즘 전문가는 지오투어리즘 상품 개발 및 관리, 스토리텔링 개발, 지오투어리즘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기여할 수 있다. 국내 여건에 적합한 지오투어리즘 전문가 역할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 지오투어리즘 전문가는 국내 생태계 인식에 대한 균형잡힌 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국립공원 해설관의 경우 동·식물 등의 생물자원에 치우쳐 있으며, 생태관광 프로그램 역시 생물자원 위주의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어 생태계의 다른 축인 비생물자원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불균형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 지형·지질 프로그램 및 해설관을 질적·양적으로 보완할 수 있으며 동시에 지오투어리즘 전문가를 통해 생태계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지오투어리즘 전문가는 지오투어리즘 관광 상품의 개발과 지역 내 소득 창출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독일의 불칸아이펠(Vulkaneifel) 지오파크에서는 지역의 광천수로 만든 지질각테일, 루마니아의 Hateg Country 지오파크에서는 공룡 빵, 프랑스의 오프프로방스 지질보존지구에서는 암모나이트 초콜릿과 암모나이트 빵, 포르투갈의 Naturtejo 지오파크에서는 삼엽충 케이크 등의 관광 상품이 개발되어 있다.<sup>78)</sup> 국내에서도 지형·지질 자원의 특징을 반영한 음식, 인테리어, 지역 특산품 개발에 관한 전문가의 연구가 같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국내 지오투어리스트들에 대한 정의와 경향성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해외의 경우 관광객들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연구 결과는 지오투어리즘을 계획하거나 개발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더불어 관광객이 지형·지질 자원에서 무엇을 가장 궁금해 하는지, 관광객들의 지적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78) Farsani, T.N., Coelho C, and Costa C, 2010, "Geoparks as Art Museums for Geotourists," *Journal of Tourism and Development* 2(13/14): 567-576.

넷째, 지오투어리즘 전문가는 지형·지질 관련 스토리텔링 구성, 해설매체 선택 및 제작에 관한 연구를 담당해야 한다. 지역에서 연구된 지형·지질 관련 논문들을 분석하여 지오투어리즘 전문 가이드 교육자료 제작 및 해설 구성에 기본 자료로 이용해야 한다. 해설은 자료 개발뿐만 아니라 해설 내용을 이해시키는 것 또한 중요하므로 가장 효과적인 해설 매체를 선택하는 것은 지오투어리즘 전문가의 역할일 것이다.

지오투어리즘 전문가는 우선 지오투어리스트들이 지형과 지질학적인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그 다음 지역 주민들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관광객들이 지역 주민 가이드와 함께 지형·지질 사이트를 방문하고, 지역 음식과 음료 시음 또는 지역 특산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지오투어리즘 전문가는 지역 주민과 민간 기업 그리고 정부 사이의 유기적인 관계를 조성해 주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4) 지역 주민의 역할

지금까지 대중관광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생태계 파괴와 환경훼손, 지역문화에 대한 부정적 영향, 지역경제 빈곤화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외부 자본의 유입과 함께 지역 주민의 참여와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가 배제된 관광개발로 인해 관광객에게 제공되는 경험 역시 질적 저하를 가져 왔다. 그러나 최근 관광객들의 지역사회 이해와 체험에 대한 새로운 욕구 등이 나타나면서 지역 주민 참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보존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자원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지역 주민은 지식 제공자 역할을 담당하므로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이 적극 수용되어야 한다.

지역 주민의 역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역 주민이 지오투어리즘 개발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Hose(2007)에 따르면 지역 주민은 해당 지역의 지오투어리즘 개발을 위해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토대로 기념품 제조공정의 해설 제공에서부터 관광 가이드, 여가활동까지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은 해당 지형·지질 유산의 가치를 인식하고, 지오투어리즘과 관련된 문화적 활동과 예술, 경제 재활성화 등에 동참할 수 있다.<sup>79)</sup> 그러므로 지역 주민은 지오투어리즘 개발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정서에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둘째, 지역 주민은 지오투어리즘 전문 가이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관광객에게 그 지역을 좀 더 잘 이해시키고, 질 높은 관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원에 대한 해설이 필요하며, 이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지역 주민이다. 지역 주민은 그 지역의 문화와 지형·지질 자원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생활이나 정서까지도 포함하여 그 지역의 지역성과 지역애를 생생하게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지속가능한 지오투어리즘이 되기 위해서는 마을 지도자의 전문성과 추진력이 확보 되어야 한다. 마을지도자의 역할은 개발 초기에 매우 중요하며, 마을 지도자의 능력에 따라 지역 주민 참여의 폭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오투어리즘 초기단계에서 지도자 발굴과 양성과정을 제도화해야 한다.

지역 주민이 개발의 주체가 되어, 환경보전의식 및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 주민 정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지역 주민 참여는 주민들의 능력을 발휘하게 해주고 자발적 참여를 통해 자원을 관리하고, 스스로 그들의 역할을 결정하며,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활동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80)</sup>

---

79) Hose, T.A., 2007, *op. cit.*, 55(2): 259-276.

80) 조록환, 2003, “농촌관광전책에 의한 관광마을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의 특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26.

## 2. 한국형 지오투어리즘 적용 사례 연구

### 1) 신안군 홍도

#### (1) 지리적 여건

홍도는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에 속하는 우리나라 최서단의 섬 가운데 하나이며, 홍도 1구와 홍도 2구, 2개의 마을로 구성된 지역이다. 총 면적은 6.87km<sup>2</sup>이며, 동서로는 2.4km, 남북으로는 6.4km, 해안선 길이는 20.8km이다. 동경 125°12", 북위 34°41"에 위치하며, 목포항에서 서남쪽으로 115km, 흑산도에서는 22km 떨어져 있다. 홍도는 특히 1965년 4월 7일에 도서 전체가 천연기념물 170호로 지정되었다.<sup>81)</sup>

다도해 지역은 약 8,000만 년 전에 대규모의 지각 운동에 의하여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수많은 도서가 분포하게 되면서 형성되었는데 도서들의 암석 80% 이상이 화성암이고 나머지 20%는 사암 등 퇴적암 기원의 암석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신생대 제4기 플라이스토세 기간에 있었던 빙하기와 간빙기의 영향을 받았던 다도해 지역은 빙하가 해수면이 적어도 80~100m 정도가 하강함으로써 도서와 주변 해역이 육지화 되었다가 홀로세 중반인 약 7,000년 전에 오늘날의 다도해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홍도를 구성하는 암석은 선캄브리아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되는 규암과 규암질 사암 비중이 높은 변성퇴적암류, 해안과 남부의 주머니 모양의 만입주인 죽항리 일대에 분포하는 제4기 퇴적층으로 구성된다.<sup>82)</sup>

홍도의 지질은 사암과 규암의 해저퇴적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육상기원의 풍화물질인 석영질 입자들이 해저에 퇴적되어 사암이 형성된 이후 압력과 온도

---

81) <http://tour.shinan.go.kr>

82) 유환수·유경아·고영구, 1997, “전남 신안군 홍도지역의 지질 및 해양환경,” 전남대학교 지구과학 학회지 21: 135-141.

의 상승에 따라 규암층이 생성되었다. 사암은 석영과 장석 및 여러 크기의 입자 등 모래의 구성 물질들이 해저, 호수나 하천의 바닥에서 점토층과 혼합되어 퇴적된 암석으로서 홍도지역은 주로 점토 함량이 15% 이상인 이질사암으로 풍화에 대한 저항력이 크게 나타나 돌출지형을 이루고 있는 곳이 많이 나타난다. 규암은 석영입자를 주성분으로 하는 사암이 커다란 압력을 받아 생성된 압력변성암으로 구성물질의 조성에 따라 색상의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나 하부 자색층, 하부 백색층, 상부 자색층 및 상부 백색층으로 되어 있다. 또한 사암과 규암은 풍화에 강하기 때문에 해안선 주변은 경사가 급하게 나타나고 있다. 홍도의 지형은 육상기원의 사암과 규암이 조산운동을 받아 섬 전체가 대규모의 배사 구조를 이루고 있어 홍도의 주능선이 배사축에 해당하며 주능선의 양측인 동남사면과 북서사면은 양 날개에 해당한다. 홍도는 수평으로 된 사암의 층리가 나타나는 곳도 많지만 대부분 배사구조를 만든 격심한 지각운동의 결과로 층리와 퇴적면이 기울어져 뒤집혀 있거나 수직으로 분포하는 곳이 많으며 해상에 솟아 있는 석주의 절경과 파도의 침식에 따라 형성된 해식애(Sea Cliff), 해식동굴(Sea Cave), 시스택(Sea Stack), 시아치(Sea Arch) 등의 자연경관을 나타내고 있다.<sup>83)</sup> 홍도의 토양은 사암과 규암이 풍화작용을 받아 형성된 풍화토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천발달이 미약한 관계로 하천 충적토의 분포는 아주 미약하다.<sup>84)</sup>

## (2) 홍도 유람선 관광 분석

홍도 일주 유람선은 오전 7시 30분과 오후 12시 30분 하루에 두 차례 출항한다. 홍도 33경 해상 관광코스 관람 소요 시간은 2시간 30분이지만 비성수기에는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그림31).

83) 고의장, 1998, “홍도의 자연경관에 대한 관광지형학적인 분석,” 세종대학교 논문집, 자연과학대학편 15(2): 29-30.

84) 홍성조 · 유효상, 1997, “홍도·흑산도 지역의 지형경관,” 환경부, pp. 1-6.



그림 31. 홍도 유람선 코스

홍도는 뛰어난 해안 경관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꼭 가보고 싶은 섬으로 꼽히는 섬이다. 홍도 10경을 중심으로 한 유람선 선상 해설은 약 50분 정도 소요되며 선주가 해설을 담당하고 있다. 인문적 환경에 속하는 홍도의 지명 유래와 역사, 면적, 주민 수와 생업에 관해 약 7분 정도의 해설이 제공된다. 그리고 홍도의 지형·지질 관련 특징은 기암괴석이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약 5분 정도 해설하는 수준이다. 선주의 해설에서 홍도의 지형·지질 관련 내용은 홍갈색의 기암절벽 해변과 물속의 기암절벽으로 한정되어 있다. 또한 특별한 전문 교육을 받지 못한 선주에 의한 선상해설은 암석의 형태와 전설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홍도 10경의 대표적 경관인 독립문바위와 남문바위, 칼바위는 선상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인물사진을 찍어주고 돈을 받는 장소로만 이용되고 있어 지형·지질 자원에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흥미 위주의 기암절벽 해설만으로 홍도의 지형·지질을 설명하기에는 전문적 정보 전달이 미흡하다. 그러므로 새로운 관광유형인 지오투어리즘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선상해설에 홍도의 지형·지질 형성 과정 등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내용들을 포함시킨다면 관광객이 홍도의 자연경관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sup>85)</sup>

다음은 대표적인 홍도 10경에 관한 선상해설 중 3개소만 표준어로 재구성하였다(표29).

표 29. 홍도 유람선 선상해설

지형경관	선상해설
	<b>거북바위</b> 3시 방향에 거북이 봤어요? 왼발 나오고 오른발 나오고 홍도를 지켜 주고 있는 수호신입니다.
	<b>탑 섬</b> 22층 돌탑인데 조물주가 쌓아 놓은 탑입니다. 여러분 마음 속의 한 가지 소원을 빌어보시면 들어줄 것입니다. 심한 태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탑이죠! 옛날에 총각 처녀가 향수에 젖어 탑을 하나 둘씩 쌓아서 올렸다고 합니다.
	<b>공작새 바위</b> 우측에서 보면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자상과 같다고 합니다. 좌측에서 보면 하늘을 날아오르는 듯한 형상의 공작새 바위라 합니다.

신안군 홍도에서 이루어지는 유람선 관광에 관한 SWOT 분석을 실시하면 다음과 같다(표30).

85) 박미영, 2011, “홍도 지형 자원을 활용한 지오투어리즘,” 한국지역지리학회지17(1): 109-121.

표 30. 홍도 유람선 관광의 SWOT 분석

Strengths(강점)	Weakness(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경관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함</li> <li>• 유람선을 통해 주요 코스가 개발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오투어리즘 담당 부서나 공무원의 부재</li> <li>• 전문적인 지오투어리즘 가이드 부재</li> </ul>
Opportunities(기회)	Threats(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이 지역 소득 창출의 주요 산업임</li> <li>• ‘가고 싶은 섬’ 개발 사업으로 선정되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주변 섬들의 관광 개발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관광이 요구됨</li> </ul>

홍도 유람선 투어의 내부적인 강점은 첫째, 홍도는 1965년 4월 7일에 도서 전체가 천연기념물 170호로 지정될 만큼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자원을 가지고 있다. 둘째, 유람선 투어를 통해 관광 코스가 홍도 10경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있으며, 매년 1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sup>86)</sup>하여 국내 관광지로서의 명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내부적 약점은 첫째, 홍도의 지오투어리즘을 관리해 줄 수 있는 담당 공무원 및 운영 조직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지오투어리즘은 지형·지질 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전문 가이드 양성이 선행되어야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여러 기관과 단체의 파트너십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운영 조직이 필요하다. 둘째, 지형·지질 교육을 받은 지오투어리즘 전문 가이드가 없다. 자연경관을 대상으로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선사해설의 90%가 암석의 형태와 전설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의 우라메도 가이드 클럽에서 제공되는 선사해설의 경우 전체 선사해설에서 현무암, 화강암 등 암석 설명 20%, 해안지형 설명 및 지역 생성과정 설명 20%, 문화 및 역사 20%, 기타 20%로 구성되어 바람직한 선사해설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국내 유람선 선사해설에도 자연경관과

86) 홍도관광 안내소(2011)

문화·역사·생태 관련 내용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이러한 약점은 지역 주민의 지형·지질 교육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안지형 전문 가이드가 필요하다.

외부적 기회 요인으로는 첫째, 신안군 홍도는 지역 주민들이 대부분 관광산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개발의 주체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홍도는 2007년부터 문화부가 섬 관광개발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다. 시범사업은 2007년~2011년 5개년 동안이며,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외연도(보령시), 청산도(완도군), 홍도(신안군), 매물도(통영시) 등 4개 섬으로 2011년까지 국비 220억 원을 포함하여 총 45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 중 홍도는 ‘가고 싶은 섬’이라는 테마 개발 사업비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포함한 정부 투자비 총액 9억 9천만 원이 투자되었다. 홍도 투자계획 및 사업 전략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표31).

이 계획은 홍도가 원래 지니고 있는 암석 등 자연경관 자원에 역사의 개념을 도입하여 자연환경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사업의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지만 대부분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치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섬 개발을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기회의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하드웨어에 집중된 투자는 외부적 위협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하여 지역 주민 교육이나 전문 가이드 양성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31. 홍도 ‘가고 싶은 섬’ 투자 계획

구분	사업부문	추진전략	예산 비율
총괄	하드웨어 부문 사업비	아름다운 산·자연 경관의 보전과 활용	73.5%
		홍도·문화·역사·자연사 공원 조성	
		완충지역 보존(경계울타리 설치)	
		홍도관문 정비	
		아름다운 마을 풍경 만들기	
		홍도 1구-2구 접근성 개선사업	
	소프트웨어 부문 사업비	보존사업	16.76%
		발굴사업	
		홍보	
		체형 프로그램	
		소득연계	
		이미지개선	
		팸투어 프로그램	
	섬영상 콘텐츠화		
휴먼웨어 부문 사업비	주민교육	2.0%	
	마을 축제 및 이벤트 개발		
기타 부분 사업비	-	7.6%	

출처: 신안군 내부 자료, 2009.

외부적인 위협으로는 신안군은 ‘1004섬’ 개발을 통해 관광지로서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다양한 주제를 가진 섬 개발 및 축제 등이 개최되고 있다. 따라서 주변 섬 개발로 인해 홍도의 관광객 감소가 예상되므로 새로운 유형의 관광 형태가 요구된다.

### (3) 바람직한 홍도 지오투어리즘 제안

홍도는 지오투어리즘 조건 중 지형·지질학적 기반과 유람선 투어를 통한 지속가능한 관광의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 하지만 관광객들에게 제공되는 지형·지질 자원에 대한 전문지식과 환경교육 부재로 지오투어리즘의 조건을 만족시

키지 못한다. 따라서 홍도 유람선 관광이 바람직한 지오투어리즘이 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신안군에서 관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관광과에 지오투어리즘을 운영할 수 있는 부서 및 담당공무원을 배치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재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신안군 홍도의 지오투어리즘 운영 조직 모델을 다음과 같이 제안해 볼 수 있다(그림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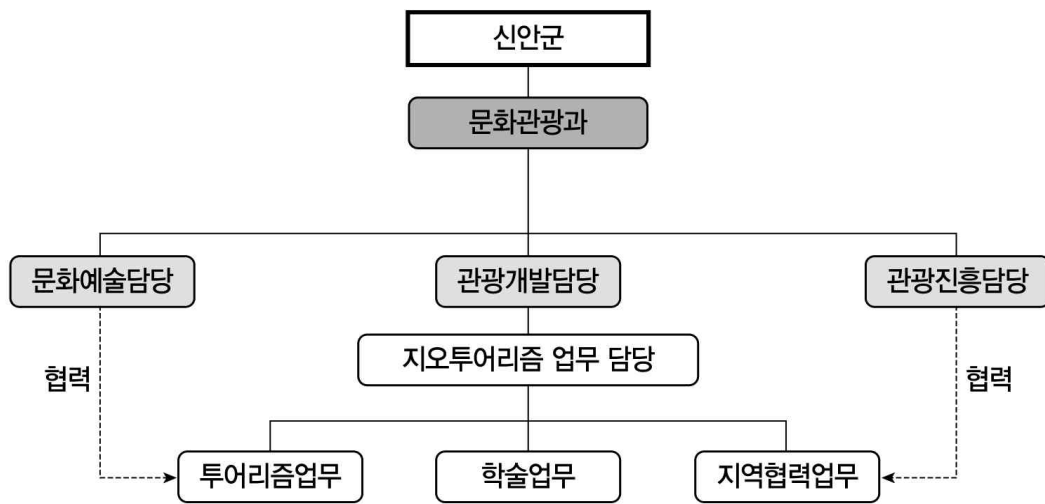


그림 32. 신안군 홍도 지오투어리즘 운영 조직 모델

현재는 신안군 홍도의 문화관광과의 규모가 비교적 작아 지오투어리즘 담당 부서를 운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관광개발을 담당하는 관광개발담당 이 지오투어리즘 업무를 신설하고 담당 공무원 배치를 제안한다. 지오투어리즘 담당 공무원은 학술업무, 투어리즘업무, 지역협력업무로 분류한다. 학술업무는 지오투어리즘의 가장 핵심 업무이므로 관광개발담당자가 직접 관리하며, 투어리즘업무는 문화재를 관리하는 문화예술담당자와 협력하고 지역협력업무는 관광 홍보와 마케팅을 담당하는 관광진흥담당자와 협력한다.

학술업무는 지역 내 대학과 지오투어리즘 전문가의 협력이 유기적으로 연결 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홍도와 인접해 있는 국립 목포대학교의 도서관문화연구

원은 국내 유일의 도서해양문화에 대한 연구기관으로서, 도서지역 연구와 관련하여 세계적으로도 희소한 연구소 중의 하나이다. 한국 도서연안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역사·고고·인류·민속·전통건축·사회·자연생태·문화콘텐츠·지리정보 등 인문사회 각 분야에서의 조사 연구를 시행함으로써 그 문화적 기반과 성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sup>87)</sup> 국립 목포대학교의 도서문화연구원은 다른 대학이나 연구소에 비하여 섬 지역 사람들의 생활환경이나 여건들에 있어 전문가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사학, 국문, 생태학, 민속학, 지리학자 등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 연구원들과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어 폭넓은 강사진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립목포대학교의 도서문화연구원이 홍도 지오투어리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 가이드 양성 기관 역할을 담당한다면 매우 효율적인 결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안군 홍도와 인접한 전남대학교 지리교육학과에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지오투어리즘 전문가 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지리교육학과는 지형·지질학적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통해 그 지역의 지역성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학문이므로 지리교육학과 졸업생들에게 지오투어리즘 전문 가이드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은 새로운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도 지닌다.

지오투어리즘 전문가는 홍도 관련 논문<sup>88)</sup>을 참고로 하여 홍도의 지형·지질 관련 연구를 통해 지역 주민을 교육시키거나 선상해설을 구성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또한 관광객들이 홍도의 자연경관 형성에서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사하고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이용하여 해설을 모니터링하고, 전문적 지식의 분량과 시간을 조절하여 관광객들이 편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을 선정하도록 한다.

위와 같이 대학과 지오투어리즘 전문가와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양성된 지역

---

87) <http://islands.mokpo.ac.kr>

88) 고의장(1998) '홍도의 자연경관에 대한 관광지형학적인 분석', 홍성조·유호상(1997) '홍도·흑산도 지역의 지형경관', 유환수·유경아·고영구(1997) '전남 신안군 홍도지역의 지질 및 해양환경' 등.

주민 전문 가이드들은 홍도의 유람선 관광에서 선주에 의한 전설과 암석의 형태에 의존한 해설이 아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해설을 관광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질 높은 해설과 체험을 경험하게 해 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적 기회와 재정적 지원은 홍도의 장기적인 관광 개발과, 환경보전 측면에서도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지역협력업무는 지역 주민 교육과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방안을 강구한다. 홍도는 주민의 의결기관으로서 주민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지역 주민이 관광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을 지도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홍도 지오투어리즘을 위한 전문 교육을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지역 주민은 지역 내 지형·지질의 가치를 인식하고, 지역 주민 전문 가이드 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지오투어리즘 전문 가이드 활동으로 경제적 안정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투어리즘업무는 지오투어리즘 관광객들에게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해설판 제작과 지오투어리즘 전문 가이드 관리를 담당하도록 한다.

## 2) 거제도 해금강

### (1) 지리적 여건

해금강은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마을에서 동쪽으로 600m 해상에 위치하며 지형이 첩뿌리가 뺨어 내린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해서 갈곶섬(첩섬)이라 불리기도 한다. 이 섬은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생태적 보존가치가 높아 1971년 3월 23일 우리나라 명승 2호 '거제해금강'으로 등록되었으며, 3개의 봉우리가 바다에 떠 있는 형태로 1968년 12월 31일 한려해상 국립공원 해금강 지구로 지정되어 남해안 제일의 명승지로 손꼽힌다. 해금강이라는 뜻은 '바다의 금강산'이

라는 뜻으로 거제도에는 그만큼 빼어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89)</sup>

거제도의 지질은 중생대 백악기에 퇴적된 경상계 퇴적암인 성포리층과 그 위의 장목리층을 기반으로, 불국사 화강암류의 관입 이전에 화산활동에 따른 분출로 형성된 안산암질 각력암과 안산암질 암류가 거제도 중북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거제 화강암과 지세포 화강암의 관입으로 해안을 따라 넓은 지역에 화강암이 분포하고 있고, 이들 화강암과 기존 암석과의 접촉 지역은 호온펠스화되어 있다. 제 3기층은 발견되지 않고, 거제도 내 가장 큰 하천인 연초천과 둔덕천 하곡을 따라 제 4기 퇴적층이 비교적 넓게 나타나며, 거제만에 연한 거제면 일대, 옥포만에 연한 장승포동 일대, 그리고 신현읍 일대에는 비교적 넓은 제 4기 충적층이 발달해 있다.<sup>9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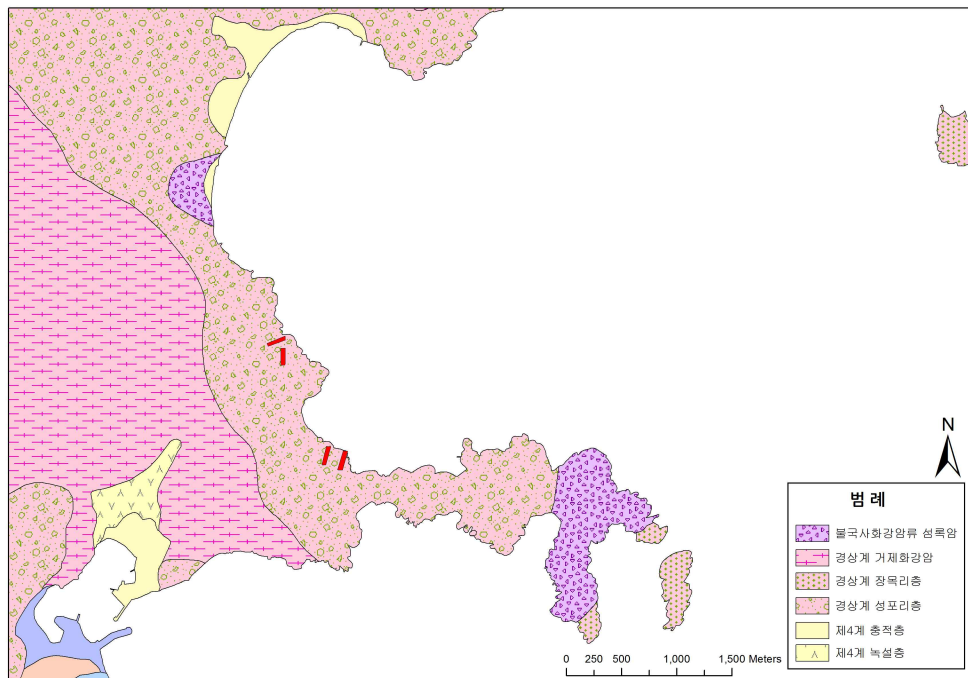


그림 33. 거제도 해금강 지질도

89) <http://tour.geoje.go.kr/index.sko>

90) 손일·조기만, 1997, 거제도(9-7)의 지형경관, 환경부, p. 4-5.

해금강의 전기 백악기 장목리층은 거제도에 분포하는 경상누층군의 최하층으로서 이 층은 대칭과 비대칭의 연흔, 점이층리, 횡적 연장성 등의 여러 가지 퇴적학적인 특징으로 해석해 볼 때 호수 연변 또는 호수에 쌓인 퇴적층이다.<sup>91)</sup> 장목리층의 사암은 아코스 내지 암편질 아코스로 분류가 되며 많은 속성작용을 받았다. 장석은 거의 사장석이며, 암편은 화산암으로 이루어져 있다.<sup>92)</sup>

해금강의 지형적 경관은 거제도 동남부의 갈곶 반도 전면에 위치하며 갈곶섬에 해당하는 곳이다. 해금강은 남북 방향으로 길게 뻗어 있으며 섬 전체가 수직 절벽의 해식애를 이루고 있다. 해금강의 높이는 약 110m 내외이며 식생이 자랄 만큼의 풍화층이 발달되어 있지는 않다. 해금강은 퇴적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직·수평 절리가 발달되어 있다. 해금강 중간 부분의 갈라진 틈은 횡압력을 받아 쪼개진 것으로 규모가 상당히 큰 수직 절리이다. 전반적으로 수평 절리가 주도하고 있지만 수직 절리 또한 잘 발달해 있다.<sup>93)</sup>

학동리 일대는 성포리층(호온펠스화된 셰일·사암·역암)이 지표면에 분포하고, 섬록암이 부분적으로 분포하며, 해안을 따라 이와 같은 기반암 위에 자갈 구성비가 높은 충적층이 발달한다.<sup>94)</sup> 학동 몽돌해수욕장은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에 위치한 자갈해빈으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지닌 휴양지로 유명하다. 학동 자갈해빈은 폭 30~50m, 길이 2km로 우리나라 최대의 자갈해빈 가운데 하나이다. 이곳의 자갈은 최대 직경 20cm부터 모래 알갱이 크기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이며, 파도에 의해 자갈이 굴러가는 소리는 ‘한국의 아름다운 소리 100선’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해수욕장은 파랑의 에너지가 모여 파고가 높아지는 곳 또는 헤드랜드에는 해식애가 발달하고 에너지가 분산되어 파고가 낮아지는 만에는 수면이 잔잔해서 모래가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사빈이 발달된다. 사빈은 모래로 이루어져 있거나 자갈로 이루어져 있다. 몽돌해수욕장은 자갈 해빈으로 해안

91) 이용일, 1995, “거제도 백악기 장목리층 사암의 속성기원 방해석,” 대한지질학회, 31(2), p. 162.

92) 이용일·전홍조, 1994, “거제도에 분포하는 장목리층(전기 백악기) 사암의 속성 작용,” 대한지질학회 학술대회, vol. p. 51.

93) 정미영, 2006, “거제도 해안 지형의 특성,”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지리교육학과, p. 15-16.

94) 이수연, 2001, “거제도 남서해안의 지형경관,”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지리교육전공, p. 14.

퇴적의 결과이며, 태풍 또는 폭풍 시 거대한 파도에 의해 형성된다. 이렇게 자갈 해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침식과 퇴적이 장기간 동안 균형을 이룬 결과이다. 해안의 자갈 공급원은 다양하다. 바다로 유입되는 하천에 의해, 해안을 둘러싸고 있는 헤드랜드의 침식과 연안류에 의해, 해안 배후 해안 단구의 침식에 의해, 마지막으로 외해나 내해로부터 발생하는 파랑에 의해 자갈이 공급된다. 하지만 바다로 유입되는 퇴적물의 90% 이상이 하천에 의해 공급되고 그 다음은 빙하와 생물에 의한 것이며, 절벽의 침식에 의한 퇴적물 공급은 최대 5%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up>95)</sup>

## (2) 해금강 유람선 관광 분석

해금강의 유람선 관광은 해금강~외도 코스로 3시간 정도 소요된다. 외도해상 공원에서 1시간 30분 정도 머물고 유람선을 타는 시간은 왕복 1시간 30분 정도다(그림34). 해금강 유람선의 선상해설은 장승포에서 해금강까지 약 40분 정도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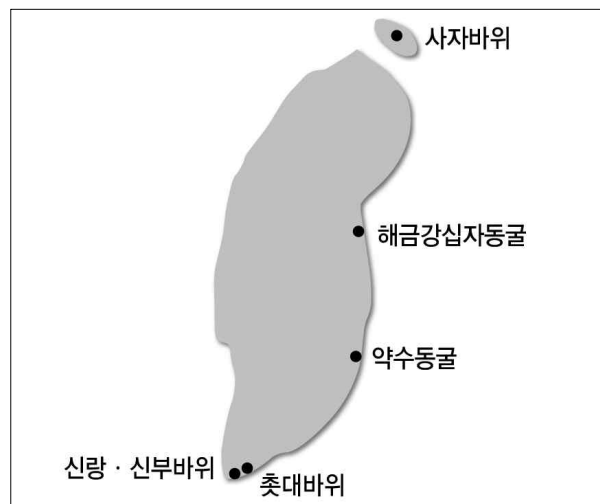





그림 34. 해금강 유람선 코스

95) 손일·박경, 2004, “거제도 학동 자갈해빈의 변화와 그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0(1): 177-191.

해금강 선상해설 중 약 15분 정도 거제도의 면적, 인구, 경제 등 인문적인 해설이 제공된다. 그리고 외도의 아름다운 조경이 형성된 배경에 대한 설명이 약 7분 정도 소요되며 학동 몽돌해수욕장이나 해금강의 전반적인 특징을 약 3분 정도 설명한다. 해금강 주변의 경관 설명은 15분 정도 소요되는데 거제도 해금강의 대표적인 자연경관에는 사자바위, 선녀바위, 미륵바위, 두꺼비바위, 신랑·신부바위 등 지형자원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 중 섬의 북쪽에서 유람선을 타고 진입하여 가운데에서 90°로 방향을 바꾸어 후진하며 섬의 동쪽으로 빠져 나가는 곳에 위치한 십자동굴이 가장 유명한 볼거리이다. 십자동굴은 엄밀히 보면 동굴이 아니고 바위섬이 갈라진 공간으로 유람선을 타고 들어간 상태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면 열 십(十)자 모양의 하늘이 되기 때문에 십자동굴이라 부른다. 거제도 해금강의 십자동굴 관광은 해상의 파도, 바람 등의 영향을 많이 받아 유람선 출항일수의 30% 정도만 정확하게 볼 수 있을 만큼 날씨의 운이 많이 따른다. 거제도 해금강의 유명한 또 다른 볼거리로는 과거 애국가의 배경화면으로도 유명한 사자바위 일출이 있다.

다음은 선주에 의해서 해설이 되는 대표적인 자연경관 해설을 표준어로 재구성하였다(표32).

표 32. 거제도 해금강 선상해설 내용

지형경관	선상해설
	<p><b>십자동굴</b></p> <p>십자동굴은 아주 좁은 수로 사이로 배가 들어가는데 동쪽으로 들어가서 남쪽으로 나옵니다. 하늘도 십자, 수로도 십자, 신기한 모습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바위가 움푹 들어갔습니다. 수 만년 동안 파도가 쳐서 바위가 깎인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 보세요. 유람선이 빠져 나갑니다. 이 섬은 하늘에서 비행기를 타고 보시면 섬이 4등분으로 갈라져 십자동굴이 형성되었습니다.</p>
	<p><b>용 굴</b></p> <p>여기 보시면 또 하나의 동굴을 볼 수 있습니다. 용이 살았다고 하여 용굴 또는 약수 동굴이라고 부릅니다.</p>
	<p><b>사자바위</b></p> <p>오른쪽에 중요한 바위가 지나갑니다. 사자바위와 천년송으로 아주 유명하죠. 거제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사자가 입을 찢 벌리고 있는 모습이구요. 원래는 이가 3개였으나, 나이가 들어 이가 하나 밖에 남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찍 오면 사자바위와 천년송 사이에서 해가 오르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이 장면은 우리나라 애국가의 한 장면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p>

거제도 해금강에서 이루어지는 유람선 관광에 관한 SWOT 분석을 실시하면 다음과 같다(표33).

표 33. 해금강 유람선 관광의 SWOT 분석

Strengths(강점)	Weakness(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경관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함</li> <li>• 유람선을 통해 주요 코스가 개발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주민의 지형·지질 보존 의식 부재</li> <li>• 전문적인 지오투어리즘 가이드 부재</li> </ul>
Opportunities(기회)	Threats(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도와의 연계 효과로 관광객 수 증가</li> <li>• 거가대교의 개통으로 접근성이 좋아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적인 관광 인프라가 부족</li> <li>•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조성을 위한 민간 투자유치 실패</li> </ul>

해금강 유람선 투어의 내부적 강점은 첫째, 1971년 3월 23일 우리나라 명승 2호 ‘거제해금강’으로 등록될 정도로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생태적 보존가치가 높은 지형·지질 자원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는 점이다. 둘째, 유람선 투어를 통해 코스가 개발되어 있으며, 매년 1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sup>96)</sup>하고 있는 국내 유명 관광 명소이다.

내부적인 약점으로 첫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형·지질 교육의 부재로 비생물자원에 대한 보호 및 관리가 부족하다. 둘째, 전문적인 선사해설을 할 수 있는 지오투어리즘 가이드가 없다. 선사해설에서는 거제도의 인문적 설명이 5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인데 유람선 관광은 해금강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이므로 지형·지질 자원의 해설 비중을 높여 주어야 한다. 거제도 해금강 주변을 돌면서 제공되는 해금강 관련 해설의 분량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5분 정도인데, 이마저도 암석의 형태와 전설에만 치중되어 있어 지형·지질 관련 설

96)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tour.go.kr>)

명이 거의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외부적 기회 요인은, 첫째 외도와의 코스 연계로 관광객의 수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해금강은 유람선을 통해 비생물자원 중심의 자연경관과 함께 외도에 조성된 아름다운 식생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광객들은 생물자원과 비생물자원의 조화로운 관광을 경험할 수 있고 그로 인해 꾸준히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2011년 거가대교의 개통으로 거제도와외의 접근성 증가로 관광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거가대교는 부산~거제간 거리를 140km에서 60km로 단축시켜 통행 시간이 2시간 10분에서 50분으로 단축되었다. 이를 통해 부산, 거제, 여수, 목포에 이르는 남해안 관광 인프라가 조성될 것이다.<sup>97)</sup>

외부적 위협으로는 첫째, 거제도는 자연경관을 활용한 지오투어리즘 정착을 위한 기본 인프라가 부족하다. 거제도의 대표적인 자연경관 관광지 해설관이 주요 관광지 사진이나 TV 촬영 장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수준이어서 거제도 자연경관에 대한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해설관 제작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35. 거제도 '바람의 언덕' 해설판

97) <http://geoga.gadeokdo.com>

둘째, 현재 거제도 해금강에 관광 개선을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정책적 지원을 통한 남해안 관광벨트의 사업 일환인 해금강 집단시설지구가 조성되었다. 해금강 집단시설지구는 남부면 갈곶리 일원 42,544㎡에 해금강 및 한려수도 국립공원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0년 7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의 일부로 선정되어 국비 등 공적자금 129억 2천만 원을 투입, 도로, 주차장, 광장, 오수처리장 등을 개발한 후 민간사업자 투자를 유치하여 숙박 시설 등을 조성하기로 계획을 세워 사업을 추진했다.<sup>98)</sup> 그러나 해금강 집단시설지구는 한려수도국립공원 내에 있어서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해당되고, 사업부지로부터 500m 위치에 명승 2호인 거제도 해금강이 위치해 있어서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보호구역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사업부지에 일반 호텔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한려해상국립공원 계획’에 따라 건폐율 15% 이하, 층수 5층 이하로 제한되는 등 건폐율 60%인 일반지역보다 건축규제가 강하게 적용된다. 또한 건축물 최고 높이는 15m 이내로 설치할 수밖에 없어 고도 제한 등의 건축규제로 사업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sup>99)</sup> 이러한 현실적 제약 속에서 거제시는 계획부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소홀히 한 채 공공자금을 투입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완료하였다. 그 결과 2005년 4월부터 2011년 5월까지 7차례에 걸쳐 분양을 실시하였는데도 민간투자를 유치하지 못하고 있다.<sup>100)</sup> 이러한 현상은 국내 관광지에 하드웨어적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한 결과로 인한 부작용이라 볼 수 있다.

---

98) 문화관광부, 2007, 남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 2차 변경계획, p. 84.

99) 김철문, “해금강집단시설지구 감사원 감사 지적당해,” 거제인터넷신문, 2011. 3. 21.

100) 한남일보,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해법은?,” 2011. 5. 11.

### (3) 바람직한 해금강 지오투어리즘 제안

해금강은 지오투어리즘 조건 중 지형·지질학적 기반과 유람선 투어를 통한 지속가능한 관광의 조건을 비교적 만족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금강 유람선 관광은 진정한 의미의 지속가능한 지오투어리즘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해금강 지오투어리즘이 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거제도 해금강의 지오투어리즘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오투어리즘을 담당하는 부서와 공무원을 통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거제도 문화관광과에 지오투어리즘 담당 부서를 따로 두기에는 규모가 작으므로 관광개발 담당자가 지오투어리즘 업무를 신설하고 담당 공무원을 배치하여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그림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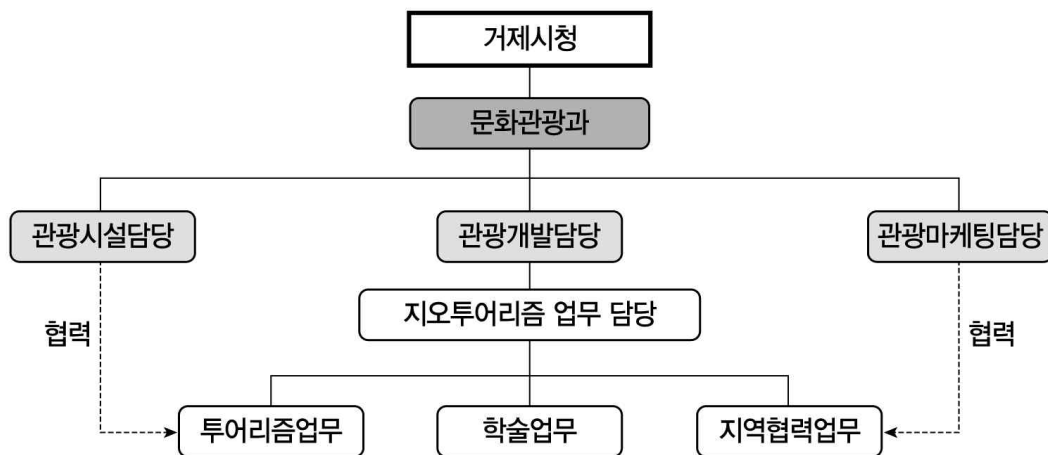


그림 36. 거제도 해금강 지오투어리즘 운영 조직 모델

관광개발담당자는 신설된 지오투어리즘 업무를 학술업무, 투어리즘업무, 지역협력업무로 업무를 분류한다. 관광개발담당자는 학술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투어리즘업무는 관광시설 업무 전반을 다루는 관광시설담당자와 협력하며, 지역협력 업무는 관광홍보 및 관광안내소 관리·지원을 담당하는 관광마케팅담당자와 협력

하여 관리한다.

학술업무는 경상남도 진주시에 위치한 국립 경상대학교 지리교육학과와 지오투어리즘 전문가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구성한다. 경상대학교의 지리교육학과는 거제도에 가장 인접한 대학으로서 지역 내 보존 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자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역 내 문화·역사적 요소를 총 망라하여 인간과 자연과의 상호작용을 해설해 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진 학과이다. 따라서 인근지역에서 오랫동안 성장하여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생생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경상대학교 지리교육과 졸업생들에게 지오투어리즘 전문 가이드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과 지오투어리즘 전문 가이드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구성과 양성을 담당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지오투어리즘 전문가들은 거제도에 대해 연구한 논문<sup>101)</sup>을 바탕으로 하여 일반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선상해설이나 지역 주민 교육을 위해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지역협력업무는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하고 유지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거제도는 최근 관광객 유치에 위해 지역 주민들에게 친절 서비스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sup>102)</sup> 이러한 주민의 참여 의식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지오투어리즘 전문 가이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또 지역 주민과 지오투어리즘 전문가와 함께 지역 특산품을 연구하여 지역 경제 발전을 가져 올 수 있도록 한다.

투어리즘업무는 관광시설 담당자와 협력하여 관광 안내소, 전망 포인트, 해설관 관리, 지오투어리즘 가이드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101) 이용일·전홍조(1994) '거제도에 분포하는 장목리층(전기 백악기) 사암의 속성 작용', 손일·조기만 (1997)의 환경부 사업의 일환으로 조사한 '거제도의 지형 경관'에 대한 연구, 이수연(2001) '거제도 남서해안의 지형경관', 손일·박경(2004) '거제도 학동 자갈 해변의 변화와 그 원인에 관한 연구', 정미영(2006) '거제도 해안 지형의 특성', 강희순(2005) '거제시의 마을명에 담긴 자연지리적 의미에 관한 고찰' 양재혁(2011) '거제도 동부해안에서 파악되는 홀로세 고해수준면과 지형발달과정' 등.

102) 뉴스앤 거제, "거제시 음식점 서비스 개선 위한 순회 친절교육," 2011. 3. 8.

### 3. 소결

본 장에서는 일반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이용한 유람선 관광으로 잘 알려진 신안군 홍도와 거제도 해금강을 한국형 지오투어리즘 모델 적용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였다. 국내 대표적인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지오투어리즘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지형·지질 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 체계가 제공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지오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해 한국형 지오투어리즘 운영 조직을 모델화하여 각 운영 조직의 역할을 제안하였다(표34).

표 34. 지오투어리즘 운영 조직을 위한 역할 제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형·지질 관련 교육 자원 확보와 지속적인 교육 기회 제공</li> <li>• 지역 주민 가이드 양성을 위해 지오투어리즘 전문가의 공급과 적절한 배치</li> <li>• 지역 주민 가이드 경제적 안정 기반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오투어리즘 개발에 지역 주민의 주체적 참여</li> <li>• 지오투어리즘 전문 가이드 역할 담당</li> <li>• 마을 지도자의 전문성과 추진력 확보를 위한 여건 조성</li> </ul>
대학 및 연구소	지오투어리즘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오투어리즘 전문 가이드 양성 담당</li> <li>• 지오투어리즘 전문 가이드 양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정 구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균형 잡힌 생태계 인식을 위한 연구</li> <li>• 지오투어리즘 관광 상품의 개발 및 육성</li> <li>• 지오투어리스트들의 정의와 경향성 파악</li> <li>• 해설 매체의 고안과 선택에 관한 연구</li> </ul>

우선 바람직한 지오투어리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환경부는 2011년 7월 11월에 개정된 자연공원법을 통해 지오파크 및 지오투어리즘 관련 법적 지원을 하며, 문화관광부에서는 지오투어리즘 실제 운영에 대한 실무 업무를 담당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문화관광과에서는 지오투어리즘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운영 조직과 담당 공무원 배치가 필요하다. 지오투어리즘 담당부서는 학술분과, 지역협력분과, 투어리즘분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술분과는 지역 내 대학의 지리학과와 지오투어리즘 전문가를 통해 전문 가이드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구성과 지오투어리즘 전문 가이드 양성을 담당한다. 그리고 지역 내 지리학과 및 지리교육과는 졸업생들에게 지오투어리즘 전문 가이드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오투어리즘 전문가들은 지역에서 발표된 연구 및 논문을 바탕으로 스토리텔링 구성 및 해설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신안군 홍도는 전남대학교의 지리교육학과, 국립 목포대학교의 도서관문화연구원을 적극 활용하고, 거제도 해금강의 경우에는 거제와 인접한 경상대학교 지리교육학과와 협력할 것을 제안해 본다.

지역협력분과는 지역 주민들이 지오투어리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오투어리즘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이 지역 내 지형·지질 자원을 이용한 특산품을 개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

투어리즘분과는 관광객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숙소, 음식점, 해설체계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한국형 지오투어리즘의 운영 조직을 구성하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연구소, 지오투어리즘 전문가, 지역 주민 참여를 중심으로 하여 각자가 역할을 인식하고 유기적인 파트너십이 유지될 때 한국형 지오투어리즘이 활성화될 것이다.

## Ⅶ. 결론

지오투어리즘은 관광산업의 새로운 분야로서 역사는 비교적 짧으나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나, 옐로스톤 국립공원, 호주의 에어즈락, 브라질의 이파수 폭포 등 독특하고 희귀한 매력을 가진 지형·지질 자원을 관광화하려는 노력은 이미 세계 각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오투어리즘이라는 용어가 국내에서는 2000년경에 처음으로 소개되었고, 지리학 분야에서는 지오투어리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 자연경관에 관한 연구가 예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지오투어리즘 개념을 언급한 연구들은 국립공원 중심의 지형·지질 자원을 이용한 코스 개발과 해설관 제작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으나 그 수가 많은 편은 아니다. 또한 2010년 제주도가 지오파크로 선정되면서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지오파크 조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지오파크가 단순한 사회적 조류가 아닌 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오파크의 가장 핵심 활동인 지오투어리즘에 관한 학문적 접근이 필요하다. 연구 방법으로 문헌연구, 국내·외 홈페이지 분석, 전문 가이드 해설이 제공되는 지역 답사, SWOT 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관광 유형인 지오투어리즘을 한국형 지오투어리즘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구체화 시키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형 지오투어리즘 개념을 재정립하고, 생태·문화·체험관광과의 차이점을 분석하여 지오투어리즘의 특성을 파악 하였다. 한국형 지오투어리즘은 지형·지질 자원뿐만 아니라 문화·역사적 요소를 포함하여 관광객들에게 방문지의 지역성을 질 높게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지오투어리즘은 비생물자원을 활용하여 계절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타 관광에 비해 경쟁력을 지닌다.

둘째,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오투어리즘 및 지오파크의 운영 사례 등을 분석하여 국내 지오투어리즘 운영에 시사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영국과 일본은 지오파크 조직 기구를 통해 정부, 대학, 시민단체, 전문가

집단 등의 유기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어 국내의 지오파크 및 지오투어리즘 운영 조직 기구의 필요성을 시사해 준다. 폴란드 대학의 지오투어리즘 전문가과정 개설은 국내 지리학과나 지리교육학과에 지오투어리즘 전문 가이드 양성 커리큘럼 개설과 졸업생들에게 가이드 자격증 부여 방안을 시사한다. 독일의 경우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지형·지질 자원을 국유화하여 관광자원화하고 있으며, 지오투어리즘 가이드 교육 방법에 있어 지속적인 세미나와 보수 교육을 중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지형·지질 교육의 단기적 일회성 교육보다는 지속적인 보수 교육 중심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국내 지오투어리즘의 현황을 살펴보고 지형·지질 자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다.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분석 결과 자연생태 관광지 중 지형·지질 관련 관광지가 6%로 매우 낮았으며 관광지 안내 해설 또한 전문적이지 못한 상태였다. 국립공원 홈페이지에서 분석된 자연관찰로의 비생물자원 해설판도 4.5%로 상당히 비중이 낮으며, 생태 관광 프로그램 역시 비슷한 내용과 운영방식을 보인다. 그리고 국내 해설가 양성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지형·지질 교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형·지질 경관을 기반으로 문화와 역사가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형·지질 관련 교육 비율은 상당히 낮았다. 따라서 바람직한 지오투어리즘 발전을 위하여 국내생태계에 대해 균형을 잡힌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전문 가이드 해설이 제공되는 국내 지오투어리즘을 운영 주체에 따라 분석하고, 해외사례의 시사점을 반영하여 한국형 지오투어리즘 운영 조직 모델과 주체별로 역할을 제안하였다.

국내 지형·지질 전문 가이드 해설이 제공되는 제주도 세계자연유산인 성산일출봉, 거문오름과 강원도의 영월 호야 지리 박물관의 지리트레킹, DMZ 지오투어리즘 사례를 운영 주체에 따라 분류하여 SWOT 분석을 시행하였다. 국내 지오투어리즘 운영 주체별 분석과 해외 사례의 시사점을 반영하여 한국형 지오투어리즘 정착을 위한 운영 조직 및 각 조직의 역할을 제안한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오투어리즘 운영 조직 구성 및 담당 공무원 배치를 제안한다. 환경부의 자연공원과에서는 2011년 개정된 자연공원법에 의거하여 지오파크 및 지오투어리즘의 법적 관리를 담당할 것이다. 이러한 법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문화관광과에서는 지오투어리즘 담당 부서 및 공무원을 배치하고 하위 조직으로 학술분과와 지역협력분과, 투어리즘분과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운영 조직을 통해 대학 및 연구소, 지오투어리즘 전문가,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분야별 파트너십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학 및 연구소는 지오투어리즘 전문 가이드 양성을 제안한다. 특히 지리학과 졸업생들에게 지오투어리즘 전문 가이드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조성하여 졸업생들의 취업 기회를 넓혀주는 것도 지오투어리즘 정착 및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오투어리즘 전문 가이드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

지오투어리즘 전문 가이드는 지역에 발표된 지형·지질 관련 논문 및 보고서를 통해 문화와 역사적 요소가 적절히 반영된 스토리텔링을 구성하며 관광객들이 자연경관 감상과 함께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과 분량으로 해설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지역 주민은 지형·지질 자원을 관리하거나 전문 가이드 역할을 담당한다. 지역 주민 지오투어리즘 가이드는 외지 출신의 가이드와는 달리 그 지역의 지역성 및 지역애도 가질 수 있어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서로 이해하고 각각의 문화를 존중하며 융합할 기회를 제공해 주며 지역 내 새로운 일자리 및 소득원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신안군 홍도와 거제도 해금강의 유람선 관광에 지오투어리즘 운영 조직 모델을 적용하여 바람직한 한국형 지오투어리즘 정착을 제안하는 것이다.

지오투어리즘 정착을 위한 바람직한 모델을 자연경관이 뛰어난 신안군 홍도와 거제도 해금강의 유람선 관광의 선상해설에 적용하였다. 두 지역 모두 자연

경관을 대상으로 유람선 관광이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지형·지질 관련 전문 지식을 관광객들에게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어 지오투어리즘이라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지오투어리즘이 되기 위해서 신안군 문화관광과, 거제시 문화관광과에 지오투어리즘 운영 조직 구성 및 담당공무원을 배치하고 담당업무는 학술업무, 지역협력업무, 투어리즘업무로 분류한다.

본 연구의 문제점 및 앞으로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오투어리즘은 문화·역사·지역 복지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학문 분야의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지오투어리즘의 정의는 지오투어리즘의 개발 방향과 전략 등에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지오투어리즘에 대한 바람직한 개념 정립이 요구된다.

둘째, 국내 지오투어리즘은 초기 단계이므로 관광객들에게 지오투어리즘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부족하다. 그러므로 지오투어리즘이 활성화되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효과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지오투어리즘의 학술적 발전을 위해서는 지오투어리스트의 개념을 정의하고 동시에 그들의 경향성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는 지오투어리스트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요소들을 파악하여, 관광과 지적 호기심이 적절하게 만족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해설을 구성하는데 기초적 연구가 될 것이다.

넷째, 지오투어리즘 전문 가이드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형·지질 가이드 양성교육과정 연구가 필요하다. 제주도와 강원도 DMZ 지오파크의 경우 지형·지질관련 전문 가이드 교육이 실시되고는 있으나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구체적인 교육과정 분석은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내 지오투어리즘 활동이 미진한 관계로 한국형 지오투어리즘의 정착 방안에 대한 큰 틀을 논의한 연구에 머물렀지만 이를 바탕으로 지오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한 세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국내 단행본

- 권동희, 2006, 한국의 지형, 한울 아카데미.  
권혁재, 2002, 지형학(제4판), 법문사.  
김성진, 2001, 지속가능한 관광과 지역 주민 참여, 서울: 일신사.  
신안군 문화관광과, 2004, 섬·섬·섬·천사(1004)의 섬 신안 여행.  
전영권, 2003, 이야기와 함께하는 전영권의 대구지리, 도서출판 신일.  
한국 관광학회, 2009, 관광학 총론, 백신출판사.

### 2. 국내 학술지 논문

- 강동진, 2000, “일본 전통마을의 유지·관리방법 분석,” 한국조경학회지 8(4): 91-104.  
고선영, 2009, “제주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생태 관광,”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2): 216-225.  
고의장, 1998, “홍도의 자연경관에 대한 관광지형학적인 분석,” 세종대학교 논문집, 자연과학대학편 15(2): 29-30.  
고의장, 2000, “태안해안 국립공원의 관광 지형학적 특성,” 지리학연구 34(1): 27-37.  
고의장, 2002, “국립공원 지리산 동부지역의 자연경관에 대한 지형학적 특성,” 지리학연구 36(2): 113-129.  
고의장, 2001,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자연경관에 대한 지형학적 특성,” 지리학연구 35(2): 127-138.  
고정선, 2007, “제주도 성산일출봉 일대 현무암에 대한 암석학적 연구,” 한국지구과학학회지 28(3): 326  
공달용·이성주, 2009, “천연기념물 제413호 영월 문곡리 스트로마톨라이트에

- 대한 고찰,” 지질학회지 45(6): 711-723.
- 구호 · 김농오, “신안군 생태 관광자원을 활용한 에코투어리즘 적지분석,” 관광연구저널 23(1): 267-269.
- 김성섭 · 이희승, 2008, “한국관광상품에 대한 지불의사가격 추정을 통해 가치 측정 및 관광객 특성 분석: 신(新) 생태 관광 상품인 동굴관광에 적용,” 호텔경영학연구 17(1): 175-198.
- 김성일 · 장호찬 · 강미희, 1999, “생태 관광특화를 위한 환경문화축제의 발전 가능성 및 과제,” 21세기 올바른 지방문화축제의 정착 및 발전 방향, pp. 35-86.
- 김창환, 2009, “한국에서의 지오파크 활동과 지리학적 의미,” 한국지형학회지 16(1): 57-66.
- 김창환, 2010, “지오파크와 지리학의 역할,” 한국지형학회지 18(1): 73-83.
- 박 경, 2003, “국립공원 경관가치의 증진 방안,” 환경영향평가 12(5): 369-382.
- 박 경 · 이해미, 2009, “백령도의 보존가치가 높은 지형과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응용지리 28: 77-89.
- 박미영, 2011, “홍도 지형 자원을 활용한 지오투어리즘,”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7(1): 109-121.
- 박종원, 2009, “생태 관광 추진을 위한 일본의 법제와 그 시사점,” 법학논총 26(3): 179-199.
- 박준우 · 윤병섭, 2002, “한국 하회마을과 일본 시라카와마을의 관광 특성,” 한국문화관광학회 문화관광연구 4(1): 28-31.
- 손일 · 박 경, 2004, “거제도 학동 자갈해빈의 변화와 그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 10(1): 177-191.
- 이주희, 2004, “산림환경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개발,” 한국산림휴양학회지, 8(1): 1-7.
- 이중환, 2003, “우리나라 생태 관광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원휴양

- 학회지 5(1): 209-210.
- 이용일, 1995, “거제도 백악기 장목리층 사암의 속성기원 방해석,” 대한지질학회, 31(2), p. 162.
- 이용일 · 전홍조, 1994, “거제도에 분포하는 장목리층(전기 백악기) 사암의 속성 작용,” 대한지질학회 학술대회 1: 51.
- 어영숙, 2009, “지속가능한 미래 전략으로서 생태 관광의 전망,” 관광연구 저널 23(4): 383-401.
- 우경식, 1993, “영월형 조선누층군 탄산염암의 퇴적환경과 속성사,” 대한지질학회 제48차 정기총회 및 학술 발표회, p.35.
- 유환수 · 유경아 · 고영구, 1997, “전남 신안군 홍도지역의 지질 및 해양환경,” 전남대학교 지구과학 학회지 21: 135-141.
- 윤성호·이준동·이상원·고정선·서운지, 1997, “거제도 화산암의 암석학적 연구,” 암석학회지 6(1): 1-18.
- 윤화영 · 김동석, 2004, “우리나라 산림생태 관광 가이드 육성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산림휴양학회지 8(4): 41-51.
- 양재혁, 2011, “거제도 동부해안에서 파악되는 홀로세 고해수준면과 지형발달 과정.” 한국지형학회지 18(1): 1-10.
- 전영권 · 손명원, 2004, “대구 비슬산지 내 지형자원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 53-66.
- 전영권, 2005, “지오투어리즘(Geo-tourism)을 위한 대구 앞산 활용방안,”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1(6): 517-529.
- 전영권, 2009, “지오투어리즘과 교육적 활용을 위한 문화지형의 발굴과 스토리텔링 구성,” 한국사진지리학회지, 19(4): 107-117.
- 전영권, 2010, “대구 신천과 금호강 일대의 문화지형 발굴과 스토리텔링 구성,” 한국지형학회지 17(3): 17-30.
- 전영권, 2010, “한국의 지오투어리즘,” 한국지형학회지 17(4): 1-15.

- 정강환, 2000, “지질관광대상지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시장 분석과 관광 프로그램 및 이벤트 개발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24(1): 281-296.
- 한성호, 2009, “축제관광객의 유형세분화와 SWOT 분석을 이용한 운영전략: 영국의 브라이튼 축제 사례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3(1): 365
- 황상구 · 안웅산 · 이문원 · 윤성효, 2005, “제주도 북동부 거문오름 용암 튜브계의 형성과 내부구조,” 지질학회지, 41: 385-400.
- 허철호 · 최상훈, 2007, “관광지질학 활성화를 위한 지질 및 지형경관자원 개발에 관한 연구: 태안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한국지구과학학회 28(1): 75-86.
- 허철호 · 김성용 · 윤성택, 2005, “오대산 국립공원의 지질 및 지형경관자원 조사를 통한 관광지질학적 가치 증진: 지구과학의 대중적 이해,” 한국지구과학학회 26(3): 218-231.
- 최정수, 2003, “생태 관광과 로컬 거버넌스,” 한국경제지리학회지 6(1): 236-237.

### 3. 국내 학위 논문

- 고은경, 2003, “제주도의 오름 생태 관광 해설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 강희순, 2005, “거제시의 마을명에 담긴 자연지리적 의미에 관한 고찰,”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 강미희, 1999, “생태 관광객의 여행 동기 및 태도 : 척도 구축과 관광객유형별 비교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산림자원학과 박사학위 논문.
- 강영란, 2011, “관광자원해설사의 교육참여동기 요인 및 행태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석사학위 논문, pp.20-23.
- 문창현, 2005, “순천만지역의 생태 관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지리전공 박사학위 논문.
- 박미영, 2006, “지오투어리즘(Geo-tourism)의 북한산 국립공원 적용사례연

- 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지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 이재혁, 2010, “생태 관광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지표설정과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석사학위 논문.
- 이수연, 2001, “거제도 남서해안의 지형경관,”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지리교육전공 석사학위 논문, p. 14.
- 오정준, 2003,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관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
- 안송이, 2010, “지오투어리즘을 적용한 지형관찰 학습길 활성화 방안-설악산 국립공원을 사례로,”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미영, 2006, “거제도 해안 지형의 특성,”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지리교육학과 석사학위, p. 15-16.
- 정필모, 2009, “지오투어리즘을 적용한 주왕산 국립공원의 자연관찰로 개발,”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진희, 2006, “지속가능한 생태 관광을 위한 관광객의 관광태도, 관광동기 및 환경의식,” 계명대학교 대학원 환경과학과 박사학위 논문.
- 조록환, 2003, “농촌관광정책에 의한 관광마을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의 특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 26.
- 한승희, 2007, “팔공산 수태골의 지형자원을 활용한 지오투어리즘,”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하시연, 2006, “숲해설가 양성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환경교육 전공 박사학위 논문.

#### 4. 국내 보고서 및 기타

- 국립공원관리공단, 2005, 국립공원백서.
- 국립공원관리공단, 2008, 국립공원탐방프로그램 안내서.

- 국토해양부, 2010, 해양생태계 보도자료.
- 강원도 DMZ 지오파크조성사업단, 2010, 인터프리터 현장실습 자료집, p. 9.
- 강원도 DMZ 지오파크조성사업단, 2011, 지오파크, 대학지리학회 발표 자료집, p. 11.
- 강원도 DMZ 지오파크조성사업단, 2011, 산인해안 지오파크 출장 보고서.
- 문화관광부, 2007, 남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 2차 변경계획, p. 84.
- 신안군, 2004, 신안군 관광 종합 발전계획.
- 손일 · 조기만, 1997, 거제도(9-7)의 지형경관, 환경부, p. 4-5.
- 울릉군, 2008, 울릉도-독도의 세계 유산 및 세계지질공원 등록을 위한 기초 학술 및 타당성 조사.
- 안용산 · 황상구 · 길영우, 2009, 만장굴 용암동굴을 형성한 용암의 공급지에 관한 연구, 2009년 춘계지질과학기술 공동학술대회, p. 216.
- 산림청, 2007, 제1회 전국 숲해설가대회 및 통합 Workshop 자료집.
- 제주특별자치도, 2010, 세계자연유산 해설 표준 교재,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pp. 102-113.
- 제주특별자치도, 2009, 세계자연유산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p. 37.
- 제주특별자치도, 2009,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관광문화상품 개발 보고서.
- 제주특별자치도, 2009, 만장굴 주변 지구물리탐사 보고서, p.182.
- 제주특별자치도, 2009,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교육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08,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기초학술조사 보고서 pp. 127-137.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2010,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pp. 72-74.
- 국토연구원, 2005, 생태 관광 활성화방안 연구: 지역 주민참여 유도를 중심으로.
- 한국관광공사, 1997,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p. 7.
- 환경부, 2002, 생태 관광 지침 개발 및 활성화방안, p. 7.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05, UNESCO 지정 World Geopark 선정을 위한 National Geopark 개발연구, pp. 34-36.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제주발전연구원, 2006, 제주도 지질여행, P. 183.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2003, 보존 가치가 있는 지형·지질의 대상 설정에  
 관한 연구, pp. 33-45.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2009, 유네스코 지질공원의 특성과 시사점 연구.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2008, 한국의 지질유산 정보구축 및 관리 방안.  
 한라일보, 2009, 거문오름, pp. 11-17.  
 홍성조 · 유호상, 1997, 홍도·흑산도 지역의 지형경관, 환경부, pp. 1-6.

## 5. 신문기사

강시영, “지오투어(Geo-Tour)시대 열린다- 獨 불칸아이펠 르포(상)(하),” 한라  
 일보, 2009. 1.1.  
 강원도민일보, “강원 10대 브랜드 사업 이런 성과 거뒀습니다.” 2009. 11. 26.  
 김광희, “국내 최대 석회암지대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 강원일보, 2010. 11. 10.  
 김선태, “홍도·흑산도 유감,” 전남일보, 2009. 12. 7.  
 김철문, “해금강집단지설지구 감사원 감사 지적당해”, 거제인터넷신문, 2011. 3. 21.  
 뉴스앤 거제, “거제시 음식점 서비스 개선 위한 순회 친절교육,” 2011. 3. 8.  
 이태인, “남해대학 5년 연속 문화관광해설사 전문 양성기관 선정,” CNBNEWS,  
 2011. 6. 3.  
 위영석, “7대 경관엔 '평평' 지질공원은 '찜뭍,’” 한라일보, 2010. 11. 15.  
 조승원, “세계자연유산 등재 후 3년...성과와 과제는?,” 미디어 제주, 2010. 6. 27.  
 장하나, “정부, DMZ 일대 생태 관광벨트로 육성,” 강원일보, 2011. 7. 27.  
 한남일보,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해법은?,” 2011. 5. 11.

## 6. 국외 단행본

R. K. Dowling and D. Newsome, 2006, Geotourism.  
 R. K. Dowling and D. Newsome, 2010, Geotourism: The Tourism of

Geology and Landscape.

R. K. Dowling and D. Newsome, 2010, *Global Geotourism Perspectives*.

## 7. 국외 논문

Australian Conservation Foundation, 1994, "Industry research report,"  
Melbourne: Australian Conservation Foundation, p. 149.

Bastion, R. De., 1994, "The private sector—threat or opportunity?,"  
*Geological and Landscape Conservation*, Geological Society,  
London, pp. 391–395.

Boley, B.B., Nickerson, N.P., 2010, "Measuring Geotourism: Developing  
and Testing the Geotraveler Tendency Scale (GTS)," *Journal of  
Travel Research*, October, 20, pp. 1–12.

Boley, B.B., 2006, *Geotourism in the crown of the continent: developing*  
Buckely, R., 2003, "Environmental inputs and outputs in ecotourism:  
geotourism with a positive triple bottom line?," *Journal of  
Ecotourism*, 2(1): 76–82.

Burton, F., 1998, "Can ecotourism objective be achieved?," *Annals of  
Tourism Research*, 25(3): 755–758.

Butler, R. W., 1990, "Alternative Tourism: Pious Hope or Trojan?,"  
*Journal of Travel Research*, 28(3), p. 42.

Ceballos-Lascurain, H., 1983, "The Future of Eco-tourism," *Mexico  
Journal*, 119: 7.

Christian Wittlich, 2010, "Geotourism product interpretation: Rangitoto I  
sland, Auckland, New Zealand," In Newsome, D. and Dowling,  
R.K.(eds) *Geotourism: The Tourism of Geology and Landscape*,  
Goodfellow Publishers Ltd., Oxford, p. 162.

- Creaser, p., 2010, "Australia's Geological Heritage: raising awareness at national level," In Newsome, D. and Dowling, R.K.(eds) *Geotourism: The Tourism of Geology and Landscape*, Goodfellow Publishers Ltd., Oxford, pp. 18-30.
- Dowling, R.K. and Newsome, D., 2006, "The scope and nature of geotourism," in Dowling, R.K. and Newsome, D.(eds), *Geotourism*, Elsevier Ltd, Oxford, pp. 4-6.
- Dowling, R.K., 2011, "Geotourism is Global Growth," *Geoheritage* 3(1): 1.
- Dowling, R.K., 2009, "Geotourism's contribution to Local and Regional Development," In: Neto de Carvalho, C. e Rodrigues, J. C.(eds), *Geoturismo & Desenvolvimento Local, Idanha-a-Nova*, pp. 15-37.
- Dowling, R.K., 2011, "Geotourism's Global Growth," *Geoheritage*, 3(1): 1-13.
- Dowling, R.K., 1976, "Environmental education," *New Zealand Environment* 16: 24-25
- Farsani, N.T., Coelho C, and Costa C, 2010, "Geoparks as Art Museums for Geotourists," *Journal of Tourism and Development* 2(13/14): 567-576.
- Farsani, N.T., Coelho, C. and Costa, C., 2011, "Geotourism and Geoparks as Novel Strategies for Socio-economic Development in Rural Areas," *INTERANTIONAL JOURNAL OF TOURISM RESEARCH Int. J. Tourism Res.* 13, pp. 68-81.
- Frey, M.L., 2006, "Geoparks a regional European and global policy in Dowling," R.K. and Newsome, D.(eds), *Geotourism*, Elsevier Ltd., Oxford, pp. 104-110.
- Grant, C., 2010, "Towards a typology of visitors to gosites. Paper presented at the Second Global Geotourism Conference," *Making*

- Unique Landforms Understandable. Mulu, Sarawak, Malaysia, April, pp. 17-20.
- Ham, S. H., 1992. "Environmental Interpretation," North American Press, p.25.
- Harry Coccossis, 1995, "Sustainable Tourism European Experiences," CAB International, p. 10.
- Hose, T.A., 1995, "Selling the story of Britain's stone," Environmental Interpretation, May, pp. 16-17.
- Hose, T.A., 1996, "Geotourism, or can tourist become casual rock hounds?, Geology on your Door-step," The Geological Society, pp. 207-228.
- Hose, T.A., 2000, "European Geotourism Geological Interpretation and geoconservation promotion for tourists," In D. Barretion, W.A.P.Wimbledon and E. Gallego(eds), Geological Heritage: Its Conservation and Management, Instituto Tecnológico GeoMinero de Espana.
- Hose, T.A., 2006, "Geotourism and interpretation," in Dowling, R.K. and Newsome, D.(eds), Geotourism, Elsevier Ltd., Oxford, p.248.
- Hose, T.A., 2007, "Geotourism in Almeria Province, southeast Spain," Tourism, 55(2): 259-276.
- Hose, T.A., 2008, "Towards a history of geotourism: definitions, antecedents and the future," Geological Society Special Publication, 300(1): 37-38.
- Hughes, K. and Ballantyne, R., 2010, "Interpretation rocks! Designing signs for geotourism sites," In Newsome, D. and Dowling, R.K.(eds) Geotourism: The Tourism of Geology and Landscape, Goodfellow Publishers Ltd., Oxford, pp. 184-199.

- Joyce, E.B., 2006, "Geomorphological sites and the new Geotourism in Australia," *Geotourism Review* webj, pp. 5-21.
- Joyce, E.B., 2010, "Australia's geological heritage: a national inventory for future geoparks and geotourism," In Newsome, D. and Dowling, R.K.(eds) *Geotourism: The Tourism of Geology and Landscape*, Goodfellow Publishers Ltd., Oxford, pp. 27-42.
- Juric, B., Cornwell, T.B.& Mather, D., 2002, "Exploring the usefulness of an ecotourism interest scale," *Journal of Travel Research*, 40(3): 259-269.
- Karkut, J., 2010, "Reconsidering the boundaries and applications of Geotourism - lessons learnt from tourism at Mount Vesuvius, in Poland," In Newsome, D. and Dowling, R.K.(eds) *Geotourism: The Tourism of Geology and Landscape*, Goodfellow Publishers Ltd., Oxford, pp. 96-97.
- Kommo, I., et al., 2010, "Public Education in Heritage Conservation for Geopark Community," *Procedia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7(C): 504-511.
- Kommo, I., et al., 2011, "The Langkawi Global Geopark: local community's perspectives on public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17(3): 267.
- Kusler, J. A., 1991, "Ecotourism and Resources Conservation," in A Collection of Papers from Fiji and Second International Symposium Ecotourism and Resources Conservation, p. 2.
- Maher, P., 2010, "The Geology of Ireland: providing a catalyst for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In Dowling, R.K. and Newsome, D.(eds) *Global Geotourism Perspectives*, Oxford:

- Goodfellow Publishers, pp. 153-156.
- Mao, I., Robinson, A.M. & Dowling, R.K., 2009, "Potential Geotourism: An Australian Case Study," *Journal of Tourism*, In Newsome, D. and Dowling, R.K.(eds) *Geotourism: The Tourism of Geology and Landscape*, Goodfellow Publishers Ltd., Oxford, p. 4.
- Marie-Luise F.(eds), 2006, "Geotourism and interpretation," *Geotourism*, Elsevier Ltd., Oxford, pp. 96-109.
- Martin, S., 2010, "The Grand Canyon, USA: the experience of managing a world-class geotourism destination," In Dowling, R.K. and Newsome, D.(eds) *Global Geotourism Perspectives*, Oxford: Goodfellow Publishers, pp. 167-178.
- Pralong, J.P., 2006, "Geotourism: A new form of tourism utilising natural landscapes and based on imagination and emotion," *Tourism Review* 61(3): 20-25.
- Slomka, T., Swiderska, K., 2004, "Geotourism-the basic concepts," *Geotourism*(1): 2-5.
- Slomka, T., Mayer, W., 2010, "Geotourism and geotourist education in Poland," In Newsome, D. and Dowling, R.K.(eds) *Geotourism: The Tourism of Geology and Landscape*, Goodfellow Publishers Ltd., Oxford, pp. 142-152.
- Stuve, A. M., Cook, S. D. and Drew, D., 2002, "The Geotourism Study : Phase 1 Executive Summary. National Geographic Traveller," Travel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p. 1.
- Thompson, S., 2007, "Celebrating the Crown of the Continent." "RECM 210" Nature-based Tourism Class," University of Montana Missoula, Montana. Fall 2007.

- Tourtellot's, J., 2006, "World heritage destination rated,"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pp. 113-124.
- Walden, et al., 2010, "USA science byways-connecting people to places," In Newsome, D. and Dowling, R.K.(eds) Geotourism: The Tourism of Geology and Landscape, Goodfellow Publishers Ltd., Oxford, p. 212.
- Wallace, D. R., 1992, "Is Eco'tourism FOR REAL?," Landscape architecture, 82(8), 34-36.
- Wittlich, C., 2010, "Geotourism product interpretation: Rangitoto I sland, Auckland, New Zealand," In Newsome, D. and Dowling, R.K.(eds) Geotourism: The Tourism of Geology and Landscape, Goodfellow Publishers Ltd., Oxford, pp. 158-170.
- Young Ng, Lok Wang Fun and Newsome, D., 2010, "Hong Kong Geopark: uncovering the geology of a metropolis," In Newsome, D. and Dowling, R.K.(eds) Geotourism: The Tourism of Geology and Landscape, Goodfellow Publishers Ltd., Oxford, pp. 179-190.

#### 8. 국외 보고서 및 기타

- Guidelines and Criteria for National Geoparks seeking UNESCO's assistance to join the Global Geoparks Network.
- TDA, 2009, Turning the tide for tourism in Torbay 2010-2015, Torbay Development Agency.
- The International Ecotourism Society, 1991, "The Ecotourism Society;An Action Agenda. In J. A. Kusler ed. Ecotourism and Resource Conservation," pp. 75-79.
- UNESCO, 2006, Guidelines and Criteria for National Geoparks seeking UNESCO's assistance to join the Global Geoparks Network, Paris,

January, Internal document, 10.

World Tourism Organization, 1992, "Agenda 21 for the Travel & Tourism Industry." pp. 3-4.

#### 9. 국내·외 웹사이트

<http://www.englishrivierageopark.org.uk>

<http://www.europeangeoparks.org>

<http://www.geopark-vulkaneifel.de>

<http://www.globalgeotourism.com>

<http://www.globalgeopark.org/english>

<http://www.nationalgeographic.com>

<http://www.northpennines.org.uk>

[http://sanin-geo.jp/en/index\\_english.html](http://sanin-geo.jp/en/index_english.html)

<http://www.unesco.org/science/earth/geoparks.shtm>

거제시청 문화관광 <http://tour.geoje.go.kr/index.sko>

경상남도청 문화관광 <http://gntour.com/index.jsp>

국립공원 홈페이지 <http://main.knps.or.kr/main/main.do>

국립공원 에코투어 <http://ecotour.knps.or.kr>

도서문화연구원 홈페이지 <http://islands.mokpo.ac.kr>

목포시 문화관광과 <http://tour.mokpo.go.kr/home/tour>

신안군청 <http://tour.shinan.go.kr>

숲해설가 협회 <http://www.foresto.org>

숲연구소 <http://www.ecoedu.net>

유네스코 세계지오파크 <http://www.globalgeopark.org>

연천군 문화관광과 [http://www.iyc21.net/\\_yc/tour/a06\\_b01\\_c01.asp](http://www.iyc21.net/_yc/tour/a06_b01_c01.asp)

제주유네스코 홈페이지 <http://jejuwnh.jeju.go.kr>

제주도 지오파크 <http://geopark.jeju.go.kr>  
제주도 관광정보 <http://www.jejutour.go.kr>  
춘천 생명의 숲 <http://chforest.org>  
창녕군 문화관광과 <http://tour.cng.go.kr/main>  
하동군 문화관광과 <http://tour.hadong.go.kr/main>  
한국관광공사 <http://korean.visitkorea.or.kr>  
해금강 유람선 홈페이지 <http://www.hggtour.net/intro/03.html>  
호야 지리 박물관 <http://www.geomuseum.co.kr>  
홍도유람선협업(주) <http://hongdoro.com/hongdoro/home.php>  
DMZ지오파크 [http://dmzgeopark.com/land12\\_2.php](http://dmzgeopark.com/land12_2.php)

# ABSTRACT

## A Study for Consolidating the Korean Geotourism

Park , Min Young

Major on Geomorphic Geography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Park, Kyeong)

Since Jeju Island Geopark was confirmed as a Global Geoparks Network member in October, 2010, which is for the first time in South Korea, local governments have started to pay attention to their geographical and geological resources to develop them as geo-attractions. Geotourism is an important sector of geopark, as it stimulates sustainable development, local socio-economic development as well as educational effects, from which geo-scientific knowledge can be communicated between the local population and the public. It is also a rapidly emerging paradigm of nature-based tourism and is attractive in terms of its year-round accessibility to the sites. As geopark is more recognized by the public, geotourism is also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sustainable regional development by taking responsibilities including nature protection, conservation of geographic heritage and community involvement.

In South Korea, geotourism has been introduced to the public since 2000. Based on over a decade history, it is necessary to present how it

can establish a platform for its further development and improvement across the country. In this regard, this study is to demonstrate how to develop Korean geotourism that is particularly applicable to domestic environment based on the reestablishment of geotourism.

Firstly, Korean Geotourism is redefined based on the precedent studies, followed by the case studies from overseas geotourism and geoparks, because there is not enough analysis from the domestic case studies. In order to analyze domestic situation of geotourism, I propose to observe those guided tours provided by the Korea National Parks Service and the Korea Tourism Organization in their websites. Also, it is necessary to grasp the geological and geographical education condition from the tourism advisor curriculum.

According to the field investigation, there are various geotourism sites where professional geological and geographical guided tours are provided such as Seongsan Ilchulbong Tuff Cone and Geomunoreum Lava Tube System in Jeju Island, and the Hoya Museum of Geography and the DMZ Geography Park in Gangwon province. Operating bodies of geotourism are vary including the government, municipal corporations, universities, professionals and local residents.

For Seongsan Ilchulbong Tuff Cone, which is led by the government and local communities, natural heritage advisors are directly trained and managed by the local government. DMZ Geography Park, which is operated by a local university, is to develop geo-sites and train advisors by university. Since Hoya Museum of Geography is run by the geography teacher who is retired, he as a specialist manages the museum and leads geo-site's trekking. Geomunoreum Lava Tube System

in Jeju Island, in particular, is set up the most desirable provision in domestic environment, where the local resident who is educated for the natural heritage advisor, directs the management of geopark as well as guided tour activities.

In this study, SWOT analysis is conducted to evaluate geotourism, which are shown in different formats depending on an operating body. In addition, based on the implication from those case studies of foreign countries, I propose the Korean Geotourism model that a geotourism organization is necessary in order to facilitate the collaboration and sharing responsibilities among respective operating bodies.

The result of the analysis presented in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in order to further development of geotourism in South Korea, a local government has to establish a geotourism organization, under which separate administration offices and officers take professional responsibilities. Geotourism organization can improve efficiency by placing the department of academic research, department of local residents cooperation and department of tourism respectively. In conjunction with local universities, research centers as well as geotourism professionals, academic department trains geotourism advisors and develops education materials. Department of local residents cooperation supports to have the local residents taking parts in geotourism in terms of guided-tours and geo-sites management and conservation. For department of tourism, it is necessary to facilitate the geotourism by providing desirable contents to tourists and visitors.

I apply the geotourism organization model to Hong island in Shinan-gun and Haegeum river in Geoje island in this study. Although

both regions are well known for their cruise tours, privately-guided-tour on the cruise ship is insufficient in terms of delivering geological and geographical information from geotourism perspective. Therefore, in order to develop the desirable Korean geotourism, cruise tours at Hong island in Shinan-gun and Haegeum river in Geoje island have to be supported by the local governments through the geotourism organization as well as the partnership among administrative bodies.

To sum up, it is important to discuss how the domestic geotourism can be further developed and improved in this study.

부록 1. GGN 가입국 현황(2011.10)

국가	지오 파크
Australia (1)	Kanawinga Geopark
Austria(1)	Nature Park Eisenwurzen
Brazil(1)	Araripe Geopark
China (24)	Mount Lushan Geopark (WH) Fangshan Geopark Geopark Wudalianchi (MAB) Leiqiong Geopark Songshan Geopark Funiushan Geopark Yuntaishan Geopark Wangwushan-Daimeishan Geopark Danxiashan Geopark Jingpohu Geopark Shilin Geopark (WH) Taishan Geopark (WH) Zhangjiajie Geopark Longhushan Geopark Huangshan Geopark (WH) Zigong Geopark Xingwen National Geopark Alaxa Geopark Hexigten National Geopark Qinling Geopark Yandangshan National Geopark Ningde Geopark Taining National Geopark Leye-Fengshan Geopark
Canada (1)	Stonehammer Geopark (WH, MAB)
Croatia (1)	Papuk Geopark
Czech Republic (1)	Bohemian Paradise Geopark
Finland (1)	Rokua Geopark
France(2)	Reserve Géologique de Haute Provence Park Naturel Régional du Luberon
Greece (4)	Petrified Forest of Lesvos Psiloritis Natural Park Helmos Vouraikos National Park Vikos-Aoos Geopark
Germany (5)	Vulkaneifel Geopark Nature park Terra Vita Geopark Swabian Albs Geopark Harz Braunschweiger Land Ostfalen Geopark Bergstrasse - Odenwald
Hungary and Slovakia (1)	Novohrad-Nograd Geopark

Iran (1)	Qeshm Geopark
Italy (7)	Madonie Natural Park Parco del Beigua Parco Geominerario Sardegna Adamello-Brenta Geopark Rocca di Cerere Cilento and Vallo di Diano Geopark (WH) Tuscan Mining Geopark
Japan (4)	Itoigawa Geopark Toya Caldera and Usu Volcano Unzen Volcanic Area Geopark Sanin Kaigan Geopark New
Korea (1)	Jeju Geopark (WH)
Malaysia (1)	Langkawi Geopark
Norway (2)	Gea-Norvegica Geopark Magma Geopark
Portugal (2)	Naturtejo Geopark Arouca Geopark
Republic of Ireland (1)	Copper Coast
Republic of Ireland / Northern Ireland (1)	Marble Arch Caves & Cuilcagh Mt. Park
Romania (1)	Hateg Country Dinosaur Geopark
Spain (5)	Maestrazgo Cultural Park Subeticas Geopark Sobrarbe Geopark Capo de Gata (MAB) Basque Coast Geopark
United Kingdom (7)	North Pennines AONB Geopark North West Highlands – Scotland Forest Fawr Geopark – Wales Lochaber – Scotland English Riviera Geopark – England Geo Mon Geopark – Wales Shetland Geopark – Shetland Isl.
Vietnam (1)	Dong Van Karst Geopark

부록 2. 자연생태 관광지역 분류(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2010)

표1. 생태공원

	지역	생태공원		지역	생태공원
1	서울 강동구	암사둔치생태공원	15	경기도 파주시	DMZ 생태연구소
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샛강생태공원	16	경기도 양평군	두물머리 애벌레 생태학교
3	서울 강서구	강서습지생태공원	17	경기도 양평군	양평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4	서울 도봉구	서울창포원	18	광주 북구	광주호수생태원
5	서울 관악구	관악산 생태공원	19	부산 사하구	낙동강하구에코센터
6	서울 광진구	아차산 생태공원	20	대전 동구	추동인공생태습지
7	서울 서초구	우면산 자연생태공원	21	강원도 횡성군	홀로세 생태학교
8	서울 강동구	길동 자연생태공원	22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9	서울 서초구	현인릉 생태경관보전지역	23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나비생태공원
10	서울 강동구	고덕동 보전지역	24	전라북도 부안군	줄포자연생태공원
11	서울 송파구	방이동 보전지역	25	전라북도 임실군	구담마을
12	경기도 광주시	경안천 습지생태공원	26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 자연생태공원
13	경기도 시흥시	갯골생태공원	27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14	경기도 양평군	한강생태학습장	28	제주도 서귀포시	걸매생태공원

표 2. 천문대

	지역	천문대		지역	천문대
1	경기도 여주군	세종 천문대	11	대전 유성구	대전시민 천문대
2	경기도 안성시	안성 천문대	12	강원도 양구군	국토정중앙 천문대
3	경기도 가평군	코스모피아 천문대	13	강원도 횡성군	우리별 천문대
4	경기도 양평군	중미산 천문대	14	강원도 영월군	영월 별마로 천문대
5	경기도 가평군	자연과별 천문대	15	강원도 횡성군	천문인 마을
6	경기도 군포시	누리 천문대	16	충청남도 청양군	칠갑산천문대 스타파크
7	경기도 용인시	경희 천문대	17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천문우주과학공원
8	경기도 고양시	어린이 천문대	18	경상북도 영천시	보현산 천문대
9	경기도 양평군	양평국제 천문대	19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 천문대
10	경기도 양주시	송암스타스텔리	20	전라남도 구례군	곡성섬진강 천문대

표 3. 지형·지질

	지역	지형·지질 관광지		지역	지형·지질 관광지
1	강원도 속초시	흔들바위	5	전라북도 진안군	풍혈과 냉천
2	강원도 양구군	편치불	6	전라북도 김제시	김제평야
3	강원도 평창군	팔석정	7	경상남도 의령군	봉황대(의령)
4	충청남도 태안군	신두리 해안사구	8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일출봉

표 4. 공룡 화석지

	지역	공룡 화석지		지역	공룡 화석지
1	경기도 화성시	화성 공룡알 화석지	6	경상남도 남해군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2	전라남도 보성군	비봉 공룡알 화석	7	경상남도 진주시	유수리의 백악기 화석산지
3	전라남도 화순군	공룡발자국 화석지	8	경상남도 고성군	공룡과 새발자국 화석산지
4	전라남도 해남군	우항리 공룡 화석지	9	경상남도 마산시	고현리 공룡발자국 화석
5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 공룡 화석지	10	경상북도 의성군	제오리의 공룡발자국 화석지

표 5. 습지

	지역	습지		지역	습지
1	서울 서초구	양재천 하류	5	울산 울주군	무제치늪
2	서울 영등포구	한강 밤섬	6	강원도 화천군	습지보호지역(북한강)
3	서울 동대문구	청계8경 버들습지	7	경상남도 창원군	우포늪(생태공원)
4	경기도 여주군	강천 바위늪구비			

표 6. 식생

	지역	식생		지역	식생
1	경기도 시흥시	연꽃테마파크	20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 서출지 (연꽃)
2	경기도 포천시	광릉숲	21	경상북도 고령군	신촌숲
3	경기도 수원시	수원 노송지대	22	경상북도 군위군	대올리 송림
4	경기도 이천시	이천 산수유마을	23	경상남도 진해시	안민고개
5	경기도 양평군	양평 산수유마을	24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 다초지
6	경기도 안산시	시화호 갈대습지공원	25	전라북도 고창군	석정온천지구 국화꽃밭
7	인천 옹진군	서어나무 군락지	26	전라남도 신안군	태평염생식물원
8	울산 울주군	울산 들꽃학습원	27	전라남도 광양시	백계산 동백림
9	울산 남구	태화강 십리대밭	28	전라남도 함평군	용천사 꽃무릇공원
10	강원도 양구군	양구생태식물원	29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회산백련지
11	강원도 삼척시	삼척 맹방 유채밭	30	경상남도 밀양시	재약산 사자평
12	강원도 삼척시	맹방 벚꽃길	31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녹차밭
13	충청북도 제천시	자연탐사 과학관	32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반도
14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 미선나무 자생지	33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 배마을
15	충청남도 태안군	어은돌갈대숲	34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 산수유마을
16	충청남도 서천군	신성리 갈대밭	35	전라남도 광양시	섬진강 매화마을
17	충청남도 서천군	마량리 동백나무숲	36	전라남도 장흥군	선학동 유채마을
18	경상북도 포항시	모감주 군락지	37	제주도 서귀포시	남제주 역사오름길
19	경상북도 영덕군	지품 복사꽃 동네			

표 7. 철새 서식지

	지역	철새 서식지		지역	철새 서식지
1	경기도 구리시	곤충생태관	12	경상남도 창원시	주남저수지(철새도래지)
2	인천 강화군	강화도 여치리 해변 철새	13	전라북도 군산시	금강철새조망대
3	강원도 철원군	철원 철새관광	14	전라북도 임실군	성가리 백로마을
4	강원도 고성군	송지호철새관망타워	15	전라북도 무주군	반딧불이 마을
5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 왜가리도래지	16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 백조도래지
6	충청남도 서산시	천수만(철새도래지)	17	전라남도 무안군	백로·왜가리 번식지
7	충청남도 서천군	조류생태전시관	18	전라남도 여주시	굴전 해안의 고니도래지
8	충청남도 연기군	감성리 백로서식지	19	전라남도 해남군	간척지 담수호 철새도래지
9	경상북도 영주시	상석리 왜가리 서식지	20	전라남도 해남군	고천암호(철새탐조)
10	경상남도 의령군	왜가리 서식지(의령)	21	부산 사하구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11	경상남도 거제시	팔색조 도래지	22	제주도 제주시	제주 하도리 철새도래지

표 8. 방조제 및 하구둑

	지역	기암피석		지역	기암피석
1	경기도 안산시	시화호	4	충청남도 서천군	금강 하굿둑
2	충청남도 서천군	부사방조제	5	전라북도 군산시	금강 하굿둑(철새도래지)
3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방조제			

표 9. 기타

	지역	기암피석		지역	기암피석
1	강원도 인제군	설피마을	7	경상남도 거제시	바람의 언덕
2	강원도 인제군	용대리 황태마을	8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 신비의 바닷길
4	전라북도 부안군	낙조대	9	제주도	서귀포시 혼인지
5	전라남도 신안군	대동염전	10	제주도	제주시 방선문
6	전라남도 영광군	천일염전(광백사)			

부록 3. 희귀동식물/기암괴석(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2010)

표 1. 기암괴석

	지역	기암괴석		지역	기암괴석
1	경상북도 포항시	하선대	6	전라남도 화순군	물엄적벽
2	경상북도 군위군	학소대	7	전라북도 진안군	마이산 타포니지형
3	전라남도 완도군	범바위	8	경상북도 영천시	돌할매
4	경상북도 울진군	사랑바위	9	경상남도 의령군	탑바위 (의령)
5	강원도 동해시	추암 촛대바위	10	제주도 서귀포시	외돌개

표 2. 희귀 식물

	지역	식물		지역	식물
1	서울 관악구	신림동 굴참나무	29	경상북도 안동시	송사동의 소태나무
2	경기도 이천시	이천 백송	30	경상북도 청송군	신기동의 느티나무
3	경기도 이천시	반룡송(蟠龍松)	31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사촌리의 가로숲
4	인천 강화군	사기리 탕자나무	32	경상북도 영천시	오리장림
5	광주 남구	양림동 호랑가시나무	33	경상북도 예천군	석송령(石松靈)
6	광주 북구	충효동 왕버들	34	경상남도 창원시	신방리 음나무군
7	울산 울주군	울주 구량리 은행나무	35	경상남도 남해군	단항 왕후박나무
8	강원도 영월군	영월의 은행나무	36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미조리상록수림
9	강원도 원주시	성황림	37	경상남도 산청군	단속사 정당매
10	강원도 삼척시	삼척 근덕면의 음나무	38	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회화나무
11	충청북도 괴산군	읍내리 은행나무	39	경상남도 산청군	산천재 남명매
12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 오가리 느티나무	40	경상남도 산청군	운리 야매
13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의 소나무	41	경상남도 마산시	인곡리 모과나무
14	충청남도 태안군	모감주나무군락	42	경상남도 하동군	범왕리 푸조나무
15	충청남도 서산시	서산향교 은행나무	43	경상남도 거제시	명진리 느티나무
16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읍성 회화나무	44	경상남도 거제시	외간 동백나무
17	경상북도 청송군	홍원리 개오동나무	45	전라북도 진안군	줄사철나무 군락
18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안덕면의 향나무	46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 은수사 청실배나무
19	경상북도 안동시	용계의 은행나무	47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 평지리 이팝나무
20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의 딱향나무	48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의 반송
21	경상북도 안동시	녹전면의 느티나무	49	전라남도 완도군	미라리 상록수림
22	경상북도 의성군	월소리 소나무	50	전라남도 완도군	맹선리 상록수림
23	경상북도 의성군	사촌리 향나무	51	전라남도 장흥군	용산면의 푸조나무
24	경상북도 의성군	도서동 회화나무	52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의 효자송
25	경상북도 예천군	사부리 소나무	53	전라남도 함평군	양재리의 이팝나무
26	경상북도 예천군	황목군	54	전라남도 함평군	팽나무·느티나무
27	경상북도 포항시	의창읍의 이팝나무군락	55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 이서면의 은행나무
28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리의 느티나무군	56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곰솔나무

부록 4. 전국자연환경(지형)조사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교육과정

구분	내 용			시간	
교육	공통	이론 교육	생물다양성 개관 자연환경조사의 이해 생태자연도의 이해	20	196
	전공	이론 교육	산지 지형 하천 지형 해안 지형 특수 지형 - 카르스트 지형 - 화산 지형	48	
		현장 실습	산지 지형 하천 지형 해안 지형 특수 지형 - 카르스트 지형 - 화산 지형	12 8	
평가	공통 필수			2	4
	전공(지형)			2	
계				200	

출처: 자연환경조사 전문 인력 양성사업을 위한 수도권거점 교육센터, 2009.

부록 5. 지형조사 분류표

대구분	중구분	지형단위
산지지형	침식 및 풍화지형	급애, 암석돔, 판상절리지형, 수직절리지형, 토르, 악지, 고위 평탄면, 고립구릉, 권곡, 설식와지, 풍화동굴, 그루브, 나마, 산 지타포니, 단층(선)곡, 삼각말단면
	퇴적지형	구조토, 암괴류, 암괴원, 애추, 산지습지
하천지형	침식지형	폭포, 폭호, 포트홀, 감입곡류구간, 메앤더코어, 협곡, 하식애, 하식동
	퇴적지형	삼각주, 선상지, 곡저평야, 포인트바, 자연제방, 하중도, 사력 퇴적지, 구하도, 야주하도, 우각호, 천정천, 망류하도구간, 지류습지, 배후습지, 구분류습지, 하안단구, 호소성습지
	기타	용천
해안지형	침식지형	해식애, 해식동, 파식대, 시스택, 시아치, 노치, 마린포트홀, 해안타포니
	퇴적지형	간석지, 염습지, 거력해안, 자갈해안, 모래 해안, 패사해안, 사취, 사주, 연안사주, 육계사주, 육계도, 범, 비치리지, 석호, 해안사구, 사구 습지, 해안평야
	기 타	해안단구, 간척지
특수지형	카르스트 지형	돌리네, 우발라, 자연교, 카렌(라피에), 석회동굴, 카르스트 건곡, 카르스트 용천
	화산지형	용암원정구, 분석구, 응회구, 응회환, 마르, 용암동굴, 화구, 중앙화구구, 화구호, 칼데라, 칼데라호, 피크 크레이터, 용암대지, 스탭토, 베개용암, 새끼용암, 주상절리지형

출처: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2006.

부록 6. DMZ 지오투어리즘 가이드 양성과정

	시 간	소요시간	교 육 내 용
1일	11:30 ~ 12:00	30분	오리엔테이션
	13:00 ~ 13:50	50분	강원도 DMZ 지오파크
	14:00 ~ 14:50	50분	DMZ와 접경지역의 이해
	15:00 ~ 15:50	50분	구글어스를 활용한 관광자원 관리
	16:00 ~ 18:50	170분	DMZ의 지형·지질유산1(석호와 해안지형)
2일	10:00 ~ 11:00	60분	고석정 현장 교육
	11:10 ~ 12:00	50분	DMZ의 지형·지질유산2 (침식분지의 발달)
	13:00 ~ 14:50	110분	DMZ의 지형·지질유산3(산지지형의 발달)
	15:00 ~ 17:50	170분	DMZ의 지형·지질유산4 (용암대지 및 현무암 협곡과 화산지형)
3일	10:00 ~ 12:00	120분	실전서비스대화법 (고객응대법 호감가는 음성 만들기)
	13:00 ~ 14:50	110분	명품해설기법(강의계획 및 교안 작성법)
	15:00 ~ 15:50	50분	지식 토론회 : 지오파크 전문 인터프리터 양성교육의 방향
	16:00 ~ 16:30	30분	수료식

출처: 강원도 DMZ 지오파크조성사업단, 2010, 인터프리터 현장실습 자료집.

## 감사의 글

성신에 입학했던 일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이곳에서 3번째 졸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도 믿겨 지지 않습니다.

논문을 준비하면서 배우고 느낀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선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논문은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경 교수님을 통해 지오투어리즘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고, 교수님의 따뜻한 격려와 지도 덕분에 논문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모습처럼 학문의 길에 열정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좋은 논문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지도 해주시고 심사해 주신 이원호 교수님, 이자원 교수님, 대구가톨릭대 전영권 교수님, 공주대 박지훈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신여대 입학 후 많은 가르침과 관심을 가져주신 양보경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대학원 과정동안 많은 힘이 되어준 동기 성은, 후배 상명 그리고 자연지리 식구인 해미, 지영, 혜진, 정연, 정수, 수정이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논문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용기를 주신 김영희, 배미연, 백승현 선생님 그리고 저 보다도 제 논문을 더 많이 읽어주신 배인선 선생님께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신 장안고 조기주 교감선생님, 꼼꼼히 챙겨 주신 서송월 선생님 그리고 많은 지원을 해준 박미라, 윤세라 선생님, 청수씨 고맙습니다.

항상 늘 같이 해준 나의 오랜 친구 소정, 용기를 충전해준 혜진, 물심양면으로 챙겨준 형진, 언제나 응원을 보내준 윤정, 재연, 미현, 진아, 혜경아 고맙다.

마지막으로 묵묵히 믿어주시고 격려해주신 아빠, 언제나 자식을 위해 아낌없는 사랑을 주시는 엄마,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준 선규, 친구 같은 막내 미숙,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과 이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어 행복합니다.

2011년 12월 박민영 올림